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N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9 / July / 2007

0707

칼럼

지금은 건축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시론

가치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회원작품

미당 안술

갤러리 소스

해경 게이트웨이 플라자

천주교 화곡2동 성당 리모델링

안산11대학 강의동(성실관)

작품노트

아임삭 오창 공장

명학성당 리노베이션

건축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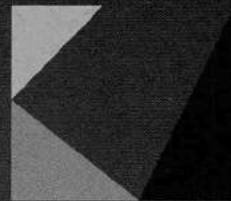
일본 나오키마 건축기행

현상설계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 혈액원 사옥

중앙대학교 공학 R&D 센터

고양시 역도연습장



2 0 0 7

KAFF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

동_시_행_사

전국건축사대회

건축의 날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사연수교육

건축사 미술전

UIA PPC 국제회의

한국건축산업대전
INVITATION II

건축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K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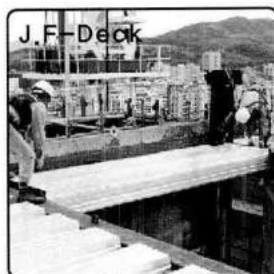


2007. 10.2.(화) ▶ 10.6.(토) **COEX** 인도양홀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TEL 02+3473+9966, 9967 FAX 02+586+8823 HOMEPAGE www.kaff.biz
후원 | 건설교통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주)제일테크노스

<http://www.jeil21c.co.kr>

본사 _____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代) / FAX : (054)278-2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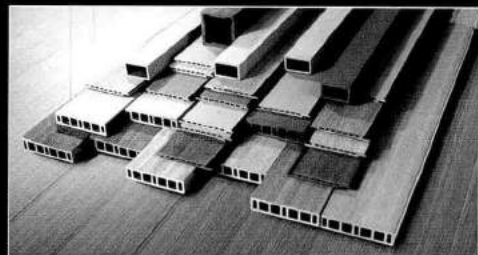
서울 사무소 _____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6 남도빌딩 5F
TEL : (02)555-2055(代) / FAX : (02)554-1476



“그림같은 공간을 꿈꾸세요”

공간에 대한 긴:생각 Z:In 사이데온

사이데온은 다양한 컬러와 간편한 시공으로 모던한 분위기에서 클래식한 분위기까지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사이데온은 특수코팅된 고급 목분을 사용하여 나무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신소재입니다.
 ▶내수성이 뛰어나고 곰팡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탈색과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얼룩이 지지 않습니다.
 ▶Fashion 자재입니다. ▶시공이 간편합니다.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시공 사례]



▲ DECK



▲ SIDING



▲ LOUVER



▲ TERRACE



▲ BALCONY



▲ FENCE



헤이리 소소갤러리 - 가와건축



강릉 P씨 댁

건축 사진

studio 아키포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3-24
대표전화 031.977.4202 010.9908.8802

www.acifoto.com

최근 진행된 프로젝트

헤이리 : 소소, 엔토코, 터치아트 가와건축

서울시립아동병원, 수유리영어마을 에이텍건축

문래동 에이스시티 유진건축

광희동 청사 단아건축

사진가 박재영실장 프로필

87년 홍익대 건축학과 졸

무영건축사사무소 근무

동양공전 사진학 출강

개인전 2회개최



서울시립아동병원 - 에이텍



문래동 에이스 시티 - 유진건축



수유리영어마을 - 에이텍

SMART PARKING®



“좋은 주차기를 선택하는 기준”

- ✓ 조작이 쉬운가?
- ✓ 잔고장이 없는가?
- ✓ 소음없이 조용한가?
- ✓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가?
-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동양PC의 SMART PARKING은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주차기입니다.

세·계·최·초·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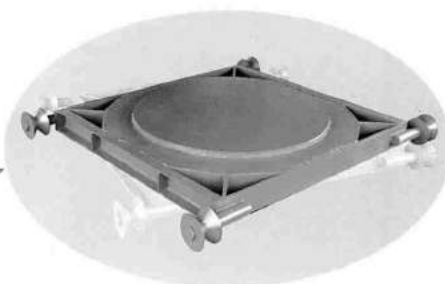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전시광경"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적 특허방식인
유압리프팅 구동방식의 新메커니즘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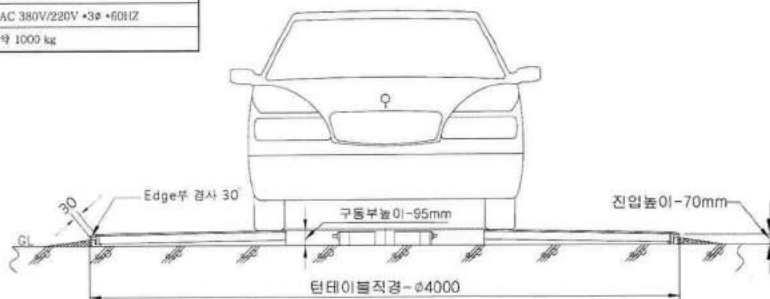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상세내용(신형)
주요 자품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장치	구동방식: 바퀴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개
	회전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인원 전원	AC 380V/220V *3φ *60HZ
차체 중량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Since 1989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 주차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FAX : 054)973-0067

A/S : 02)323-4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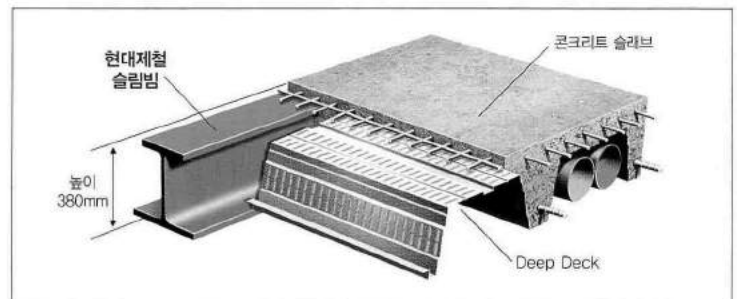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달콤한 차이! 한 층의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층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층고를 줄여 10층 높이에 11층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
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
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싹~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
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슬림플로어 공법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층당 25~40cm 층고 절감으로 10개층에 1개층 추가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Cost Down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양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시 토공사량 감소

국내 적용 사례



오피스
삼성화학 청량리 사옥



지하주차장
죽전인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지상 자주식 주차건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Contents



19



27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7 07 459호

칼럼	지금은 건축계 모두가 힘을 뭉쳐야 할 때다	전영철	12
사론	가치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곽진훈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회원작품	미당 안 숲	김인철 · 정승권	18
	갤러리 소소	최삼영	26
	애경 게이트웨이 플라자	박영건	32
	천주교 화곡2동 성당 리모델링	박대원	40
	인산1대학 강의동(성실관)	김호준 · 박영구	44
작품노트	아임삭 오창 공장	신춘규	48
	명학성당 리노베이션	유방근	54
건축기행	일본 나옴시마 건축기행	박돈서	60
현상설계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 혈액원 사옥		66
	중앙대학교 공학 R&D 센터		68
	고양시 역도연습장		70
연재	건축주 브리핑 · 관점의 중첩 (1)	김주형	74
기고	AIA 2007 Convention을 다녀와서	이영수	84
건축마당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8
	통계		103
	해외잡지동향		104
	백민석 책을 말하다		108

발행인 한영수
 편찬위원 강석후(담당이사), 백민석(위원장)
 취재·편집 최리형 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주)현대문화사 Tel : (02)2278-4482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35



42



47

Korean Architects

Vol. 459
July 2007

Column

Time for all Architects to Unite	Jeon, Young-cheol	12
----------------------------------	-------------------	----

Focus

Desirable Way to Value Actualization	Kwak, Jin-hoon	14
--------------------------------------	----------------	----

Cartoon

	Yoo, Won-jai	17
--	--------------	----

Works

Forest Garden	Kim, In-cheul & Jung, Seung-kweon	18
Gallery SOSO	Choi, Sam-young	26
Aekyung Gateway Plaza	Park, Young-kern	32
Catholic Hwagok2-dong Church remodeling	Park, Dae-won	40
Ansan College Seongsil Bldg	Kim, Ho-joon & Park, Young-goo	44

Design Note

Aimsak Ochang Factory	Shin, Chun-gyu	48
MyeongHak Catholic Church Renovation	Yu, Bang-geun	54

Architecture Travel

Architectural Tour Report - Naoshima Art Site	Park, Don-soh	60
---	---------------	----

Competition

Korea National Red-Cross Chungbuk Chapter		66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R&D Center		68
Goyangsi weight Lifting Range		70

Serial

Client Briefing - Perspectives Overlapping(1)	Kim, Ju-hyeong	74
---	----------------	----

Feature

Attending AIA 2007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Lee, Young-soo	84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1
Archi-Net		98
Statistics		103
Overseas Journal		104
Book Review		108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Kang, Suk-hoo & Baek, Min-seok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지금은 건축계 모두가 힘을 뭉쳐야 할 때다

Time for all Architects to Unite

대부분의 산업이 국제화, 세계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지원 속에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유독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건축의 설계분야이다. 6.25 민족전쟁이후 무너져 버린 도심과 주거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정책은 건설위주로 갈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늦어도 90년대 초기정도부터는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건축문화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인 지금까지도 건설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은 꿈 짝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환경디자인 속에 건축디자인, 도시계획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이 필요하며 산업디자인회사가 그 업무를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을 비롯하여 디자인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문화관광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건축문화를 간과하고 건설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한 건설교통부가 자승자박한 결과이다.

모든 건축 관련법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타 부처에서 이런 주장을 듣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문화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보호받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 관심도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무관심의 수준이다. 심지어는 과학기술처 소속의 기술사들 주장이 우선시되기도 한다.

15,000명이나 되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만을 꿈꾸며 80여 대학에서 배출되는 5년제 건축학과 학생들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건축계의 핵심인 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건축계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첫 번째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발주제도 개선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적격심사제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발주하고자 하는 규모이상의 설계를 한 실적이 없으면 거의 현상설계, 턴키설계, BTL설계에 참여할 수가 없다. 건설공사에만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창작업무인 설계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독립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기본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바, 대표적 전문직 중의 하나인 건축사자격 자체를 국가에서 거절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감리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기술법 및 주택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들의 공사감리는 의무적으로 감리회사가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감리회사가 최근 3년간의 감리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새롭게 수많은 기술 인력과 큰 자본금을 가지고 훌륭한 회사를 차린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에도 어긋나며 기존회사들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잘못된 제도이다. 최소한 설계와 공사감리 부문에서의 적격심사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건축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정비이다.

5년제 졸업생이 이미 배출되기 시작하였는데도 그에 관련된 건축사법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사법 개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등록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므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건축사법 개정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문화진흥법과 건축기본

수많은 과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논의는 건축계가 하나로 뭉쳤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야기 할 때 최소한 건축계의 의견은 통일되게 만들어야 함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성 건축인들의 몫이다.
 차후에 활동할 건축계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을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먼 훗날 우리의 후진들에게 얼굴을 들고 따듯이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건축계가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계 모두가 지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법도 통합법안의 형태를 취하여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는 치외법권 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법령정비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건축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건축사들의 업무영역을 늘리려면 우선 건축사들의 전문 영역을 확대하고 그에 따르는 전문가 그룹의 결성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건축사들만 하고 있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법원의 감정업무, 건축평론, 건축설계심사 등을 비롯하여 경관과 같이 이미 통과된 법률의 업무들에 대한 선점도 중요하고 국회에 제언된 법안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검사 업무의 정착화와 설계 및 감리의 중간과정까지 조사검사업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시 건축사의 의무점검이나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의무점검과 같은 업무들이 법에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건축계와 정부, 건축계와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위한 장치마련이다.

그동안 우리 건축계는 정부나 정치권을 향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부적절한 금력 로비를 제안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건축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론을 나누는 포럼형태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이 유익할 것이며 정치권에는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정당인으로서 회비 2,000원(월) 정도를 내어 당원이 되면 건축 현안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같은 당원들끼리 연명하여 정식으로 당을 통한 제도개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제도개선은 바로 정치이며 이는 당원과 유권자를 중요시하는 정치권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계의 자정노력이다.

우선은 건축계의 양심을 세워야 한다. 무분별한 덤핑과 위법행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며, 자질형상과 기술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교육들을 통하여 지켜지는 우리의 정당한 행위들이 우리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모두가 공감하여야 한다. 사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건축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각종 시민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후원회원이 되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제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수많은 과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논의는 건축계가 하나로 뭉쳤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야기 할 때 최소한 건축계의 의견은 통일되게 만들어야 함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성 건축인들의 몫이다.

차후에 활동할 건축계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을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먼 훗날 우리의 후진들에게 얼굴을 들고 따듯이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건축계가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계 모두가 지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가치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 한국건축사협회 발기인대회를 바라보며

Desirable Way to Value Actualization

우리들의 건축사(建築史)

우리사회는 근대이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여러 분야의 성장통은 증대되어왔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축인들도 숙명적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건축계는 시대의 변화요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전문인의 체계적양성과 교육, 법의 제정과 보완 등을 시대변화의 물결에 떠밀려 수동적인 모습으로 수습하여 정비해왔다. 이로 인해 건축계는 건축인 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역할 등에서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였고, 많은 편차를 가진 건축인과 건축물들의 모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수의 건축인들은 건축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건물을 생산하였고, 좋은 건축물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 땅의 건축현실에 불명예스러운 기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국민들로부터 전문인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사회적 인식의 뒷전에 머물러 있다.

건축계에는 얼마 전까지 3단체가 있어왔다. 3단체 중 대한건축학회는 학문연구에 기여해왔고,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건축관련인들로 구성되어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관련법이 정비되는 시기에 뒤늦게 출범하여 건축사를 대표하는 공식적 전문단체로서 유지되어왔다.

몇 년 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기존조직에 한계를 느낀 건축인들이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건축사협회'를 설립추진하였으나, 협회설립의 회원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 '협의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건축계는 여러 협(의)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각 협(의)회간의 자리매김을 위한 불안정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

"드디어 우리 한국 건축계에도 희망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갈라져 나가기만 하던 물줄기가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통합하여 하나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건축사협회의 발기인대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이러한 외침이 전체 건축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외쳐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재 건축관련 협(의)회들의 설립목적들은 국민과 공익, 문화, 회원의 교류와 권익보호, 국제화 등 대부분의 지향하는 바가 대동소이하며, 요즈음 수립한 세부과제에서도 법의 제정, 신진작가발굴 등 표면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통과제들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이며 나아가 건축계가 하나 되어야 할 근본이유이다.

건축계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와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여러 대내외적 수많은 요구와 과제들의 해답을 찾아 정리해야하고, 실천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조직체를 재구성하고 정비해야한다.

현재 우리 건축인들은 힘을 모으고 조직을 재정비하여도 풀기 어려운 여러 난제들 앞에서 외로이 서 있다.

건축지도자를 향한 바람의 글

가던 길을 되돌아 나와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여 주십시오.
모든 건축인의 지지를 받는 하나 된 협회를 위하여 대화해주시십시오.
혹여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건축계의 통합이 어렵다고 모두가 느낄 때, 그때에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때가 되면 누구도 새로운 협회의 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건축인들에게 협회를 선택해야하는 혼란과 고통의 과정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힘을 결집시켜 주십시오.
많은 건축인들이 지도자의 새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하고 나열한 목표와 이상들은 모든 건축인의 바람이었다. 단지 우리들의 힘이 모자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건축계의 과제였다. 주체가 누구이든 산적인 과제를 해결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계의 전반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발족된 '한국건축사협회'가 단독으로 목소리를 높여 해결해 나갈 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건축가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본인은 다양하고 풍요로운 한국건축가협회의 활동을 바라보며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접하게 된 새건축사협회의 많은 발행물에서 건축에 대한 깊은 고뇌와 외침, 그리고 이상을 향해 질주하려는 수많은 노력의 흔적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건축사협회를 발족시킨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의는 각 협(의)회 사이에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음에도, 현실인식과 목표가 대동소이함에도 다소간의 다름을 이유로 꼭 새로운 협회를 신설해야하는지 침묵하는 다수 건축인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국건축사협회는 건축계의 가치와 이상을 품에 안고, 대통합을 향한 새로운 물결이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어쩌면 이는 현재 분열된 소수의 조직들을 고착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대통합을 가로막는, 뜻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성장통은 잘 이겨내면 고통은 단기적 고통으로 그치고 한 단계 성장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할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고통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며, 우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 건축인에게 커다란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축지도자를 향한 바람의 글

우리의 건축지도자들은 회원과 공익을 위해 번뇌하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며 주변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건축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전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한국건축사협회의 발족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수 건축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 나와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여 주십시오.

모든 건축인의 지지를 받는 하나 된 협회를 위하여 대화해주시십시오.

혹여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건축계의 통합이 어렵다고 모두가 느낄 때, 그때에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때가 되면 누구도 새로운 협회의 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건축인들에게 협회를 선택해야하는 혼란과 고통의 과정을 생략하여 주십시오.

힘을 결집시켜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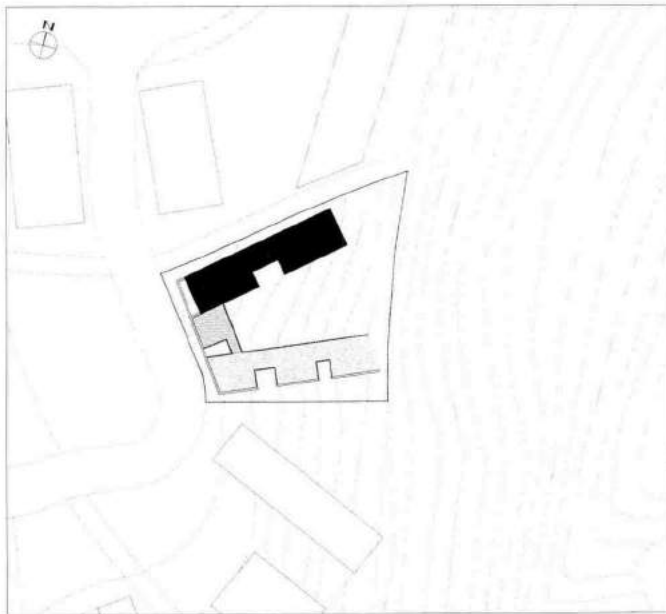
많은 건축인들이 지도자의 새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마당 안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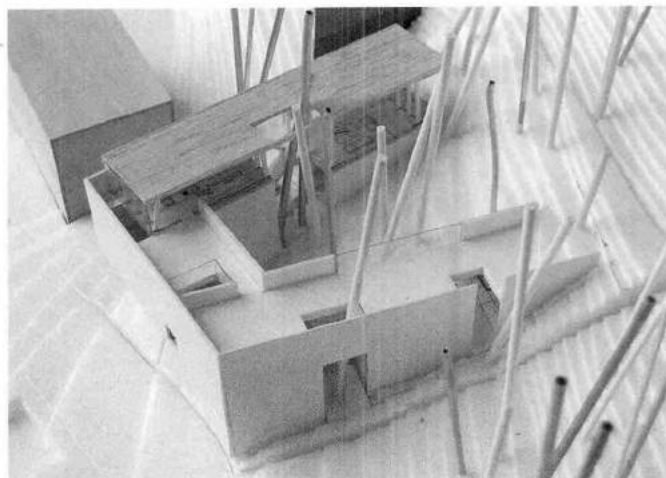
Forest Garde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1652-386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요용도	주택
대지면적	646.40㎡
건축면적	208.39㎡
연면적	326.72㎡
건폐율	32.24%
용적률	40.23%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온돌마루, 타일 벽-도배마감 천장-도배마감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강난형
구조설계	이영호(노마디자인)
설비·전기	ENG에너지연구소
설계기간	2005. 11 ~ 2006. 05
공사기간	2006. 05 ~ 2007. 04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영채)



Location	1652-386, Beobheung-ri,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646.40㎡
Bldg area	208.39㎡
Gross floor area	326.72㎡
Bldg coverage ratio	32.24%
Gross floor ratio	40.23%
Structure	R/C
Bldg. Scale	F3

1. 모형사진 2. 마당 안 숲 야경

헤이리의 '마당안의 숲'은 건축주가 스스로 정한 이름이다. 오히려 '마당안의 산'이라고 해도 어울릴 만큼 이 집은 원래의 지형을 그대로 품고 있다. 처음 대지를 찾았을 때 예전의 집터로 여겨지는 약간의 평지가 있었지만 산이 흘러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땅의 모습을 흐트리지 않고 집을 놓으려면 땅과 나무들을 중심으로 삼고 집을 가장자리로 물러나게 해야 했다. 건축주는 자신이 살 공간을 간소하게 꾸리고 나면 남게 되는 부분을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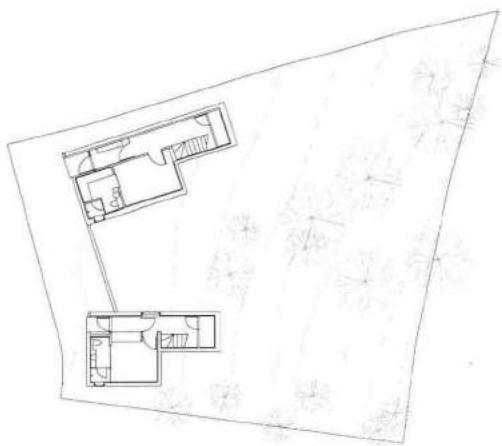
안채와 별채로 나누어 가장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한 층을 띄어 두 채가 연결되게 했다. 하나에 하나를 보태서 하나를 만든 셈이다. 부분들의 합이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지 이 집의 모습은 하나의 앵글로 잡히지 않는다.

경사진 땅에서 수평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경사를 따라 나누는 것이다. 지면에 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지만 땅과 이어지는 틈으로 여유를 만들어 조절할 수 있다. 틈은 사이라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열거나 벌린다는 동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과 집이 서로 끼어들려면 서로 트여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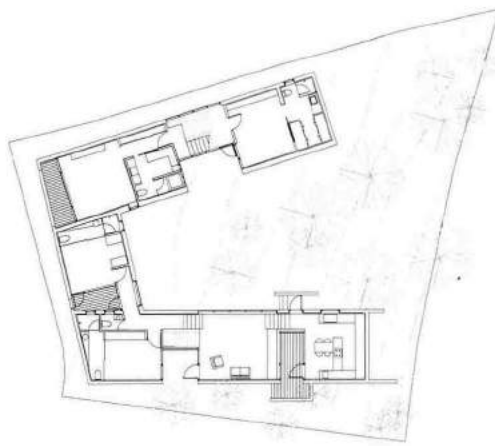
수평의 땅은 지붕 위에 만들어진다. 넓은 판을 만들고 다시 흙을 덮어 산과 이어지게 했다. 환경 또는 생태의 관점이 아니라 산과 숲에 내어준 땅을 인공의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산과 숲, 집과 마을이 조금씩 비켜서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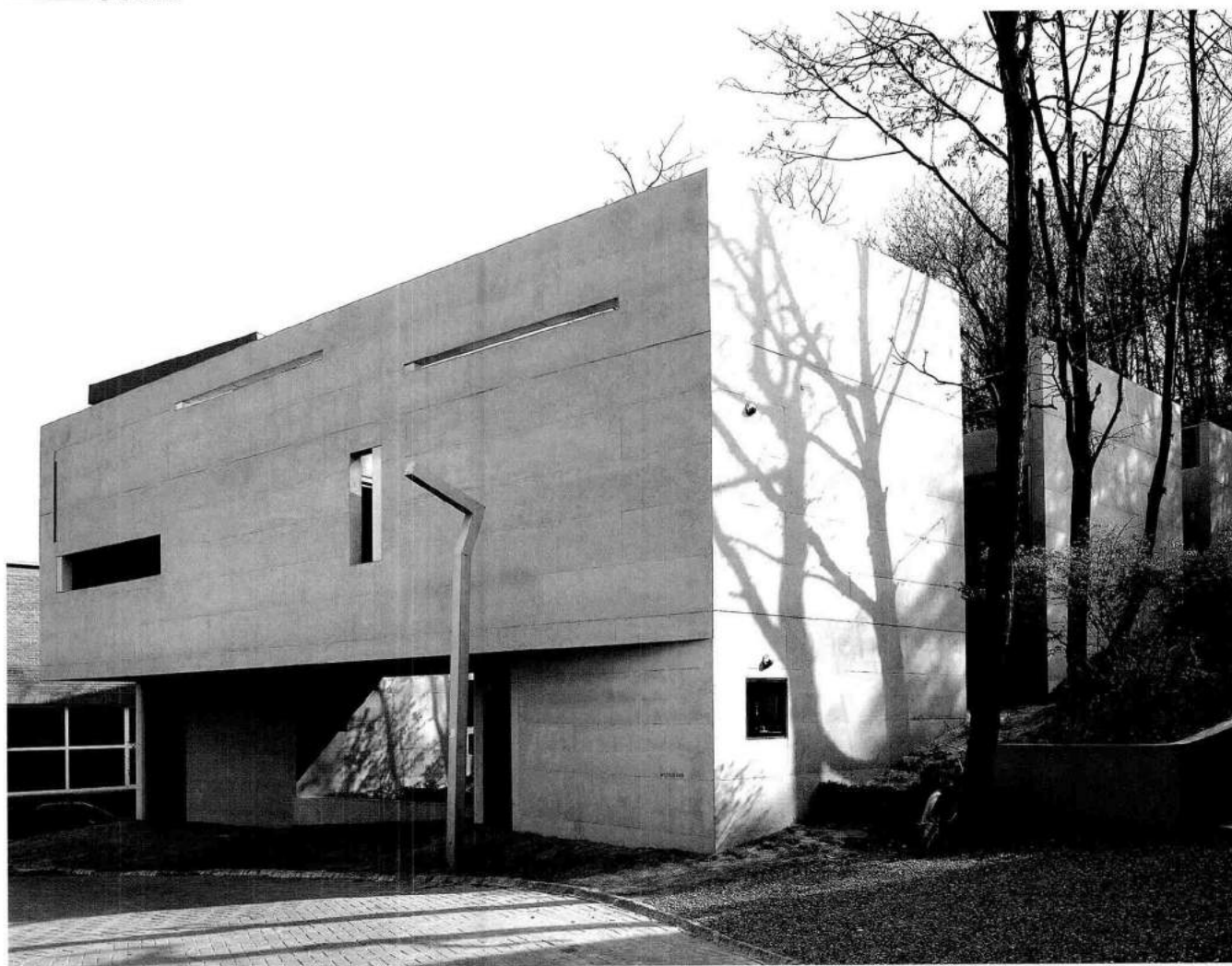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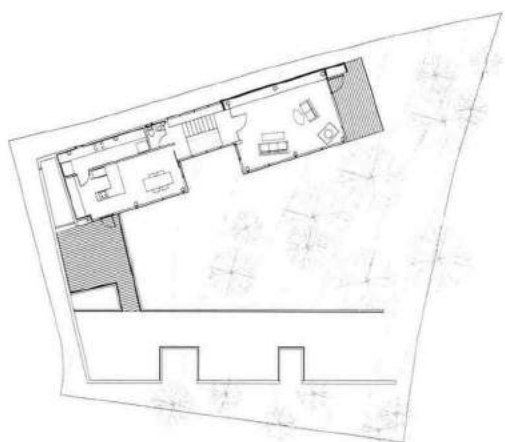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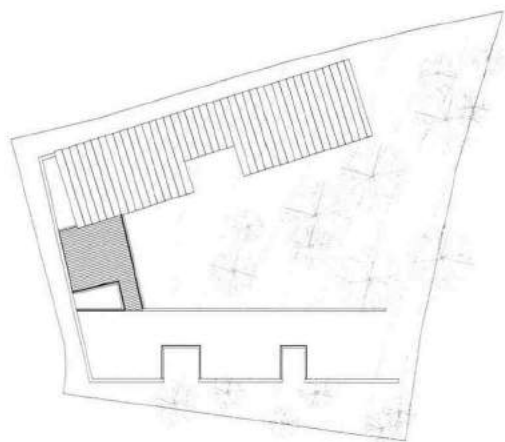
0 1 2 4 8m

1. 마당 안 숲 전망
2. 마당 안 숲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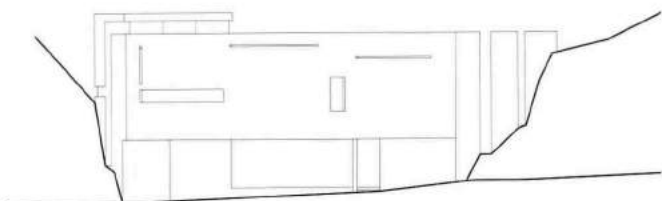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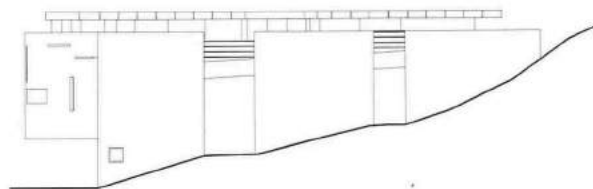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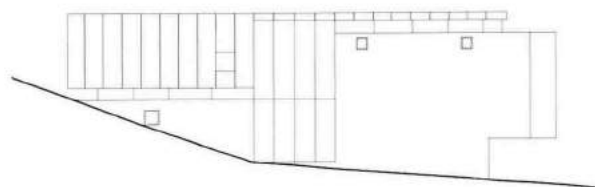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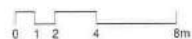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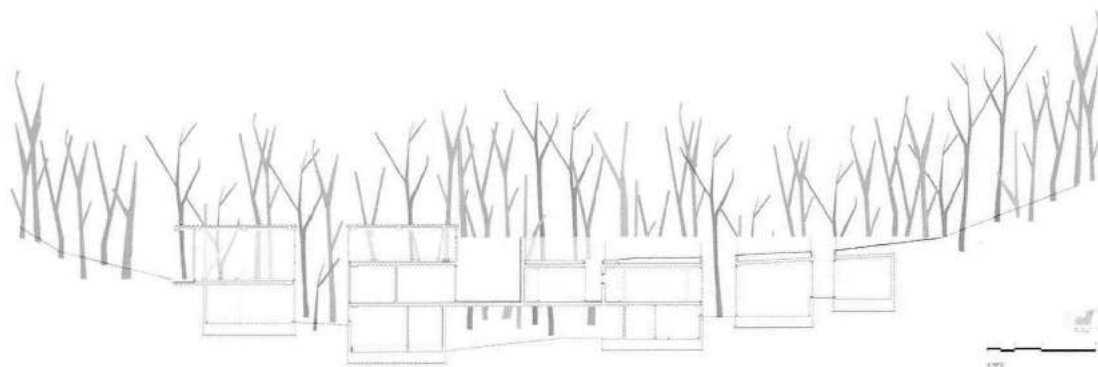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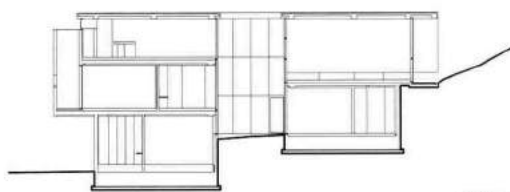
1. 마당 안 숲 정면
2. 마당 안 숲 회랑

3. 마당 안 숲 외경
4. 마당 안 숲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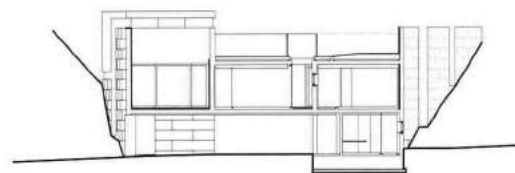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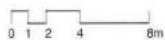
- | | |
|---|------------|
| 1 | 마당 안 숲 안면도 |
| 2 | 마당 안 숲 회랑 |
| 3 | 마당 안 숲 내경 |
| 4 | 마당 안 숲 회랑 |
| 5 | 마당 안 숲 내경 |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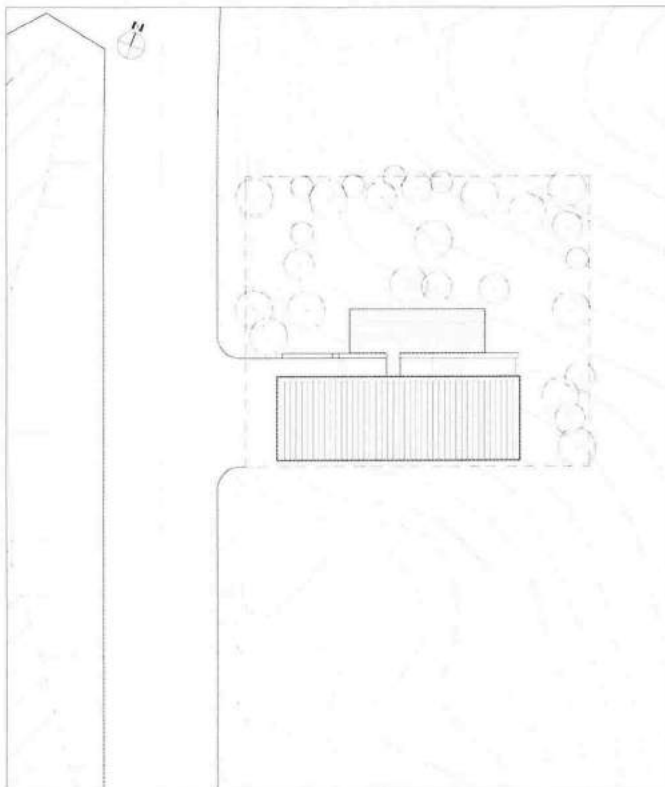
단면도4



갤러리 소소 Gallery SOSO

● 배치도

● 건축개요



대 지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단지내 1652-569(A-12블럭)
지역 지구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 지 면 적	766.90㎡
건 축 면 적	195.08㎡
연 면 적	273.74㎡
건 폐 율	25.44%
용 적 륜	35.69%
규 모	지상 2층(높이:7.76)
구 조	철근콘크리트, 목구조
내 부 마감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시더판재
외 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컬러강판
설 계 담당	이기호, 백혜수
구 조 설 계	박덕환(RC조), 림버미야자키(목구조)
설 비 설 계	세아설비
전 기 설 계	대경전기
시 공 사	가와건축사사무소 + 거현산업(주) + STUGA
설 계 기간	2006. 03 ~ 2006. 09
공 사 기간	2006. 10 ~ 2006. 12



Location 1652-569, heyri, Beobheung-ri,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766,90㎡

Bldg area 195,08㎡

Gross floor area 273,74㎡

Bldg coverage ratio 25,44%

Gross floor ratio 35,69%

Structure R/C + Wood

Bldg. Scale F2

1. 갤러리소소 부분 2. 갤러리소소 야경

갤러리소소는 인공 조립된 리기다소나무와 잡목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대지에 길을 통해 건축과 자연의 긴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계획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기존 자연 질서와 긴밀한 결합, 싸게 지을 수 있는 공법의 선택, 가볍고도 소박한 조형으로 주변을 압도하지 않는 겸손하고도 단아한 형태로 계획되고 구축 되어야함을 전제했다.

땅속에 앉히는 카페동과 갤러리 1층은 콘크리트를 베이스로 시공되어 두동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갤러리 1층과 2층은 목재 라멘조로의 기둥으로 통합시키며 숲을 향해 열어 두었다.

진입은 두동 사이를 흐르는 숲을 향한 관통과정에 두었으며 카페상부 데크에서는 기존의 동산인 숲과 갤러리 창에 비춰지는 허상인 숲 사이에 놓여진 즐거움을 누린다.

갤러리는 자연의 경사에 순응하는 계단을 통해 연결되었으며 목조 라멘조 숲을 산책하게 되며 전시를 돌고 나오는 브리지에서 비로소 자연과 건축이 주는 조화의 메시지를 읽게 의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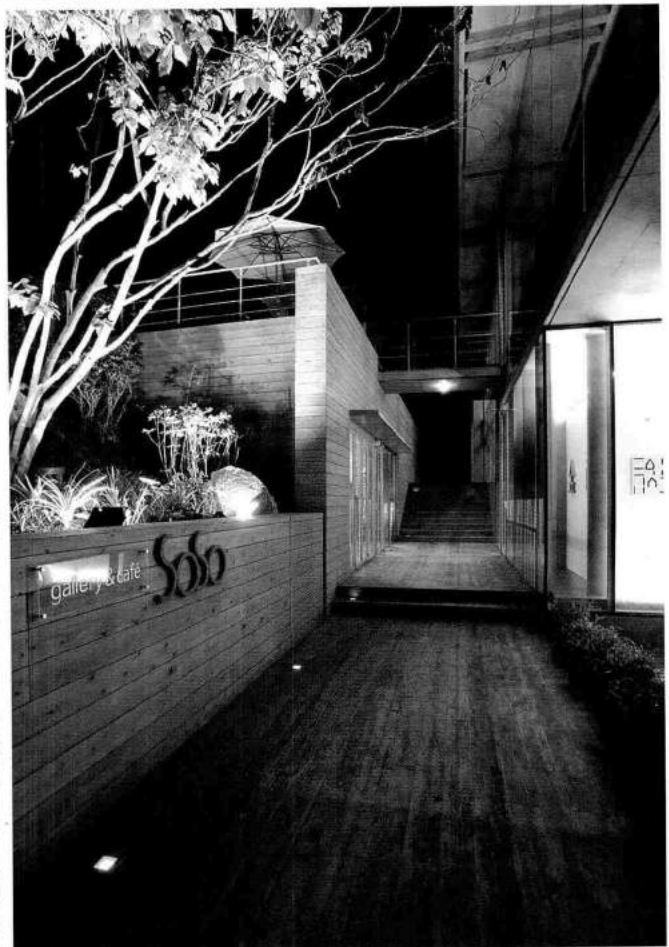
소소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지만 목조건축 연구에는 다소의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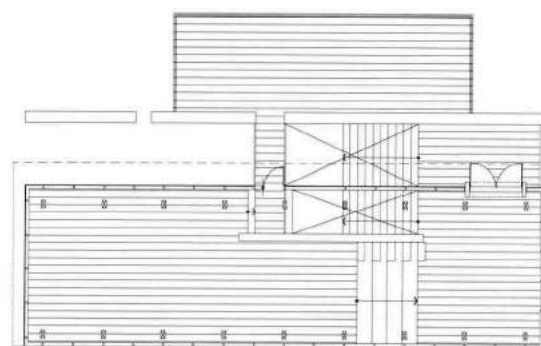
일본의 미야자키 목조기술연구소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참여하고 미야자키현청과 목조전문시공사인 스투가의 협조와 참여로 진행된 한일 목조 공동연구프로젝트인 셈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는 프리 컷이 전제된 목조 라멘조로서 시험적 성격이 강한 테스트하우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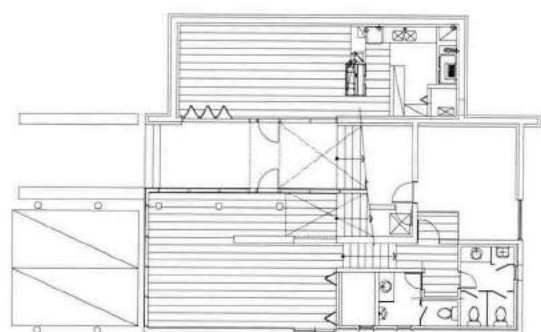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실험체를 만들고 부숴보며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프리 컷을 하여 단 하루 만에 조립 시공을 한 목구조의 새로운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빨리 짓고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건축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미래형 목조건축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위한 제안으로 skeleton and infill의 개념을 설정했으며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목구조 대안을 실험하게 된 것이다.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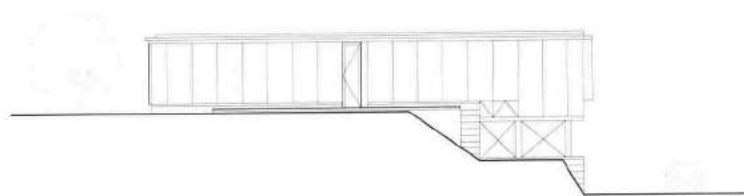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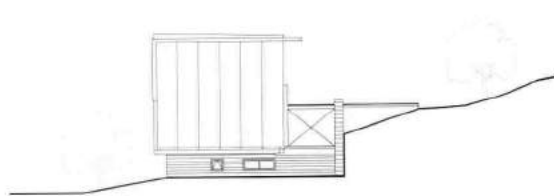


- 1. 갤러리소스 전경
- 2. 갤러리소스 전경
- 3. 갤러리소스 부분
- 4. 갤러리소스 부분
- 5. 갤러리소스 부분
- 6. 갤러리소스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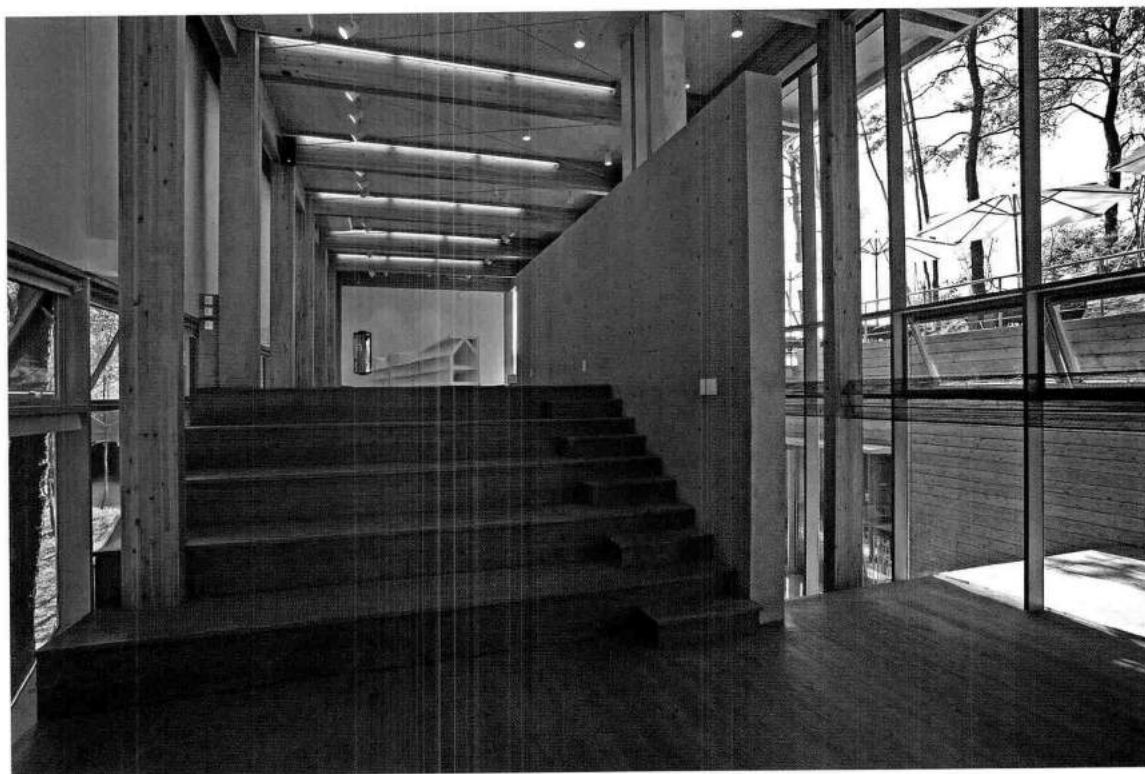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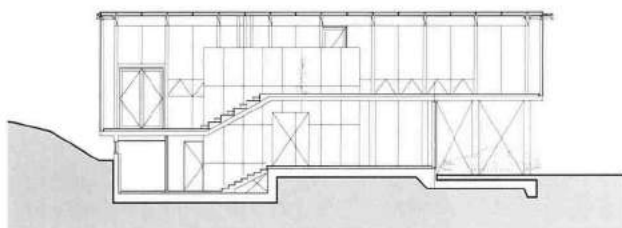


입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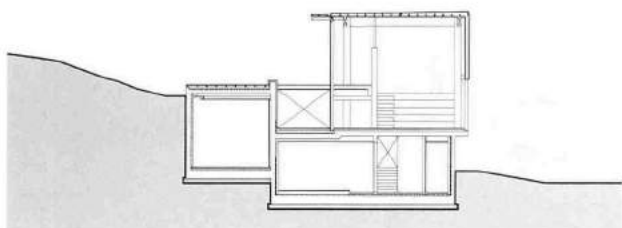


입면도2





단면도1



단면도2



- | | |
|-------------|-------------|
| 1. 갤러리소스 내부 | 3. 갤러리소스 내부 |
| 2. 갤러리소스 외부 | 4. 갤러리소스 내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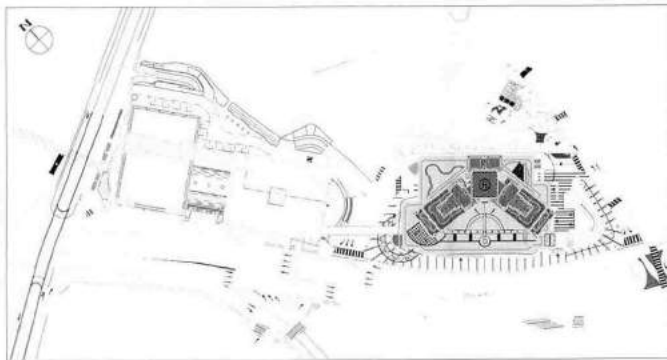


애경 게이트웨이 플라자

Aekyung Gateway Plaza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1번지와 5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공항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공동주택
대지면적	9,986.00㎡
건축면적	5,483.83㎡
연면적	117,641.77㎡
건폐율	54.92%
용적률	637.42%
규모	지하 5층, 지상 36층(299세대)
구조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내부마감	THK30 화강석 / 몰탈 위 벽지마감
외부마감	THK4.0 알미늄 복합패널 / THK3.0 알미늄 타공패널 / THK24 칼라복층유리 / THK30 화강석
설계담당	박형일, 이상태, 이재영, 정경오, 고봉석, 이상용, 여영선, 김덕현, 손성호, 임정호, 권오상, 진주희
구조설계	(주)센구조 연구소
설비설계	(주)다운
전기설계	주식회사 협인
시공사	GS건설(주)
설계기간	1999. 10 ~ 2004. 10
공사기간	2004. 03 ~ 2007. 05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김원양)



Location	501, Guro-dong, Guro-gu, Seoul, Korea
Site area	9,986.00㎡
Bldg area	5,483.83㎡
Gross floor area	117,641.77㎡
Bldg coverage ratio	54.92%
Gross floor ratio	637.42%
Structure	S,C + S,R,C
Bldg. Scale	B5, F36



1. 연경동로 2. 동측전경



이 계획안은 대지전면 간선도로변의 고밀도 상업군과 후면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기능의 수평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즉, 주·상의 단순한 수직적 조합이 아닌 상업군과 주거군의 도시구조를 수평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주거·상업 및 공원이 공존하는 매개적 공간의 형성으로 주변 도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애경백화점 및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상업시설과의 연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적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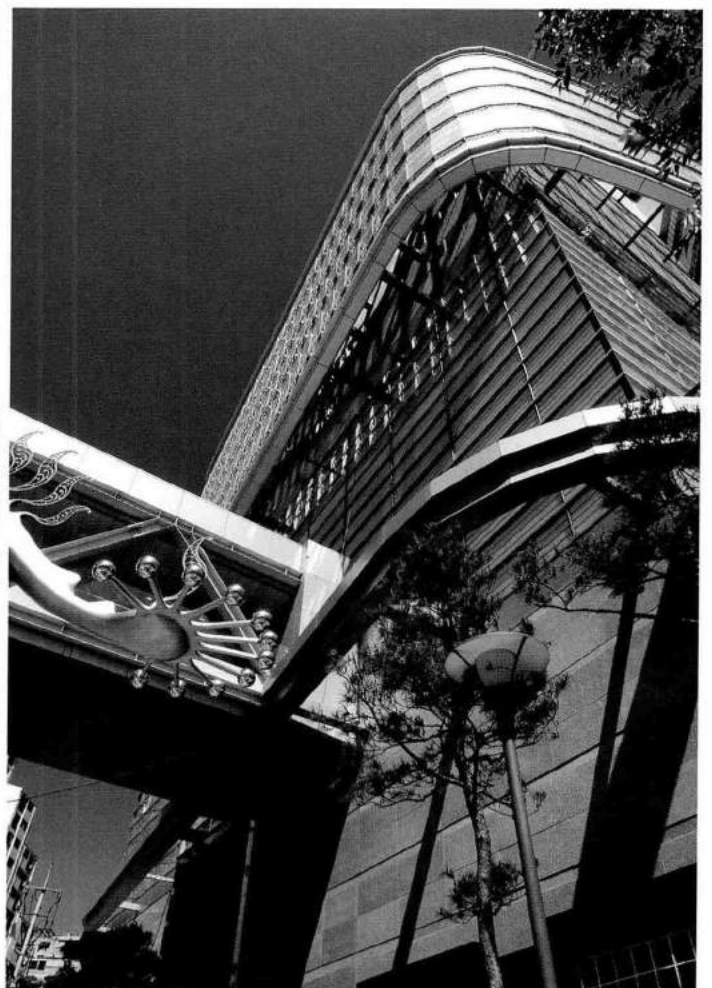
공동주택계획의 기본 방향은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이다. 기존층을 10~12세대로 구성하여 '이웃'이라는 1차적 공동체 형성하고, 옥상정원 및 이와 연계된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여 적극적인 커뮤니티 공간 제공함으로써 주민간의 교류를 적극 유도하였다. 그러나 주동의 배치에 있어서는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큰 각도의 Y자형으로 배치하여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거전용 주차장을 지상 5~8층에 인접 배치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주·상의 혼재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저하를 수직구조의 재배치(판매주차-판매시설-주거주차-주거시설)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저층부에 포디움(Podium)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시설의 경우 접근성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대지가 가지고 있는 고저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및 지상 2층 등 다양한 레벨에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매장으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또한 개방형 연결 브릿지 계획으로 기존 애경백화점 및 CGV 등 기존상권과의 연속성 확보하여 도시기능의 발전적 확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입면계획의 경우 저층부 상업시설 및 주차장은 알미늄 타공판 등 기존건축물과의 시각적 연속성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캐주얼 분위기의 상업적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하지만, 고층부 주거시설의 경우 유리 커튼월을 이용한 경쾌한 입면을 계획하였으나, 인·허가 과정 중 개정된 발코니 설치기준에 의하여 다소 답답한 형태로 입면이 변경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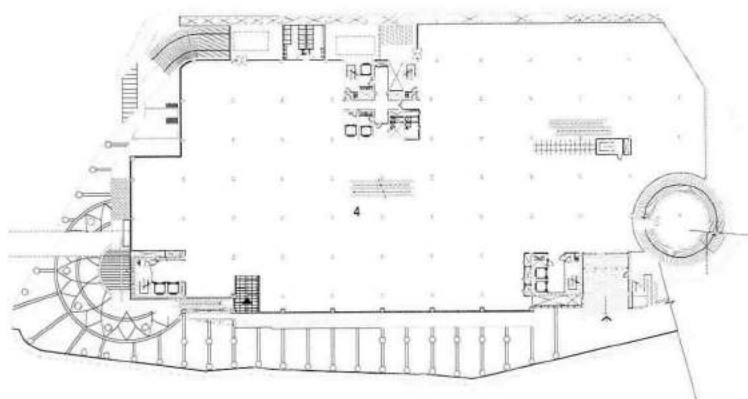
1. 해경타운 전체전경
2. 지상연결도로
3. 배문지점
4. 부분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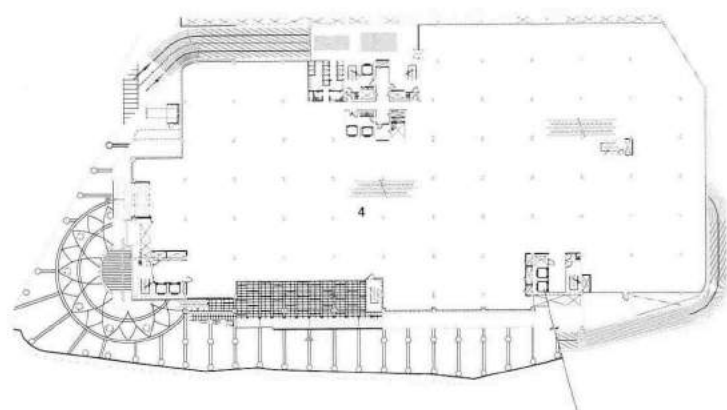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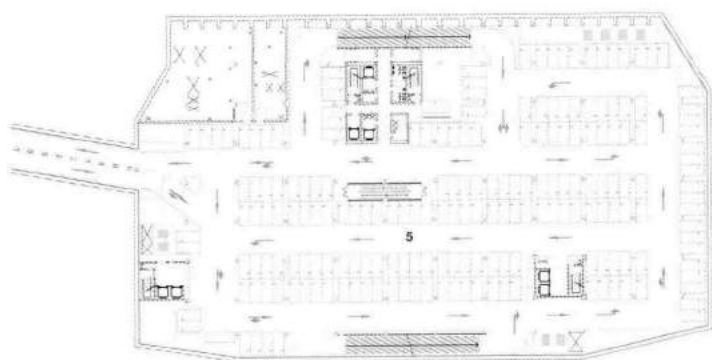
1. 기존입면과의 연계
2. 판매시설 수출입구
3. 커뮤니티공간-육상정원
4. 판매시설 부출입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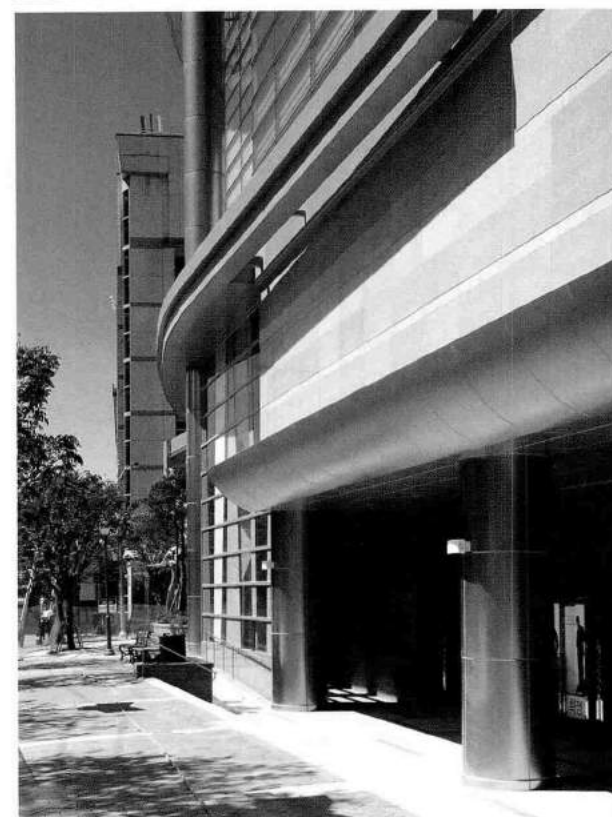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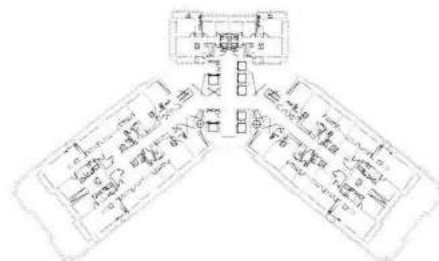
지하 4층 평면도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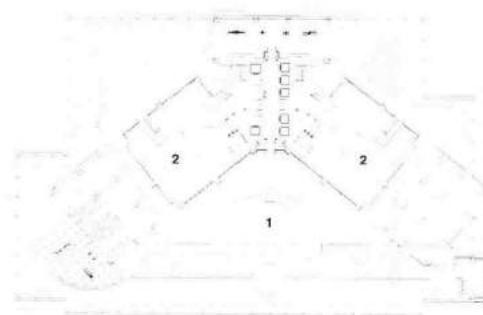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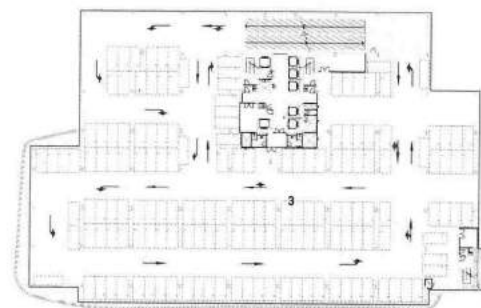
1. 커뮤니티 공간
2. 주민편의시설
3. 공동주택 주차장
4. 판매시설
5. 판매시설 주차장



19 ~ 3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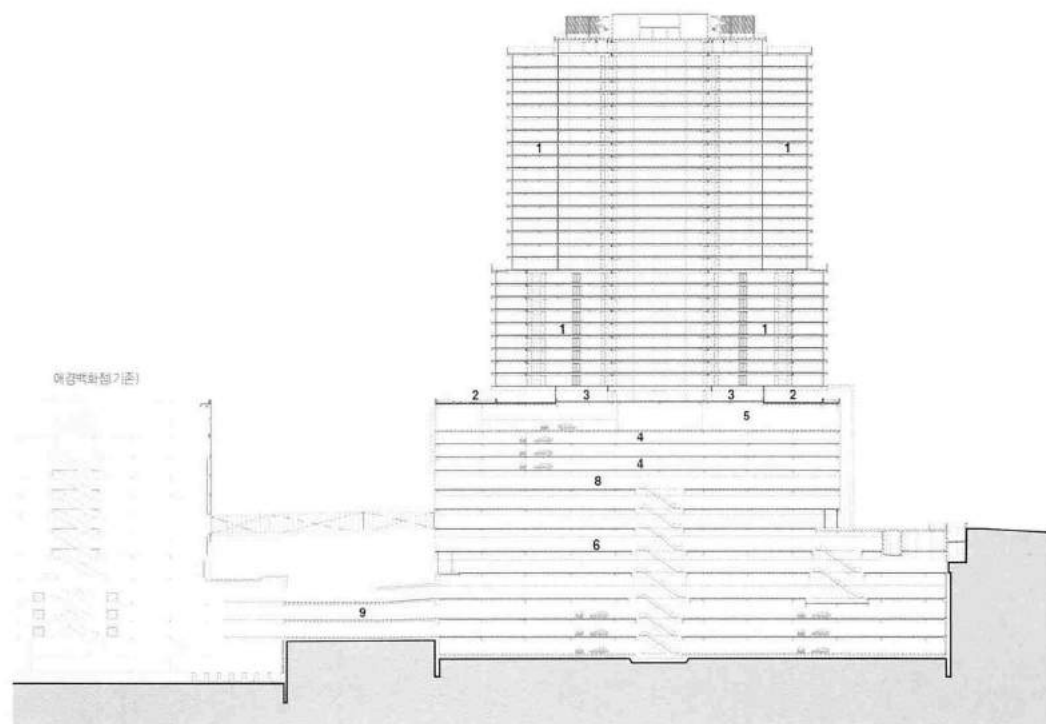
9층 평면도



6층 평면도



1. 공동주택
2. 커뮤니티 공간
3. 주민편의시설
4. 공동주택 주차장
5. 공동주택 기계·전기실
6. 판매시설
7. 판매시설 주차장
8. 지상연결통로
9. 지하연결통로



0 5 10 20m

종단면도

1. 부분입면
2. 커뮤니티공간-극장
3. 커뮤니티공간-놀이터
4. 세대전용 마당
5. 단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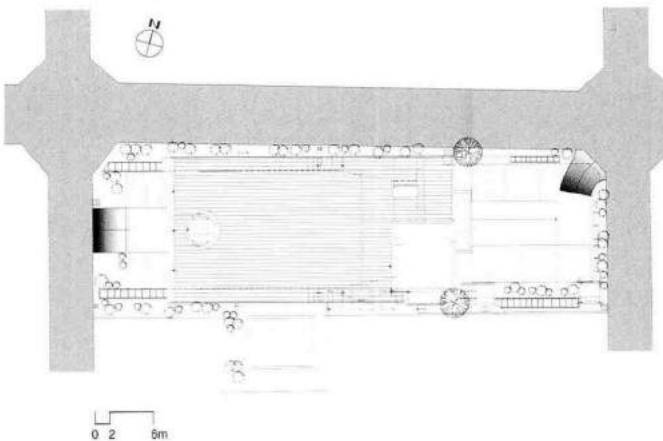


천주교 화곡2동 성당 리모델링

Catholic Hwagok2-dong Church Remodel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83-9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주요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1,751.70㎡
건축면적	671.14㎡
연면적	변경전 - 1,280.11㎡ 변경후 - 2,084.11㎡
건폐율	38.31%
용적률	80.1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목재패널, 베이스패널, THK18 복층유리+엠티유리
설계담당	박동윤, 조경철, 이현아
구조설계	(주)J&G구조엔지니어링
설비설계	신정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대화기술단
시공사	(주)보미종합건설
감독	성진호 성당시설분과장
설계기간	2005. 07 ~ 2005. 10
공사기간	2006. 02 ~ 2006. 12



Location	883-9, Hwagok-2dong, Gangseo-gu, Seoul, Korea
Site area	1,751.70㎡
Bldg area	671.14㎡
Gross floor area	2,084.11㎡
Bldg coverage ratio	38.31%
Gross floor ratio	80.10%
Structure	S,C + R,C
Bldg. Scale	B1, F3



1. 천주교성당 조감도

2. 천주교성당 전경



관계 맺기

종교건축을 설계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그중 하나는 '운영주체가 제시하는 교리(敎理)에 따른 요구사항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충족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속의 종교건축을 지역사회의 도시적 맥락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융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Project는 성당부분 기존 건물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 속에서 주 이용자인 신자들의 편의에 따라 주(主), 부(副) 공간을 찾아가며 환경과 기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협을 위한 원칙과 질서를 찾아 성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고, 성서를 바탕으로 Design Concept을 잡아 계획을 발전시켰으며 현대적이며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의 성당은 대지 축과 도로 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어 주변의 건물들과 연속성은 가지고 있었으나 조형성은 너무 열악하였다. 그리하여 전례의 본질에 충실한 복음적 공간 구성을 위해 '성막'의 개념을 도입한 바깥마당과 기존골조를 덮는 지붕을 적용하여 성당이 갖는 소박하고 겸손한 면을 Mass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수직적인 요소로 형상화하여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특히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인 만큼 주안점을 부족한 공간의 확보, 시설의 효율성 증대, 실 배치의 변경, 편의시설의 추가 등에 두었다.

희망, 타협 그리고 작업

진입 축과 대지 축의 결절점에 장미광장(만남의 광장)을 설치하고 그 축의 선상에 성모상을 배치하였으며 축의 연계를 통한 신앙공간의 절점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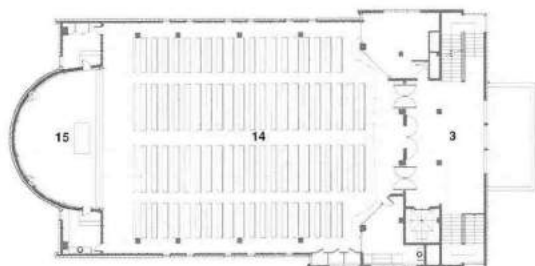
교육관과 성당의 동선을 직접 연결하여 기능성, 효율성을 높였으며 차량 출입구를 변경하여 통행 편리성을 확보하였고, 지하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실의 연계성과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평면에서 로비 및 대성전 홀의 확장으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통행하는 여유공간을 형성하였으며, 대성전의 협소한 제대와 성가대석을 확장하였고 유아실, 방송실, 성가대 탈의실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비기능적인 강당공간을 교리실과 만남의 방으로 변경하여 동측 주출입구와 축을 형성하였으며, 지하건물 동측의 확장과 더불어 전면 홀, 선관을 설치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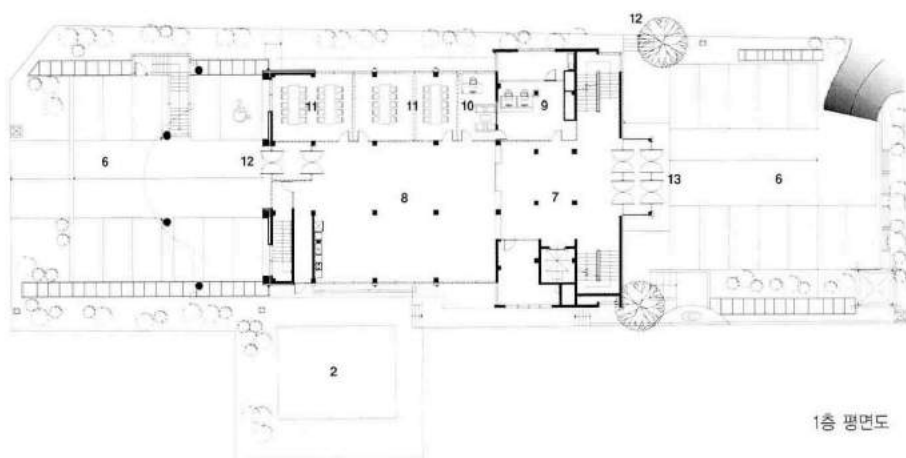
또, 제단부의 돌출로 상징적인 공간을 부각시켰으며, 제대 및 신자석의 고층창으로 자연광을 유입, 실내 분위기를 극대화하였고, 천정고를 높여 잔향시간을 최대화하였다.

끝으로 지명현상설계로 시작하여 그 동안의 작업을 통해 리모델링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성당 주임신부님과 시설 분과장의 철저한 감독이 설계자로서 마음 든든하였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펴 인상 깊었던 Project 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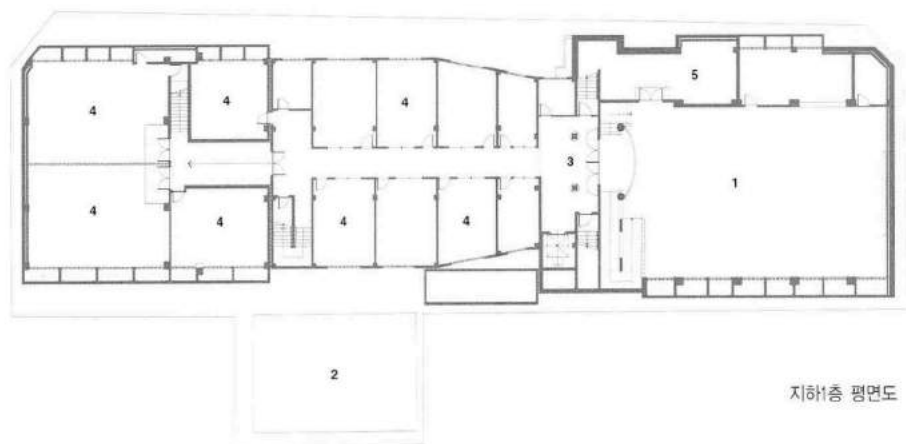
- 01. 강당
- 02. 기존 교육관
- 03. 홀
- 04. 교리실
- 05. 기계실
- 06. 주차장
- 07. 로비
- 08. 만남의 방
- 09. 사무실
- 10. 사제 집무실
- 11. 화합실
- 12. 부출입구
- 13. 주출입구
- 14. 대성전
- 15. 제대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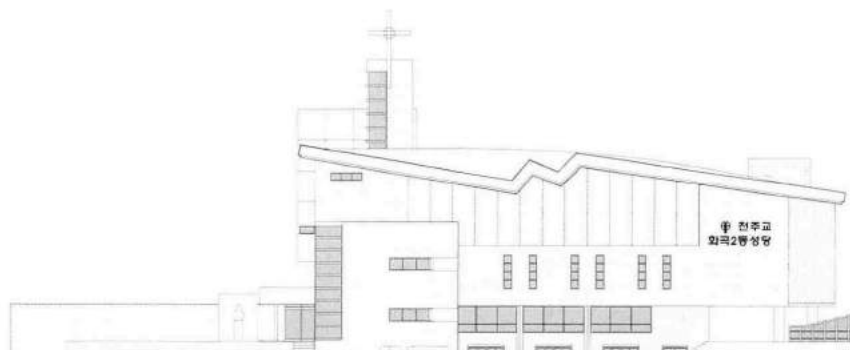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0 1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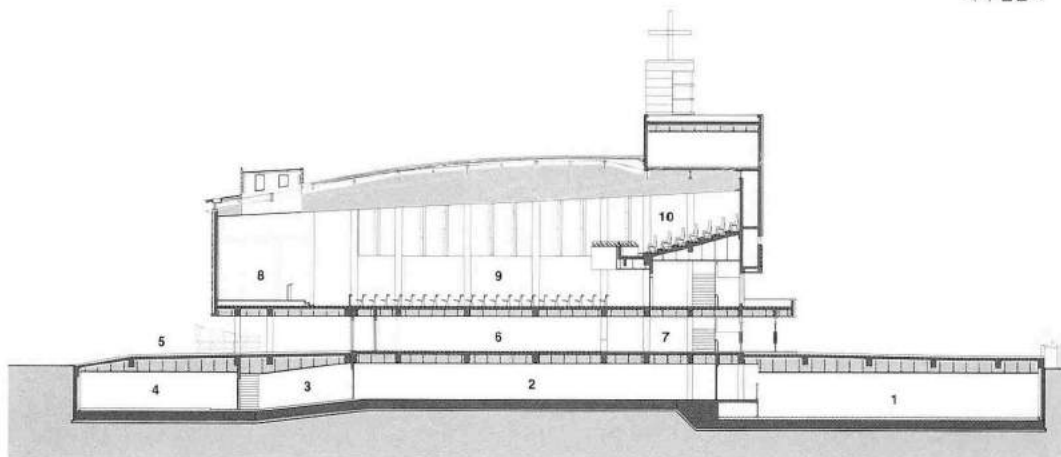
- 1. 천주교성당 전경
- 2. 천주교성당 후면
- 3. 천주교성당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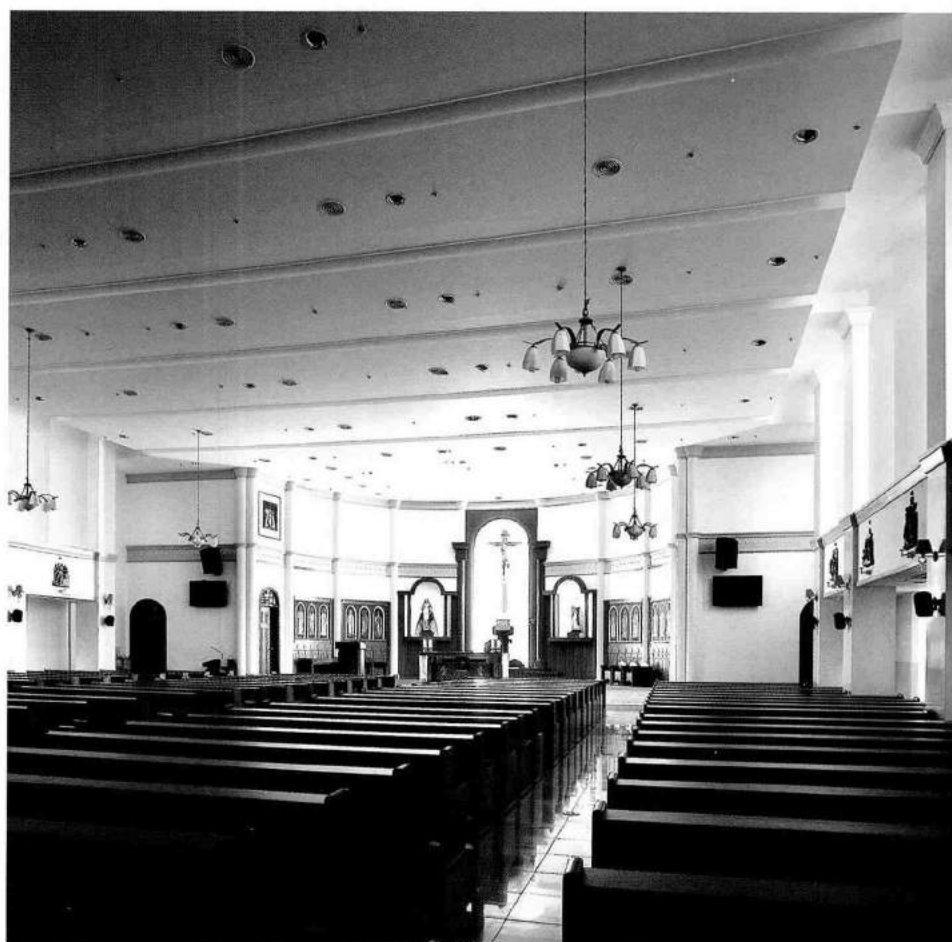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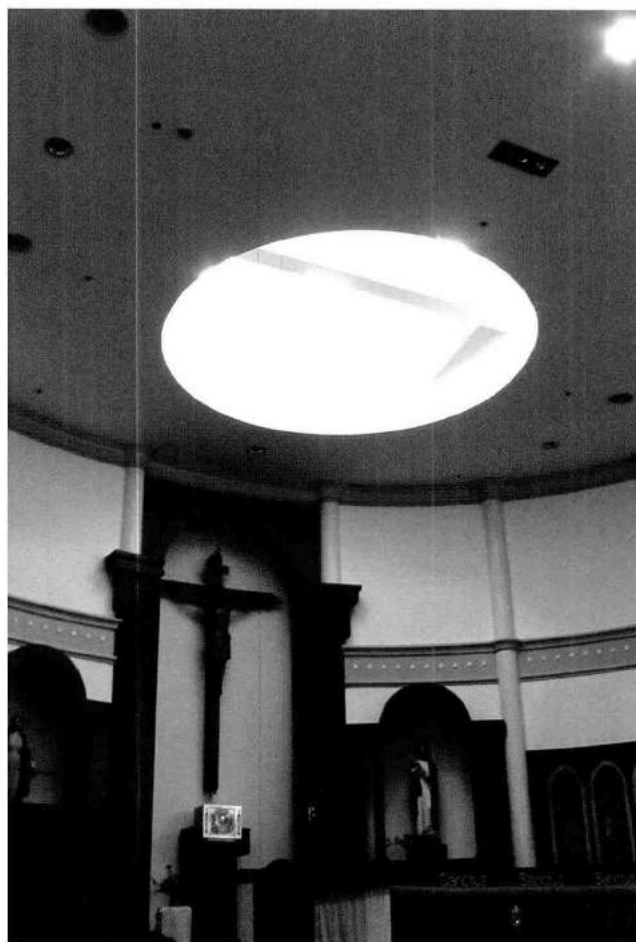
01. 강당
02. 복도
03. 홀
04. 교리실
05. 주차장
06. 만남의 발
07. 로비
08. 제대
09. 대성당
10. 성가대석



북측 입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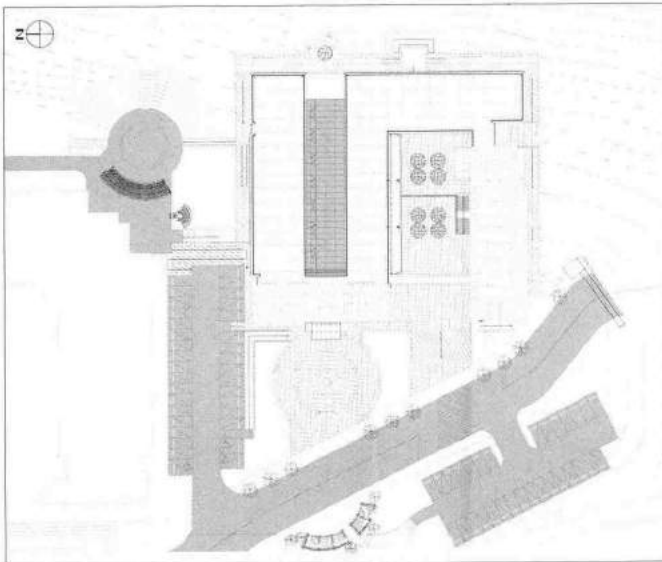


안산1대학 강의동(성실관)

Ansan College Seongsil Bldg

● 배치도

● 건축개요



01 5 10 20m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752-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학교시설 보호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44,637.60㎡
건축면적	2,853.27㎡
연면적	8,726.14㎡
조경면적	69,851.14㎡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세라믹패널, 적삼목, 컬러복층유리, 드라이비트탑코트
내부마감	화강석, 대리석패널,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배연주, 김영춘, 이상엽, 신동재, 신도현, 김도희, 이동하, 양지은
감리담당	정진국
건축설계	(주)아도스 건축사사무소
구조설계	밀레니엄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주)삼인이에스
전기설계	(주)대성티이씨
통신설계	(주)동화이엔씨
토목설계	선주토건(주)
소방설계	창우 에프이엔씨
시공사	대양건설(주)
설계기간	2005. 10. 02 ~ 2006. 02. 25
공사기간	2006. 02. 25 ~ 2007. 01. 19



Location	752, Il-dong, Sangrok-gu, Ansa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44,637.60㎡
Bldg area	2,853.27㎡
Gross floor area	8,726.14㎡
Structure	S, C + R, C
Bldg. Scale	B1, F4



1. 안산대학성실관 조감도 2. 안산대학성실관 전경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안산 1대학은 주거지역과 맞닿은 정문 외에는 캠퍼스 주변이 나지막한 야산에 접해있는 양호한 주변 환경을 갖고 있다.

특히 성실관의 부지는 캠퍼스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위치한 70m×70m의 정방형 부지에 계획되었다. 서측으로 17m 이상의 고저차를 갖는 대지조건과 설계 치밀상 까다로운 면적 조건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이 프로젝트의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설정하였다.

첫째, 앞으로 대학이 가져야 할 모습을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과가 쓰게 될 이 건물은 추후 학교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학생들은 이곳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교수들은 양호한 연구 환경에서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기능의 배치와 조합이 필요하며 각 실의 기능에 맞는 모듈과 향을 반영하였다. 주변환경에 대응한 솔직한 입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둘째,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지형에 순응하여 계단형 단면을 형성하고 각 레벨에서의 동선연결과 적절한 외부공간의 조합을 통해 주변 자연 요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하였다. 또한 각 향에 대응한 입면의 변화를 통해 일사의 조절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였다. 아트리움의 도입으로 강의실 및 실습실 부분에 자연채광을 공급하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서 거주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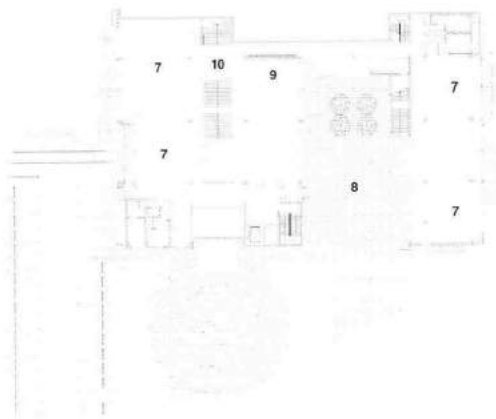
셋째,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과의 특성상 강의 및 실습 공간과 연구공간을 분리 배치하였으나, 각 레벨에 마당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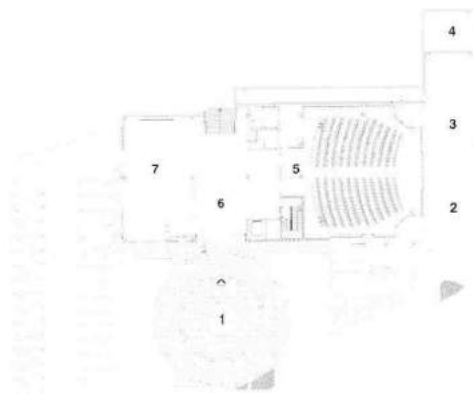
진입광장, 교류의 광장, 사색의 광장, 명상의 정원으로 이름 붙여진 각기 다른 레벨의 외부공간을 통해 소통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6개월 간의 설계기간, 1년여 간의 공사기간 동안 처음 설계경기 당시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왔다. 건물이 완공된 후 한 학기를 보낸 시점에서 사용자들의 평가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이에따른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건축물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을 알지만 설계자로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외면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성실관이 앞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갈지 모르나, 계획초에 목적했던 본질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 01_주출입구
- 02_전기실
- 03_기계실
- 04_PIT
- 05_통합강의실
- 06_로비
- 07_강의실
- 08_계통의 공간
- 09_임상물리치료실습실
- 10_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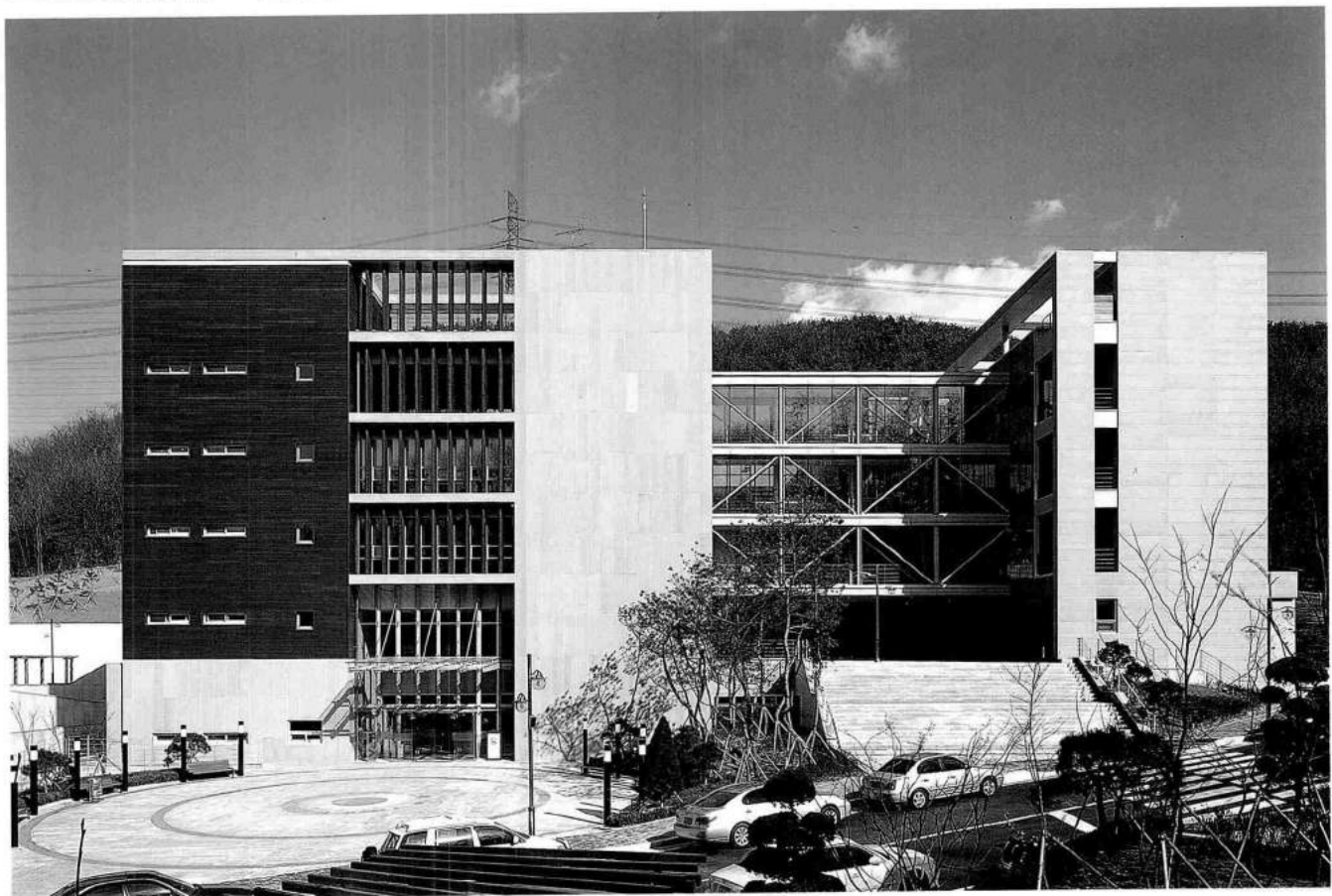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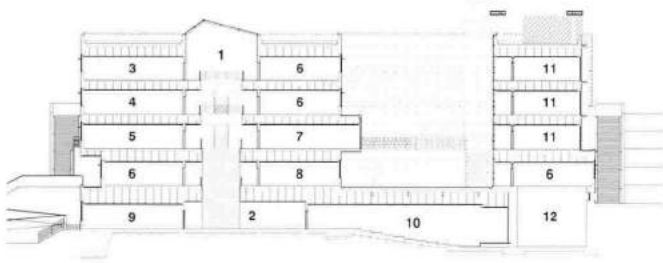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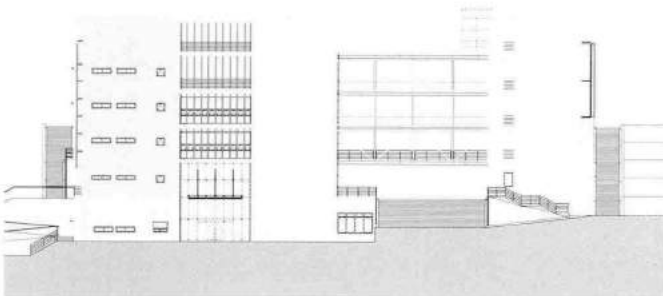
- 1. 인산대리성실관 천장
- 2. 주출입구
- 3. 분빛지 천경
- 4. 아트리움 내부



- | | | |
|--------------|---------------|---------------|
| 01. 아트리움 | 05. 노인물리치료실습실 | 09. 강의실(120인) |
| 02. 로비 | 06. 강의실 | 10. 종합강의실 |
| 03. 기본간호실습실 | 07. 운동치료실습실 | 11. 교수연구실 |
| 04. 간호학종합실습실 | 08. 임상물리치료실습실 | 12. 발전기실 |



단면도2



정면도

0 1 5 10 20m



아임삭 오창 공장

Aimsak Ochang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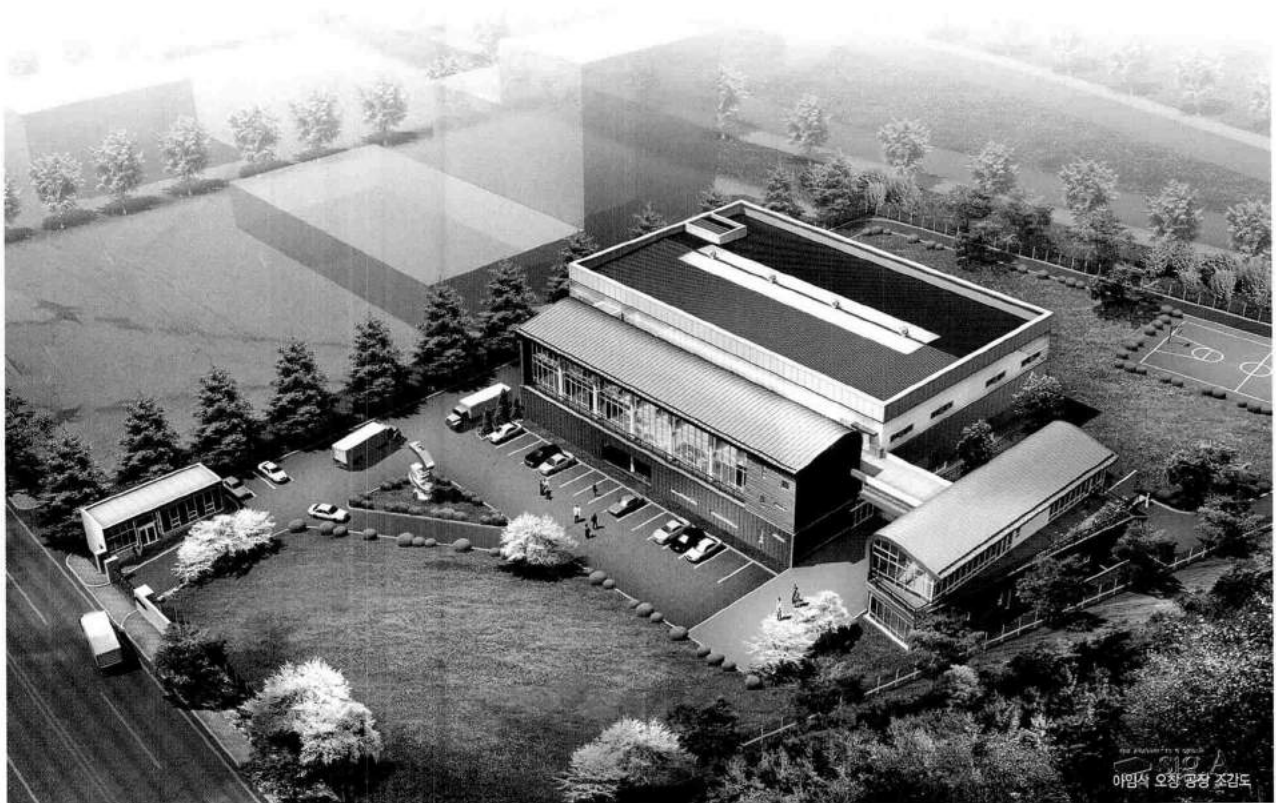
Amisak is a rechargeable tool company and is aiming to be a leading company in Korea by 2010. Ochang factory will be a base for this aim. Client's bad experience in construction of their first Suwon factory and my regrettable memory of 1996 design & construction of BTC factory in Whasung lead us to desire for an outstandingly good factory. Total floor area is about 5,000 square meter (1,500 py) and it has been designed with 3 different facilities, Factory (steel structure, 2 levels), Office (RC structure, 3 levels), and Welfare (RC structure, 3 levels including basement). Factory area is expected to expand its facility at the rear end within 3 to 5 years. Aimsak Ochang factory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December 2007.

'아임삭 오창 공장'은 지난 2006년 3월에 강남 교보빌딩 후면의 '석원 빌딩' 건축주가 소개하여 시작되었다. 이미 6년 전에 수원에 공장을 지어 본 경험이 있었던 건축주는 당시의 건축설계와 건설과정에서의 쓰라린 경험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왔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설계과정을 통해 성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 후에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주)아임삭'은 공구를 만드는 회사로 수원에서의 1기를 마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다. 2007년 3월에 착공하고 10월이나 12월쯤 입주하기를 원했다. 비교적 공장의 설계를 위한 시간은 충분한 셈이었다.

프로그램은 충전용 공구를 만드는 공장이어서 부품은 주로 OEM으로 들여와 조립만을 하는 기능으로 제작공정이 없어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주프로그램은 공장동에 조립라인과 참고시설이 각 500평씩, 사무동과 연구동이 약 300평, 약 70여명이 되는 직원들을 위한 150평 가량의 후생복지시설이 요구되었다. 공장



아임삭 오창 공장 조감도

동은 추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증축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별히 공장 동과 사무실, 그리고 연구실의 동선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건축주는 바랬다.

(주)아임삭은 현재 연간 매출이 관련분야업계 3위에 해당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1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내달리고 있는 유망업체로, 그 이미지에 걸맞는 공장의 설계가 요구되었다.

새로운 도전

나에게 공장의 설계는 '아임삭 오창 공장' 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98년 화성에 설계하여 건설된 연면적 2,500평 가량의 '(주)BTC 공장' 으로 컴퓨터 모니터 조립 공장이었는데, 일반적인 공장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loading docks, 조립 라인의 기능, 창고시설, 그리고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들.....

사무실과 직원들의 후생시설,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대한 일련의 작은 건축적인 노력들이 건축주의 경제, 기능주의적 사고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고 그게 오랫동안 나에게 짐으로 남아 있었다. 건축주의 첫 번째 쓰라린 경험과 나의 첫 경험의 아쉬움이 이번에는 잘 맞아 떨어졌다. 우리는 좀 다른 독특한 공장의 창작에 동의를 하였고, 그 독특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욕망에 신바람이 났다.

공장에는 창고와 조립라인 등 아주 구체적인 기능들을 수용해야 했지만 좀 더 밝고 건강한 분위기의 작업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고, 공장과 사무동, 그리고 후생동은 각각의 기능을 충실히 갖추면서도 기능적으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공간을 두고 마당을 만들었으면 했다. 그리고 이런 마당들이 적절하게 자연과 함께 계획이 되어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마당으로 기능을 하도록 설계를 했다.



공장 부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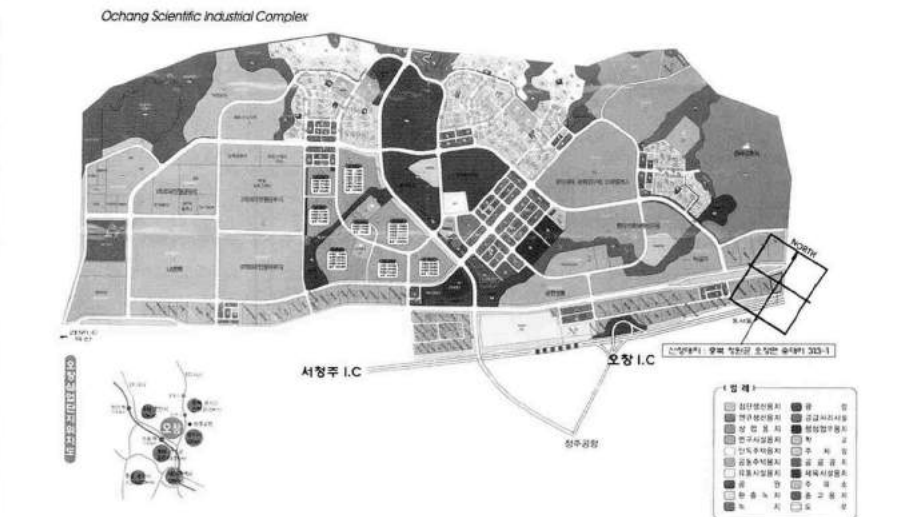
공장 인접현황 (북측)



공장 부지후면 단지주도로



공장 부지 전경2



부지 인접건물



아임삭 오창 공장 공사전경



아임삭 오창 공장 부지전경

위치

'아임삭 오창 공장'의 새로운 부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였고 중부고속도로의 오창 IC에서 5분 거리 내에 위치해있으며, 과학산업단지의 제일 북단에 중부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있다. 즉, 대지의 동측으로 진입도로인 20미터의 막다른 도로 너머가 중부고속도로이며 남측에는 사료공장이 높이 30미터가 넘는 거대한 매스를 갖고 있으며, 북측에는 전나무 동산에 식당과 민가 한 채가 있다. 서측으로는 50미터 폭의 산업단지 주도로가 있으며 그 건너 '해리슨'이라는 미국계의 컴퓨터 관련공장이 6층 높이로 위치해 있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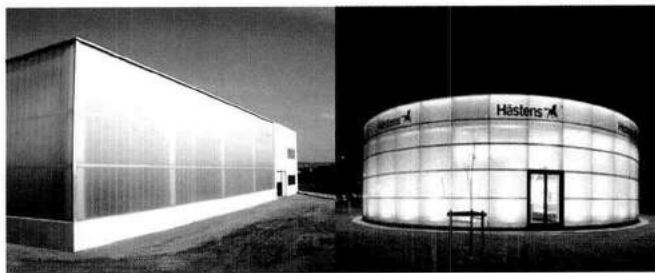
처음부터 배치계획은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동향으로 계획했다. 남향이 주향으로 요구되었지만, 인접한 남측의 사료공장의 사료 분

진과 거대한 매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다. 또한 공장동의 추후 증축을 고려하여 후면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료공장의 전면라인을 아임삭 공장의 전면과 함께 하도록 하여 정면성을 갖는 동시에 인지도 극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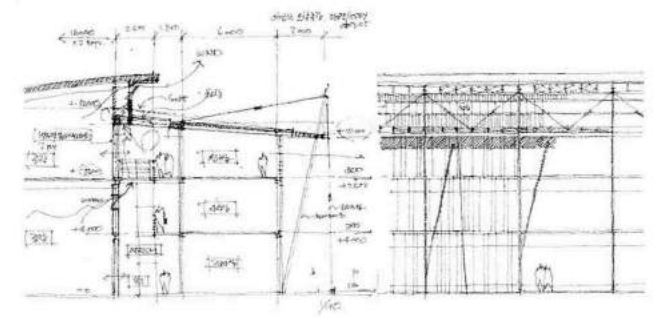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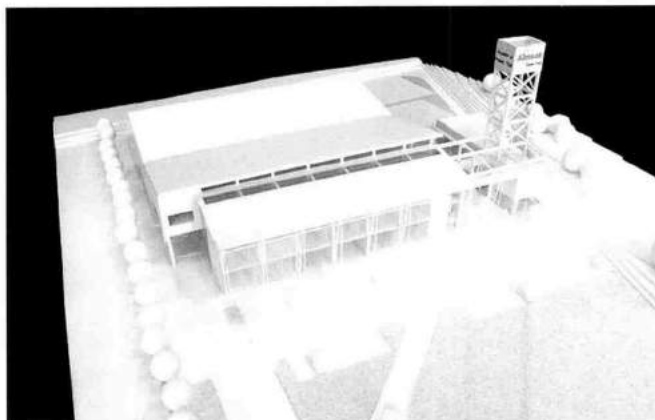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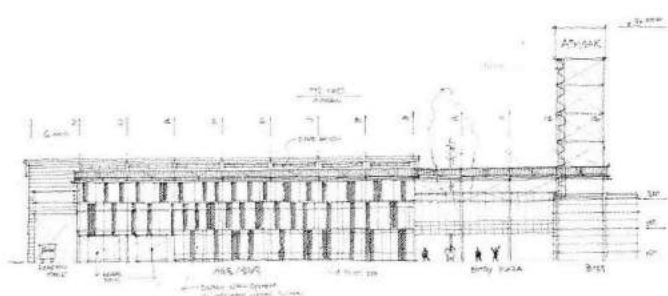
정문은 사료공장 측으로 배치하여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공장측의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Loading Dock동선과 사무동 동선을 분리하되 공장의 특성을 살려 공장동의 차량동선을 짧게 계획했다.

옥외공간은 크게 전면의 상징공간과 진입공간, 후면의 증축을 위한 공간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들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에 '아임삭 밸리'를 추가하여 안마당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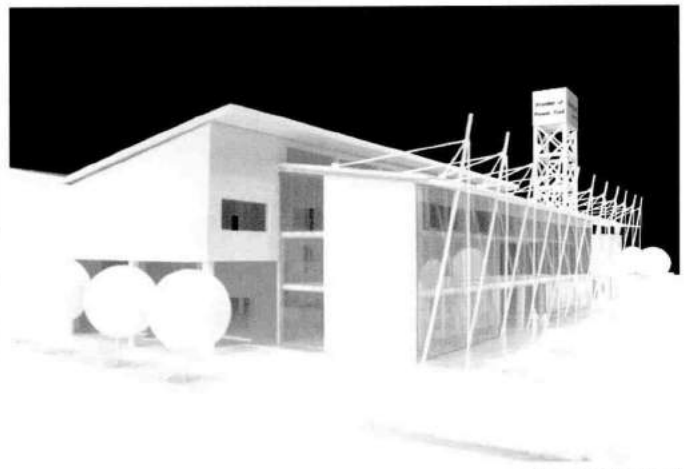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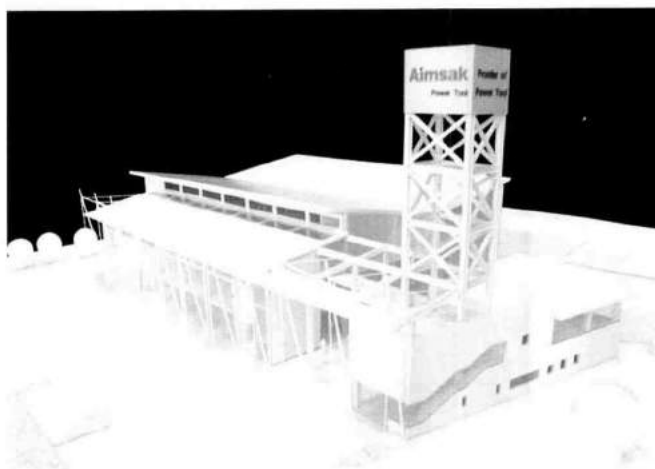
차량은 전술했듯이 공장동과 사무동을 위한 주차공간을 분리하되 공장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했고, 순환도로를 두어 모든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적용 사례



아임삭 오창 공장 초기 스케치



아임삭 오창 공장 초기 모형

평면계획

전술한 바대로 우선 기능별로 공장동, 사무동, 후생동, 그리고 경비동 4동으로 나누고, 앞의 3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연구했다. 독립적으로 보이게 하되 유기적인 기능의 연계가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따라서, 공장동과 사무동을 묶고 후생동을 분리하여 그 사이로 주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에는 외부 조경공간인 4미터 폭의 좁고 긴 '아임삭 밸리'를 두어 공장동과 사무동을 분리함과 동시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획했다. '아임삭 밸리'는 주 로비에서 바로 들여다보이고 공장과 사무동을 평면적으로나 단면적으로 연결하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 된다.

공장동에는 1층에 loading dock과 작업공간, 그리고 창고시설이 주공간으로 계획되었고, 2층은 공장시설로서 2개 또는 4개의 작은 공간으로 가변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사무동은 1층에 로비와 전시 상담, 대회의실이 위치하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연구실로 계획되고, 건축주의 요구대로 3층의 연구실에서 공장동의 작업공간 레벨

로 바로 수평적 연결이 되도록 계획했다. 후생동은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1층에 식당과 휴게공간, 그리고, 2층에 체력단련시설을 두었다. 사무동과 후생동은 주진입공간 상부에서 연결브릿지로 연계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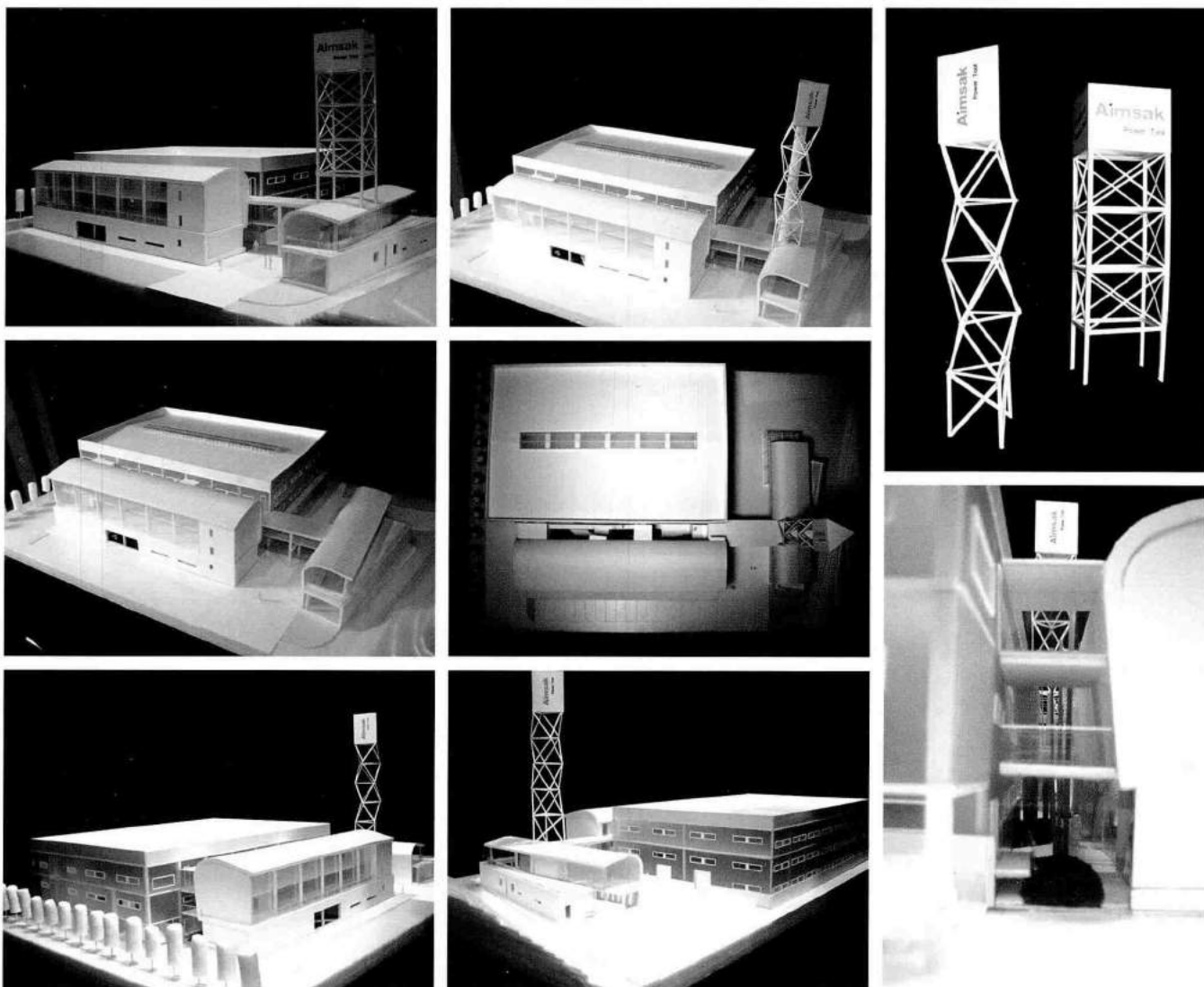
입면 및 단면 계획

처음에는 사업차 독일에 많이 다녀와서 독일의 좋은 공장들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건축주의 공장의 이미지들을 잘 반영하고자 지극히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로 입면 계획을 시도했다. 세잔한 철골 파이프 기둥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텐션 바들, 수평적인 입면의 디테일들……. 건축주는 오케이 했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로 했으나 나에게서는 처음에 약속했던 도전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풀리지 못한 상태였다.

어느 날 건축주에게 전화를 걸어 2주의 말미를 더 달라고 하고 다시 계획을 잡고 브리핑을 했다.

색다른 공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우선 단면적인 아이디어가 먼저 떠올랐다. 사무동 1층의 회의 전시



아임삭 오창 공장 최종 모형

및 접견상담은 '아임식 벨리'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사무실 연구실 층은 동측인 고속도로를 향해 열려있으면 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면형상이 만들어졌다. 이 단면에 어울릴 수 있는 재료로 징크와 적삼목 사이딩을 선택했다. 추후 곡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JR강판이라는 새로운 자재를 적용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 이는 후생 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통일감을 주도록 계획했다.

공장동을 위해서는 T40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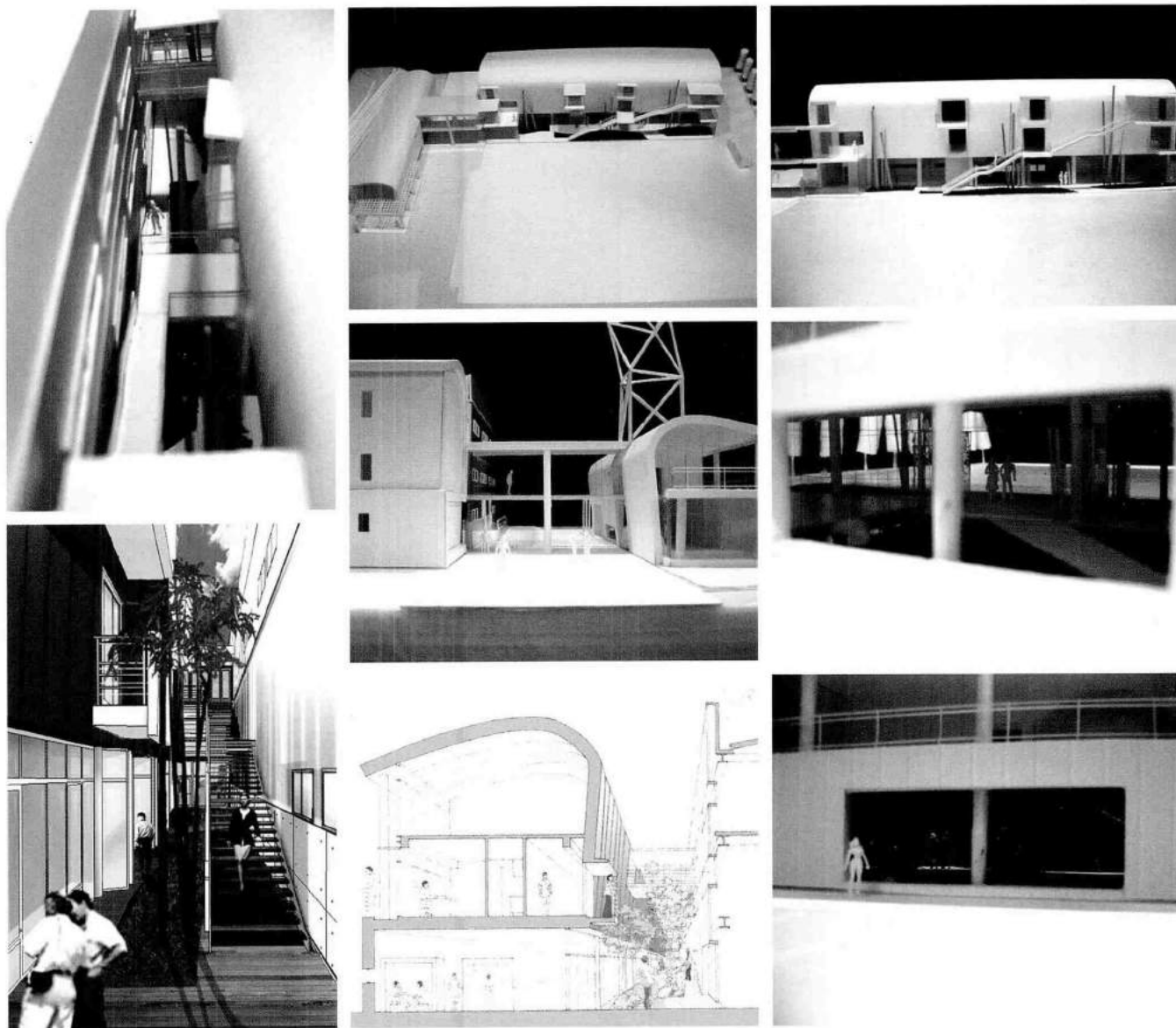
이는 많은 환기창과 더불어 훌륭한 채광을 작업공간에 허용해줄 것이며, 화려한 야경을 연출해 줄 것이다. 반면, 단열에 있어서도 커튼월보다 훨씬 우수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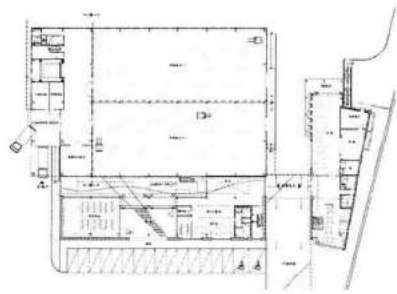
거의 1년의 시간동안 쉬지 않고 계획을 하고 도면 작성을 해왔다. 건

축주의 꼼꼼한 요구와 나의 욕심으로 2번 이상의 설계변경 과정과 각 분야의 건축주측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겨우 지난 5월에 시공자를 선정, 공사에 들어갔다. 계속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손을 들어준 건축주에게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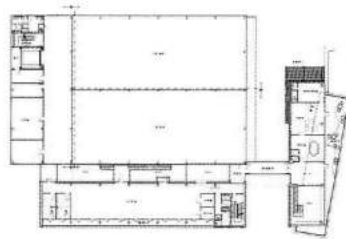
항상 설계를 하고 건설에 들어 갈 때마다 같은 걱정을 한다. 골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조이고 있다가 한시를 놓고, 그 후 또 마감 이 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한다. 항상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으면 하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건축사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왔다.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면서도 한편 끊임없이 확인을 했으면 하는 건축주들의 마음을 읽으며 이 공장 또한 나에게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길 기원하고 아울러 나에게 좋은 건축의 전환점이 되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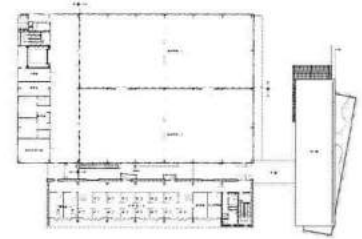
아임식 오창 공장 최종 모형 및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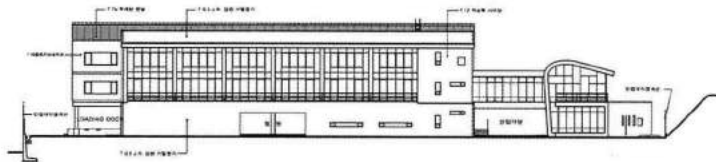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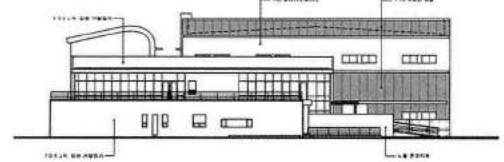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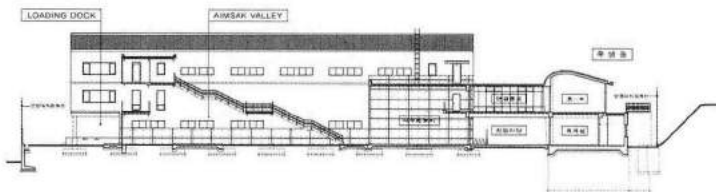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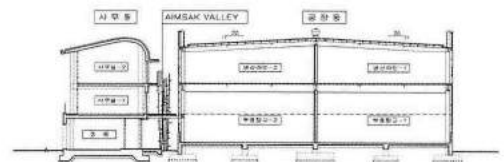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설계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313.1

대지면적 10,802.7㎡

건축면적 2,434.08㎡

총연면적 5,274.52㎡

동별연면적 공장동 3,364.32㎡, 사무동 1,211.20㎡

후생동 640.92㎡, 경비동 58.08㎡

건폐율 22.53%

용적률 48.82%

규모 공장 2층, 사무동 3층, 후생동 지하 1층 · 지상 2층

구조 공장동 철골조, 사무동 및 후생동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공장 : T40 폴리카보네이트, w/ T75 우레탄페넬

사무동 및 후생동 : JR강판 및 적삼목 사이딩, 알루미늄창호 w/ T18 복층 유리

설계담당 김유흥, 이해원, 박주원

전기 (주)다우티이씨(원상옥)

구조 오성구조(구조기술사김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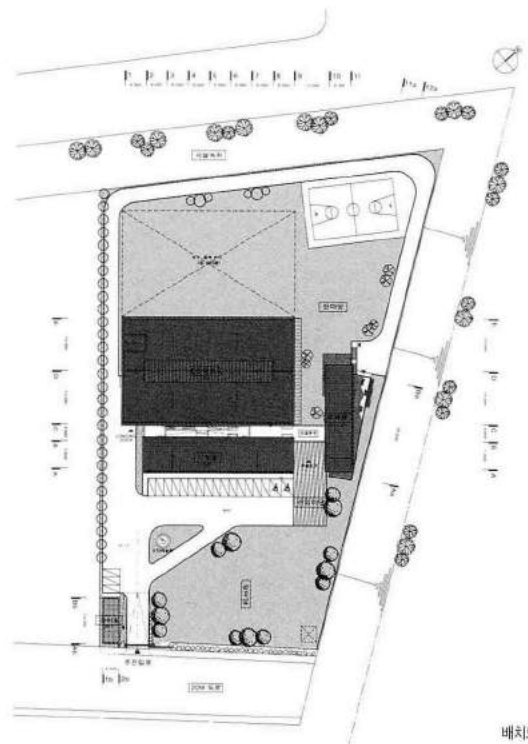
기계 (주)건화엠이시(유진웅)

시공사 (주)팀이십일(이승용, 고웅석)

건축주 (주)아임스(김대원)

설계기간 2006년 3월 ~ 2007년 3월

공사예정 2007년 6월 ~ 2007년 12월



배치도

명학성당 리노베이션

MyeongHak Catholic Church Renovation

‘때르르릉~’

한 통의 전화를 받자, 낮 익지 않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드디어 통화가 되었다는 반가움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소식이 서로 없었던 신부님이었다.

만나자는 제의에 그 동안의 소식보다도 우선, 그 분은 4개월 동안이나 나를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와 지금 현실적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으로 급히 찾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당신부로 새로 맡은 성당에 관한 고충이었다. 즉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셈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과거 안양시내의 이 성당은 2만 여명의 신도가 있어서 상당히 큰 성당이었으나, 주변 신도시의 건설로서 그 곳에 새로운 성당이 생김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많은 작은 실들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약 30년 전에, 말하자면 건축계획과 도면도 없이 시공자가 건축주의 의견만으로 건축되어서 구조적, 설비적, 기능적인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을 하려고 하니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예산과 공사기간 동안의 성당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나는 리노베이션으로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로 하였다.

하나씩 해결 하기 위한 수술의 방법으로,

첫째, 많은 불필요한 실(본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들이 외벽에 접하지 않고 내부에 묻혀있음)들을 현실에 맞게 새로운 통합적 기능으로 모으고, 이들 모두는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해 외부에 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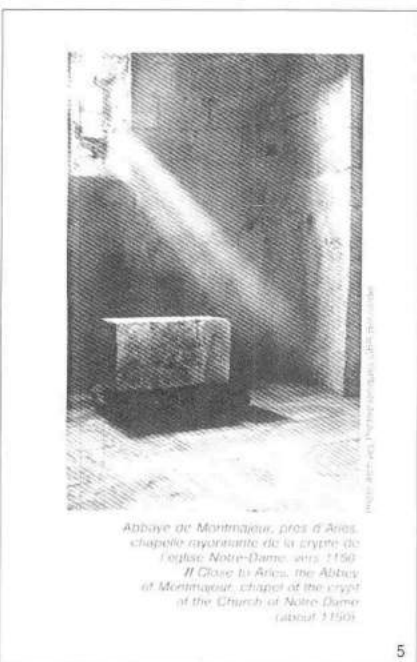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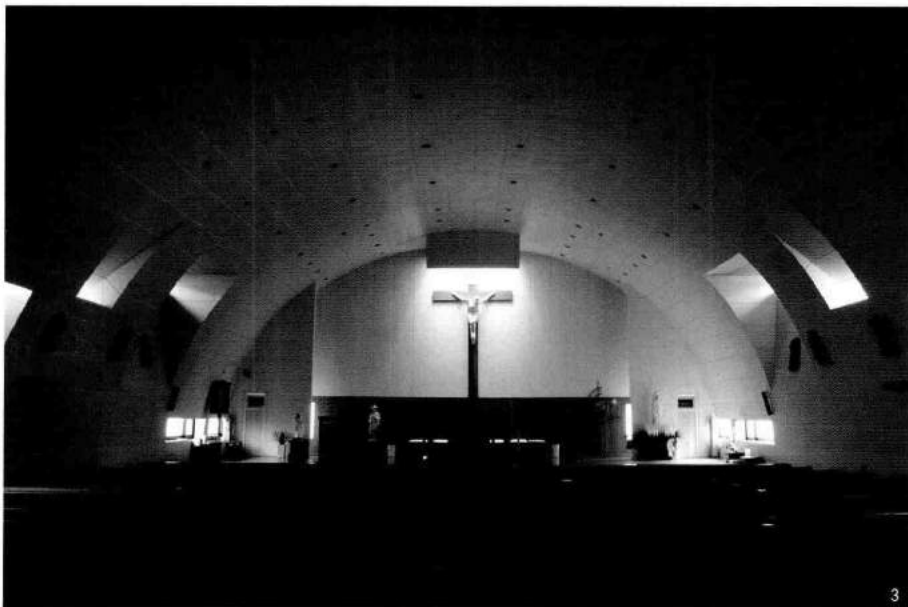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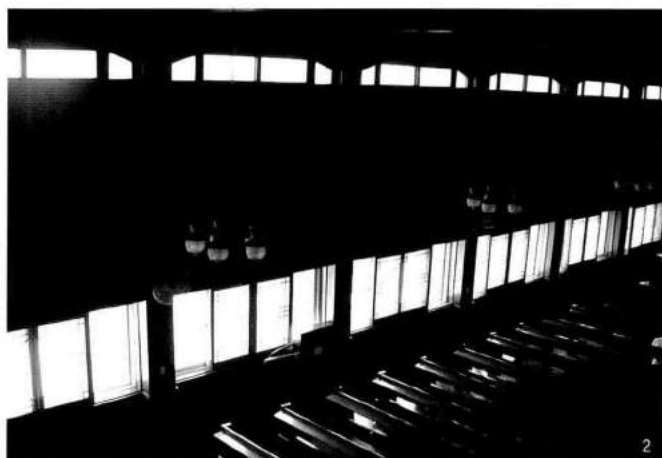
둘째, 지하층의 넓은 다목적실은 바닥의 방수처리 과정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다 보니 층고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다목적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 상부바닥(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층 바닥)을 없애어 2개 층의 높은 층고를 확보하고(이공사는 구조적 문제로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 그 바닥은 빨레뜨를 깔아 방수문제를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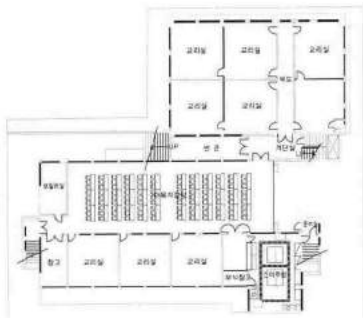
명학성당 변경 전 전경



명학성당 변경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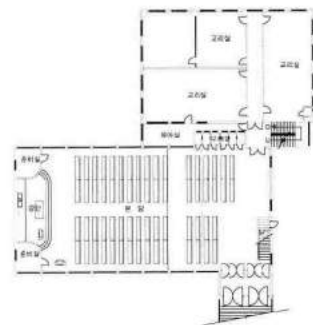
- 1_ 명학성당 변경 전 본당
- 2_ 명학성당 변경 전 본당 창
- 3_ 명학성당 변경 후 본당
- 4_ 명학성당 변경 후 본당 창
- 5_ 정적의 창
- 6_ 명학성당 변경 후 십자상



변경 전 지하 1층 평면도



변경 전 1층 평면도



변경 전 2층 평면도



변경 후 지하 1층 평면도



변경 후 1층 평면도



변경 후 2층 평면도

셋째, 사용자를 가장 고층스럽게하는 단열은, 처음 구상은 내 단열을 하여 기존 *façade*를 보존 하려 했으나 내부의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건축주의 의견(기존의 본당 폭을 유지해야 함)으로, 외 단열로 하고 경제적 재료로서 공사비를 최소화 하였다. 리노베이션 작업에서 나는 항상 기존의 지나온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둔다.

넷째, 기존 본당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부 장식을 최소화 시키고 자연의 빛 연출로만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공간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① 기존의 철골트러스에 경량철골을 아취구조로 매달아 전체적 볼트구조를 하여, 본당의 음향을 고려한 구조체는 자연스럽게 서로다른 두께의 외벽 만들고, ②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빛의 효과로서 공간의 성스러움을 최대화 하였다(천창, 벽 두께에 의한 각각 다른 깊이와 밝기를 주는 외벽 창). 깊은 빛은 항상 정적의 깊이를 가중시킨다.

다섯째, 직접 2층 본당으로 통하는 기존의 주 계단은 외부에 있어 상당한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일상공간)에서 전이적 과정 없이 너무 급격히 내부(종교공간)로 진입하는 공간충돌의 문제를, 1층에 로비를 두어 우선 외부와 내부의 완충적 전이적 공간인 평면적 넓이를 두고, 이는 새로 만든 내부의 주 계단을 통해 본당으로 진입하게 선(line)적 깊이를 두었다.

여기서 주 계단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개념으로 계단 하부와 상부가 동일한 형태로 하여 끝이 없이 보여지게 하였다.

여섯째, 1층 로비와 2층 본당의 주 진입홀 부분, 1층 교리 실 복도의 채광은 남쪽의 벽을 없애어 최대한 자연광을 끌어 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양의 빛은 본당으로는 유입되지 않게 하였다.

일곱째, 사용시간대가 서로 다른 각각의 실들은 개별적 냉난방을 하고, 본당 냉난방의 열원은 가스(gas)를 사용 함으로서 비용을 절감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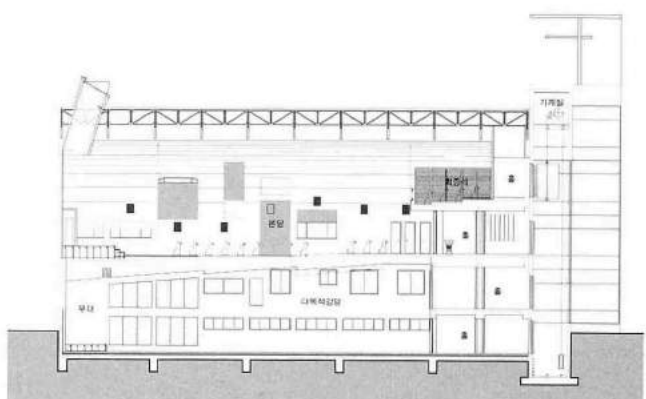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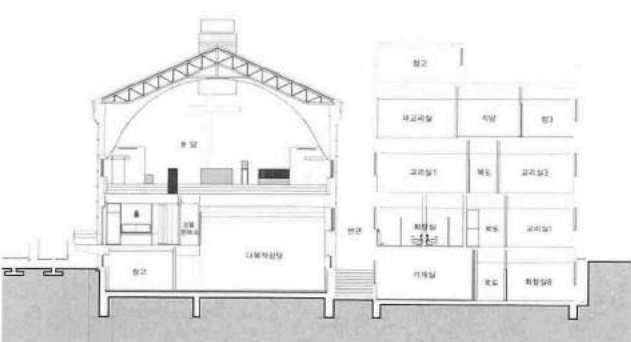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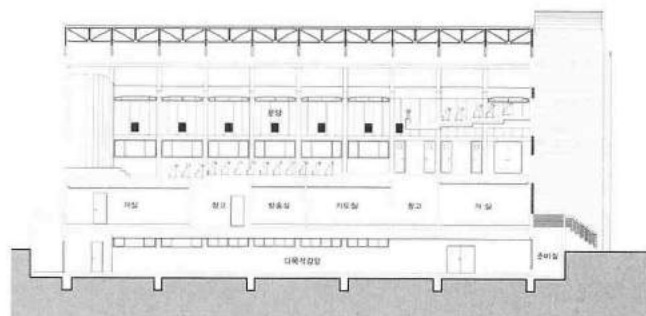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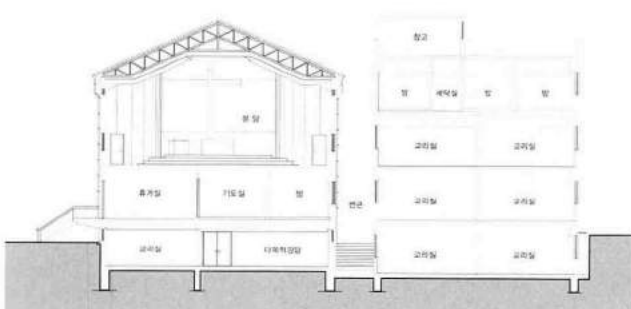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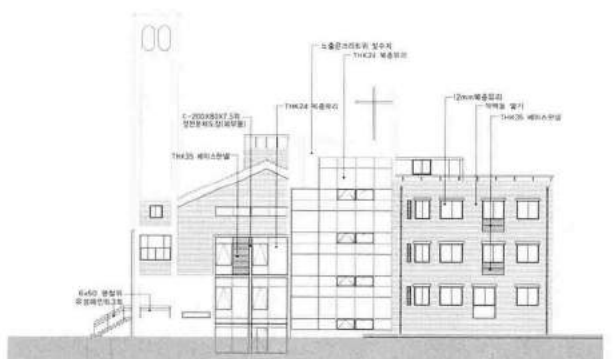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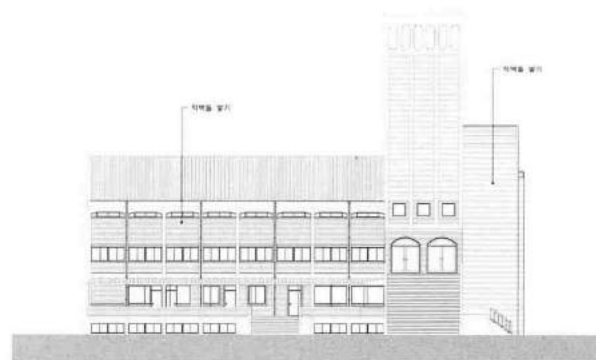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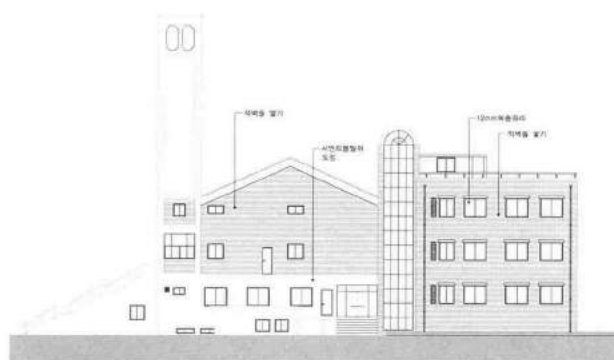
여덟째, 수평적으로 접해 있어 독립된 기능이 어려웠던 사제관, 수녀원, 본당, 교육관 등을 수직적으로 두어 기능의 독립성을 가지게 하고, 이들을 잇는 동선은 다시 본당으로 수렴되게 유도하여 서로 관계성을 지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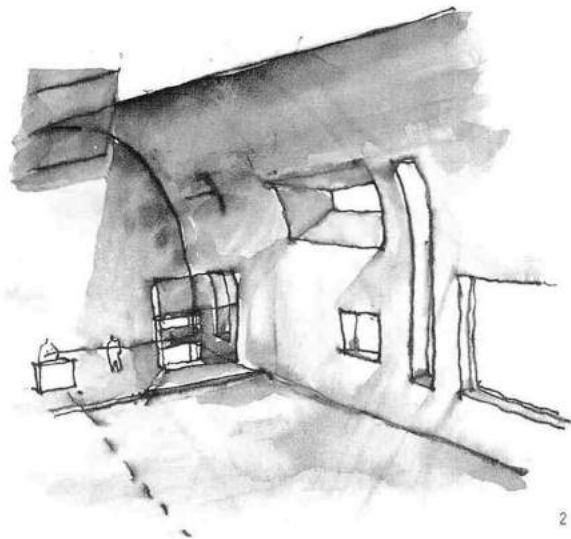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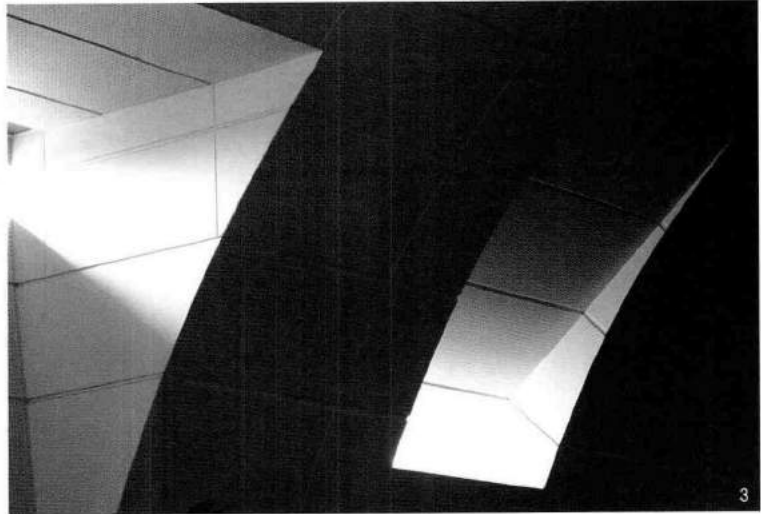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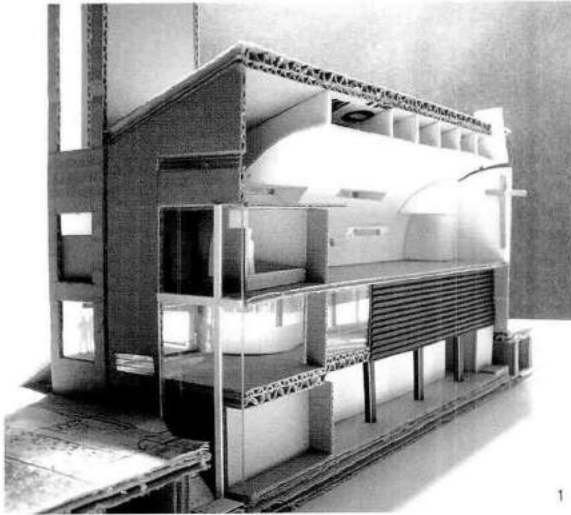
상기 나열한 여러 가지의 수술방법으로 많은 수정을 통하여 리노베이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열악한 공사비로 많은 재료를 직접 설계 제작에 관여하게 되었다. 대표적 예로는 본당내부의 흡음판 마감이 그것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공사 후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신축 공사비의 50%(약 15억 원)로서 성당이 갖추어야 할 건축적, 기능적 인을 면을 만족시킨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탈리아 그레고레안 성가대를 초청한, 본당에서의 공연은 건축주를 한층 더 만족감으로 끌고 가게 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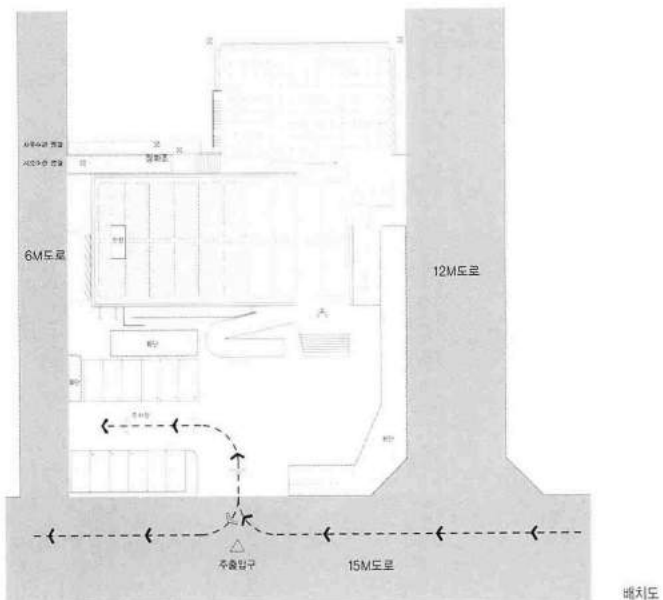




1_명학성당 모형 3_명학성당 빛세상 5_명학성당 빛세상2
2_명학성당 스케치 4_명학성당 본당 등쪽

설계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지면적 2,070m²
연면적 2,600m²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담당 배순남, 백지순, 안병현
설비 우진 설비
전기 한양 Eng
구조 광림구조
시공사 자산건설
건축주 수원교구청
공사완료 2003. 10



박 돈 서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Park, Don-soh

일본 나오시마 건축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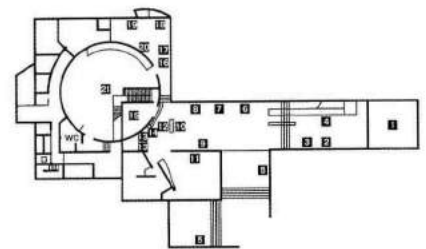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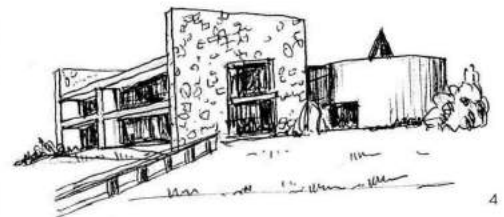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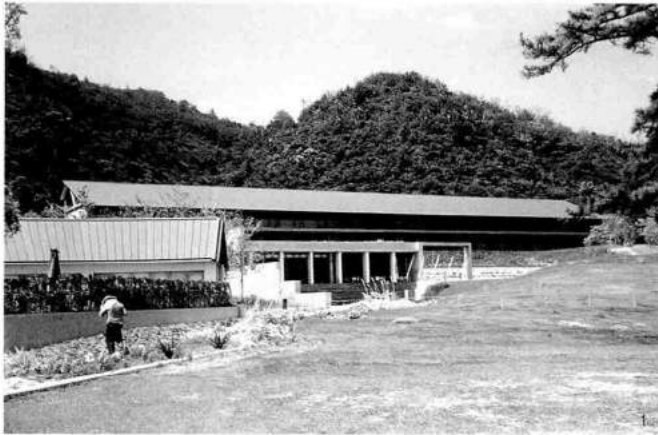
Architectural Tour Report - Naoshima Art Site

우리 일행 19명(건축·미술 분야 및 그 동호인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4일간 일본 나오시마(直島)와 그 주변의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건축작품을 위주로 돌아보았다. 나오시마는 일본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일본 중남부의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해상국립공원에 자리한 섬이다.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國) 사이의 내해인 세토나이카이는 풍광이 수려하고 기후는 온난하여 천혜의 관광·휴양지라 할만하다. 나오시마는 오카야마(岡山)현의 우노(宇野)항에서 배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8.13km²)에 인구는 약 3,600명이라 한다.

세계적 여행전문지 트래블러는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세계 7대명소'의 하나로 이 섬을 꼽았다. 베네세(Benesse)그룹이 20년 전부터 가꾸고 있는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크게 베네세하우스, 지중미술관 그리고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베네세하우스는 각각 4동의 건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이름은 파크·비치·뮤지엄·오발(Oval)이다. '파크'는 나무가 우거진 낮은 언덕을 배경으로 길게 뻗은 객실 41실의 숙박시설로 안도로서는 드물게 2층 목조로 설계했는데 목재는 자원재활용이 쉽게 집성재로 되어있다. 객실은 천장에 목조 가구(架構)가 일부 노출되어있고 방마다 우리 재일 미술가 이우환(李禹煥)의 판화가 걸려있는데 같은 시리즈이면서 그림은 모두 다르다.

'비치'는 스위트룸 8실뿐인 시설로 역시 목조 2층이고 바다에 가까이 면해있어 전망이 특히 좋은데 우리는 '파크'에 방을 잡아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뮤지엄'은 숙박이 10실뿐이고 주기능이 미술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RC조로 외벽 마감은 제물콘크리트(노출콘크리트라는 용어는 영어의 직역으로 너무 멋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쓰자고 주장)가 대부분이고 객실부분 외벽은 이 섬에서 나온 거친 돌을 막쌓기로 마감하고 있다. 형태는 원통·상자·원뿔의 조합으로 안도 작품의 특징인 기하학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 44점의 주옥같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문가 아니라도 알만한 세계적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1. 베네세하우스의 '파크'.
2. 베네세하우스의 '뮤지엄' 등의 일부.
3. 베네세하우스 별관인 오발(Oval). 타원형의 수정(水庭)에 비친 하늘과 건물이 아름답다.
4. 나오키마 아츠시마 베네세하우스의 '뮤지엄' 등. 상자·원통·원뿔의 조합이다.
5.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등의 지하1층 평면도. 가장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있다. 원형 방 중심에 원형형 천창이 나 있고 거기에 브루스 나우만의 유명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프랭크 스텔라, 조지 시겔, 세자르, 앤디 워홀 등의 조각·평면작품·입체작품들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의 '100 Live and Die' 라는, 빛을 이용한 작품은 100가지의 점멸(點滅)하는 문자가 인생을 생각하게 하면서 독특하고 신선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넓은 원형 평면 한가운데 놓여있고 원형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이 작품의 현란한 빛과 어우러져 미묘한 빛의 협주곡을 연출하고 있다.

지하 1층에서 테라스로 나가면 일본의 유명한 사진작가 스기모토 히로시(杉本博司)의 작품 여러 점이 수평 한 줄로 걸려있는데 얼핏 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미세한 떨림을 잡아낸 것이다. 그 사진 속의 수평선이 원경으로 보이는 실제 수평선과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걸어놓는 것이 이채롭다.

'오발'은 뮤지엄 동(棟) 2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 바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언덕 정상에 있다. 타원형의 수정(水庭)을 둘러싸는 6개의 객실과 1개의 바가 있고 그 방들은 모두 바다를 향한 큰 창을 가진 오션뷰로 1박에 70만원이 넘는 특실이다. 방마다 다른 세계적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 걸려있는데 한 방은 리처드 롱, 그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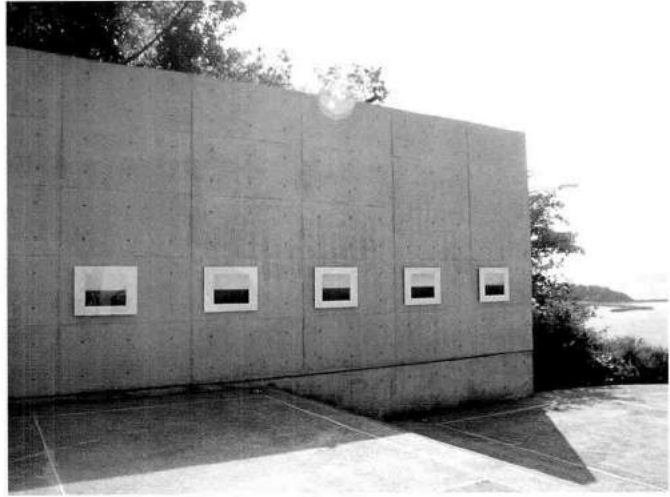
방은 미야자와 다쓰오의 작품, 이런 식이다. 옥상정원에서는 세토나 이카이 일대를 부감하는 조망이 일품인데 특히 석양이 환상적이라 한다. 뮤지엄과 마찬가지로 RC조, 제물론크리트 마감이며 타원형 연못에 비친 파란 하늘, 그 진입로에 설치된 벽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폭포의 물소리 등이 안도가 즐겨 쓰는 자연·물·빛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잠깐 안도 타다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지나가자.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프로 권투선수였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대 초에 건축에 뜻을 두고 7년간이나 세계 각지의 명건축과 토속건축을 답사하며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해 대성한 것이다. 그는 일본의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과 현대건축의 세계적 보편성을 잘 융화시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안도 작품의 건축적 특징은 흔히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형태와 공간구성에서 완벽한 기하학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Geometry)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건축에 자연요소를 교묘히 끌어들이므로써 건축을 자연과 일체화시키는 감각이 탁월하다는



베네하우스 미술관 테라스 벽, 계단이 만드는 음영이 인상적.



스기모토 히로시의 바다 사진 시리즈 : 사진속의 수평선이 실제 수평선과 연결된다.

것(Nature)이다. 땅, 나무, 물, 빛과의 교감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진솔한 마감 재료의 사용(Substance)이다. 그것은 제물콘크리트와 유리의 물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하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베네세하우스의 넓은 잔디광장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원색적인 색채로 유명한 세계적 조각가들의 작품이 약 15점 설치되어 있는데 투명한 공기, 맑은 햇살, 연듯빛 잔디가 그 고채도의 색채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프랑스의 여류작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Phalle)의 여러 조형물, 카렐 아펠(Karel Appel)의 '개구리와 고양이', 일본작가 쿠사마 야오이(草間彌生)의 펌킨(호박)연작 등이 그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변 모래사장과 작은 언덕에는 색이 억제된 조형작품이 문자 그대로 환경조형물로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나오시마 아트사이트의 큰 세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중미술관은 역시 안도 타다오의 건축관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나지막한 언

덕 위에 입구만 지상에 노출되고 미술관은 지하에 묻어버렸다. 베네세하우스에서 셔틀버스로 3분 정도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 포장도로에서 벗어난,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완만한 언덕길이 나오고 거기서 하차한다. 그 길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아담한 정원이 펼쳐지는데 연꽃에는 연꽃이 우아하게 피어있고 지중미술관의 주 전시품인 클로드 모네의 '수련' 그림에 대한 기대와 예감을 갖게 하는 장치 같다. 미술관 입구를 향한 길을 따라 조성된 이 정원에는 모네가 스스로 조경을 했다고 하는 지베르니 정원의 꽃을 조사하여 선정한 약 150종의 초화와 40여종의 나무가 사계절 각기 다른 꽃을 피운다고 한다. 우리가 간 때는 5월의 초여름, 꽃들이 신록을 배경으로 오히려 봄 보다 더 선명하게 색깔의 경연을 벌이는 것 같다. 장미나 작약, 수국 등 흔하고 또 꽃송이가 큰 꽃은 보이지 않고 야생화같이 잔잔하고 은은한 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더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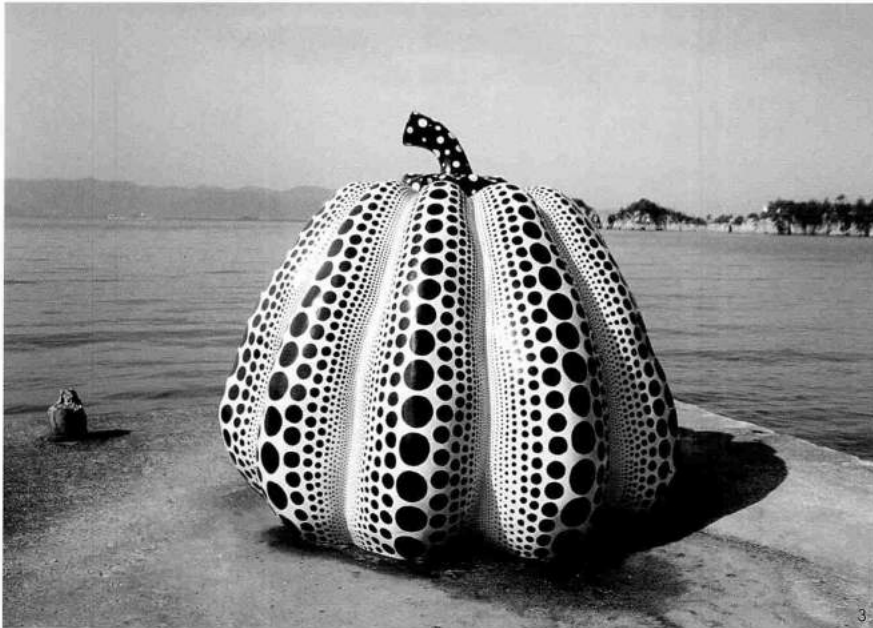
지중정원(지중미술관 정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을 지나 미술관으로 진입하는데 제물콘크리트 벽이 입구로 가는 통로를 유도한다. 통로 위의 지붕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갑자기 파란 하늘과 햇빛이 쏟아지고 벽이 끝나는 곳에는 또 자연의 식생이 나타나고 그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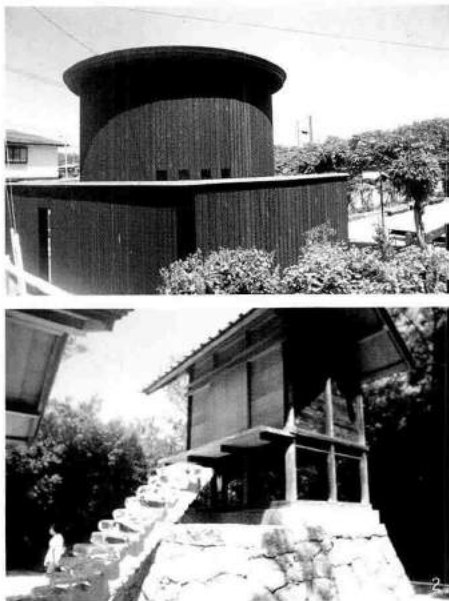
언덕위의 조각공원으로 가는 계단. 벽과 계단이 만드는 하나의 작품.



지중미술관 진입로의 지중정원. 모네가 좋아했던 꽃들이라 한다.



1. 조각공원의 케텔 아펠 작품 '개구리와 고양이'
2. 조각공원에 있는 니키 드 생달의 '책 읽는 사람'
3. 베네제하우스 앞 바닷가의 환경조형물 '펄킨', 쿠사마 야요이의 연작
4. 바다와 연관시킨 보트 주제의 환경조형물. 오타케 신로(大宅伸朗)의 작품
5. 바닷가 조각공원의 '차를 마셔라', 작가 카타세 가즈오(片瀬和夫)
6. 나오히메 황구의 환경조형물
7. 나오히메 황구의 환경조형물. 쿠사마 야요이의 '펄킨' 연작중의 하나



1. 나오키마 '집' 프로젝트 '미니미테라'의 공중화장실, 인도의 설계
2. 나오키마 '집' 프로젝트의 하나인 '적절한 비례', 계단은 유리블록, 사진가 스기모토의 작품
3. 나오키마 '집' 프로젝트 '카도야'의 시간을 주제로 한 작품, 작가 미야지마 다쓰오(宮島達男)

가 벽이 또 이어지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넓은 주 전시실에 들어서면 세계에 몇 점밖에 없다는 세로 2m, 가로 6m 크기 대형 모네의 그림 '수련'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2m 정방형의 수련 연작 3점도 옆 벽에 걸려있다. 이 그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방은 신을 벗고 들어가고 촬영은 물론 금지, 심지어 메모 하거나 스케치를 해도 연필만 쓰게 되어있다. 이 모네 그림을 상설 전시하기 위해 지었다는 지중미술관에서는 역시 대형 '수련'이 압권이다. 은은한 광선으로 연못의 색이 깊고 신비하게 느껴진다.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오픈 스카이'는 천창이 있는 4각형 빈 공간이다. 올려다보면 천창 너머로 흰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의 '타임·타임리스·노타임'이라는 작품은 큰 계단식 공간에 지름 2.2m의 검정색 화강암 구(球)를 놓고 그 주위에 금색 목조각 27개를 배치했다. 인상파 구상화인 모네의 그림과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현대 추상조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 기술한 건축물 중 베네세하우스의 파크, 비치, 뮤지엄은 1992년에, 오발은 뮤지엄의 별관으로 1995년에 준공되었으며 지중미술관은 2004년에 개관하여 비교적 새 시설이다.

나오키마 아트사이트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집 프로젝트 또는 아트하우스(Art House)프로젝트라고 하는, 고가(古家)가 밀집된 이 섬의 전통 마을(혼무라, 本村)에 있는 집을 사들여 보존·개수하거나 신축해서 그 집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거나 그 안에 작품을 설치해서 작은 미술관을 만드는 작업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동의 작품이 완성되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카도야(角屋)는 골목 모서리에 있는 한 주택을 개수(改修)해서 그 안에 '시간'을 주제로 한 네 작품을 설치한 것이다. 카도야는 200년이 넘는 나오키마 혼무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주택인데 약 100년 전에 이

마을에 큰 화재가 나 소실된 집을 이번에 복원하고 그 안에 미야지마 다쓰오(宮島達男)라는 작가가 제일 큰 방안에 8m×9m 되는 못을 만들고 그 물속에 125개의 작은 숫자판을 이리저리 배치해 놓은 것이다. 그 숫자판은 빨강·녹색·노랑으로 변하며 빛을 발한다. 이 작품이 1988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된 '시간의 바다(Sea of Time)'이다. 이 밖에 같은 주제의 소품 3점이 이 집안에 전시되어 있다. 미나미데라(南寺)는 과거 절이 있었던 자리에 새로운 목조건축을 세워 절의 기억을 보존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전통건축을 현대화한 것인데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이 섬에서 나온 목재를 불에 그슬려 외장재로 씌으로써 그 내부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듯하다. 역시 안도의 작품이며 그 안은 제임스 터렐의 '달의 뒷면(Backside of The Moon)'이라는 작품으로 채웠다. 기발하기도 하고 어이없게도 집 내부는 완전한 암흑이고 맨 앞에 선 안내인의 등에 손을 대고 뒷사람도 그렇게 뒤따르면서 천천히 걷다가 서다가를 20여분 하고나면 희미한 네모의 빛이 감지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작품의 전부이다. 그 답답한 암흑 속에서 인고(忍苦)의 시간을 기다리면 무엇인가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메시지일까. 제임스 터렐은 본래 심리학 전공이었다는 미국 작가인데 이렇게 빛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심리학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듯 느껴졌다. 원래 절이 있었던 자리이므로 속세를 떠나 수도하는 분위기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고오신사(護王神社)라는 작품은 마을 한가운데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미니 신사인데 '적절한 비례(Appropriate Proportion)'라는 제목처럼 건축의 중요원리 중의 하나인 비례를 주제로 삼고 있고 영동하게도 유리블록으로 계단을 만들었다. 이것은 건축사도 아니고 조각가도 아닌 사진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재미있다. 그는 베네세하우스 미술관의 수평선 사진작가(앞에 언급) 스기모토 히로시인데 여러 장르가 넘나드는 크로스오버가 현대예술의 하나의 즐거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1. 아와지(淡路)섬에 있는 '물 밑의 절', 이 연못 밑에 불교사찰이 있다. 안도 설계
2. '물 밑의 절' 내부, 단순명쾌한 빨강 단일색
3. 아와지섬 '꿈의 무대'에 있는 호텔 웨스턴 아와지. 안도 설계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의 네 번째 작품 긴자(銀座)도 역시 마을의 고가를 보수하고 그 안에 나이트 레이(内藤禮)라는 작가의 설치작품이 있다는데 공개롭게 그 날 휴관이라 내부를 보지 못했다.

페리나 소형여객선이 드나드는 나오키마의 미야노우라(宮浦)항도 예술의 섬 나오키마를 상징하듯 경쾌한 느낌의 유리 상자 터미널 건물이 최근에 신축되었고 부두 곳곳에는 참신한 환경조형물이 배치되어 있다.

나오키마 프로젝트는 후쿠다케(福武)일가가 2대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는데 후쿠다케 그룹은 출판업으로 시작해 통신교재·입시학원·노인복지시설 등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 1998년부터 나오키마 아트사이트를 조성하면서 그룹이름도 베네세 그룹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베네세는 좋은(ben) 존재(esse)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이다. 나오키마의 다른 시설은 위탁경영을 하고 지중미술관은 후쿠다케 미술관 재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

안도는 그의 저서 '건축에서 꿈을 찾다'에서 나오키마 아트사이트의 계획개념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불리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은 자세를 낮춰 가급적 보이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과 미술과 건축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느끼게 하고 이곳에서의 공간체험만이 강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다."

필자 부기: 이 밖에도 안도 타다오의 작품인 '물 밑의 절', 아와지(淡路)섬의 '꿈의 무대', 코오베(神戸)의 효고(兵庫)현립미술관, 일본계 미국조각가 노구찌 이사무(野口勇)의 정원미술관, 일본 3대명원이라는 오카야마의 고라쿠엔(後樂園), 오카야마성 등을 둘러보았는데 지면관계로 줄이고 그 가운데 사진 몇 컷만 골라 싣는다. 圖



일본 3대 명원(名園)이라고 하는 오카야마 고라쿠엔의 일부



코오베에 있는 효고 현립미술관. 안도 설계

설계경기 | Competition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 혈액원 사옥

Korea National Red-Cross Chungbuk Chapter

당선작 / 오선교 정회원

(주.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18-14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9,809.00㎡

건축면적 1,693.88㎡

연 면 적 3,441.43㎡

건 폐 율 17.27%

용 적 륜 32.8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설계담당 정용현, 송용룡, 강희준, 박성일, 김두현, 박정호

Concept : Trans-Fuse

주체가 아닌 매체로서 도시 가로축에 적극 대응하여 주변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이를 만들고, 관문으로서의 도시적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이용자 및 봉사단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하나됨을 이끌어낸다.

배치계획

- 대지레벨을 낮추고 도로면에 근접 배치시켜 접근성 및 인지성 확보
- 하역동선을 건물 배면부로 계획하여 업무기능과 유기적 연계 및 독립성 확보
- 전면의 진입광장을 통해 개방감 및 공공공지와 연계된 도시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유도

평면계획

- 지상1층
 - 코어를 중심으로 적십자사 지사와

혈액원의 수평 분할 배치(zoning)

- 직원과 민원인, 봉사자들의 다양한 만남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넓고 개방된 로비 계획

•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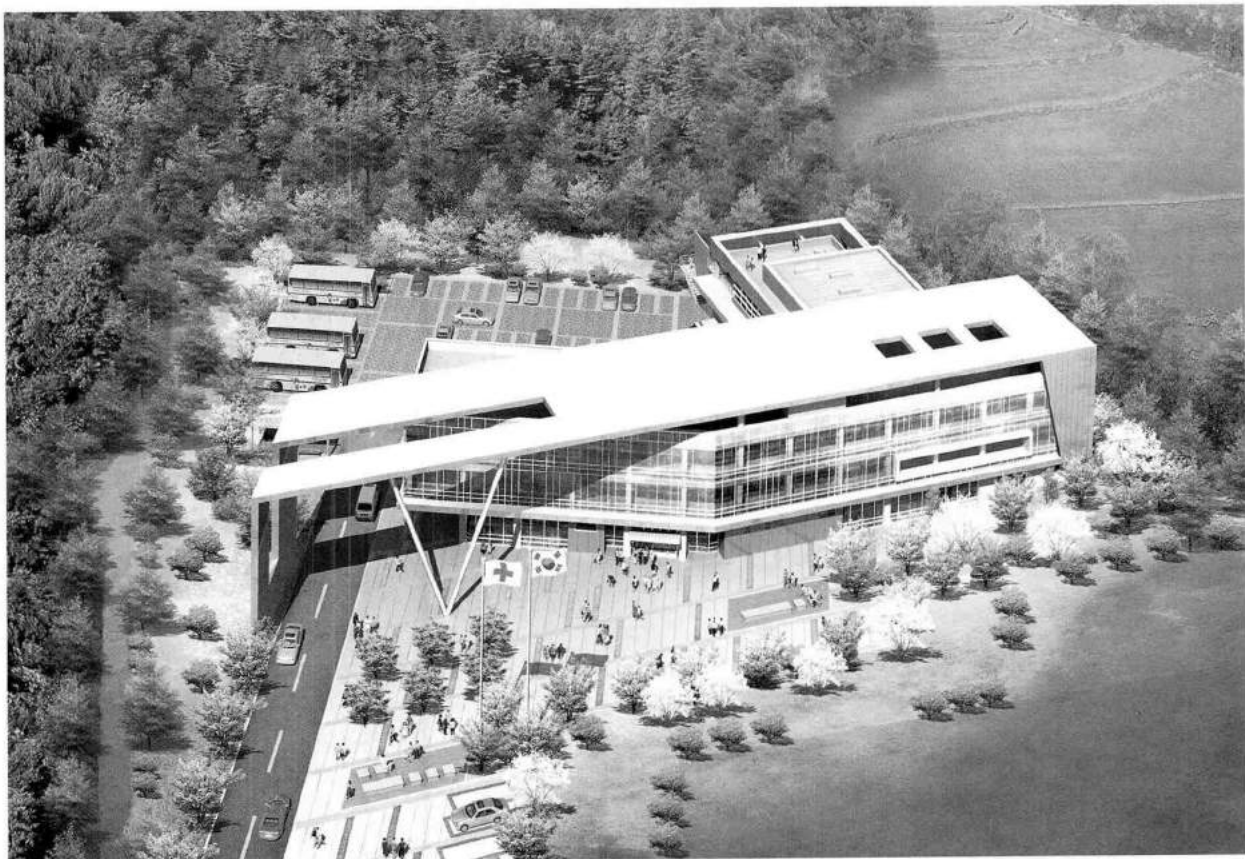
- 개방되는 대강당 및 회의실, 휴과 휴게데크의 조닝을 통해 일반인들의 편리한 이용도모
- 수직 및 수평으로 오픈된 평면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적합한 개방감 확보

• 지상3층

- 적십자사 지사와 혈액원의 주요 업무시설로 코어를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성 확보
- 휴게데크 및 녹화된 지붕층의 활용으로 다양한 휴식공간 마련

입면계획

- 상징성 : 손을 맞잡아 얹힌 형상으로 나누고 하나되는 이미지형상화
- 투명성 : 유리 and 비워진 프레임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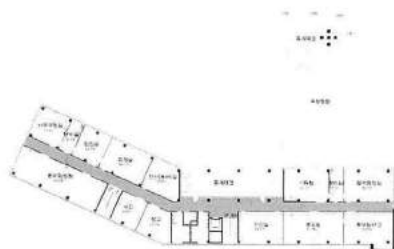


한 공공에 개방된 투명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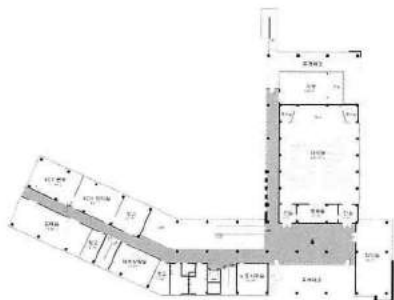
- 인지성 : 도시로 진입하는 가로면에서 강하게 인지되는 다변적 입면구성
- 개방성 : 커튼월의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매스 및 재료에 의한 리듬으로 업무공간임과 동시에 도민에 친근한 시설로서 개방감 표현
- 수평성 : 프레임의 수평적 형상으로 적십자의 안정감과 앞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성 표현

단면계획

- 기능의 수직 조닝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수직동선 및 코어 중심의 1동 계획
- 혈액원
 - 헌혈관련실과 제제공급실의 수평 조닝 및 혈액원 업무공간의 수직조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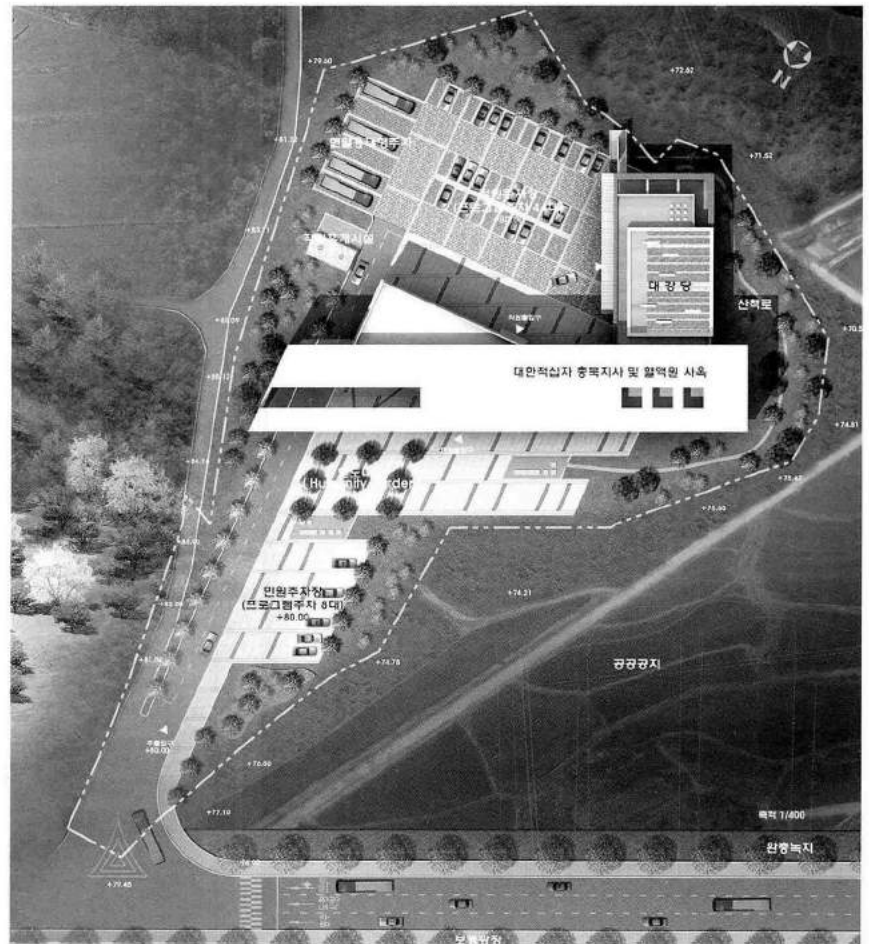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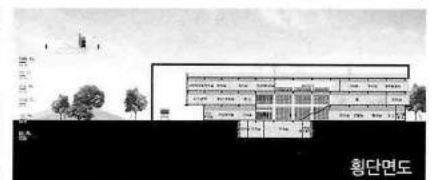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횡단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중앙대학교 공학 R&D 센터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R&D Center

당선작 / 노형래 정희원
(주. 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일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학교시설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877.00㎡
건축면적 2,175.42㎡
연면적 13,347.30㎡
건폐율 27.62%
용적률 169.45%
규모 지상 10층
발주처 중앙대학교
설계담당 고종준, 장근, 김영주, 최정우, 이상아, 조영채,
김광순, 서지명, 이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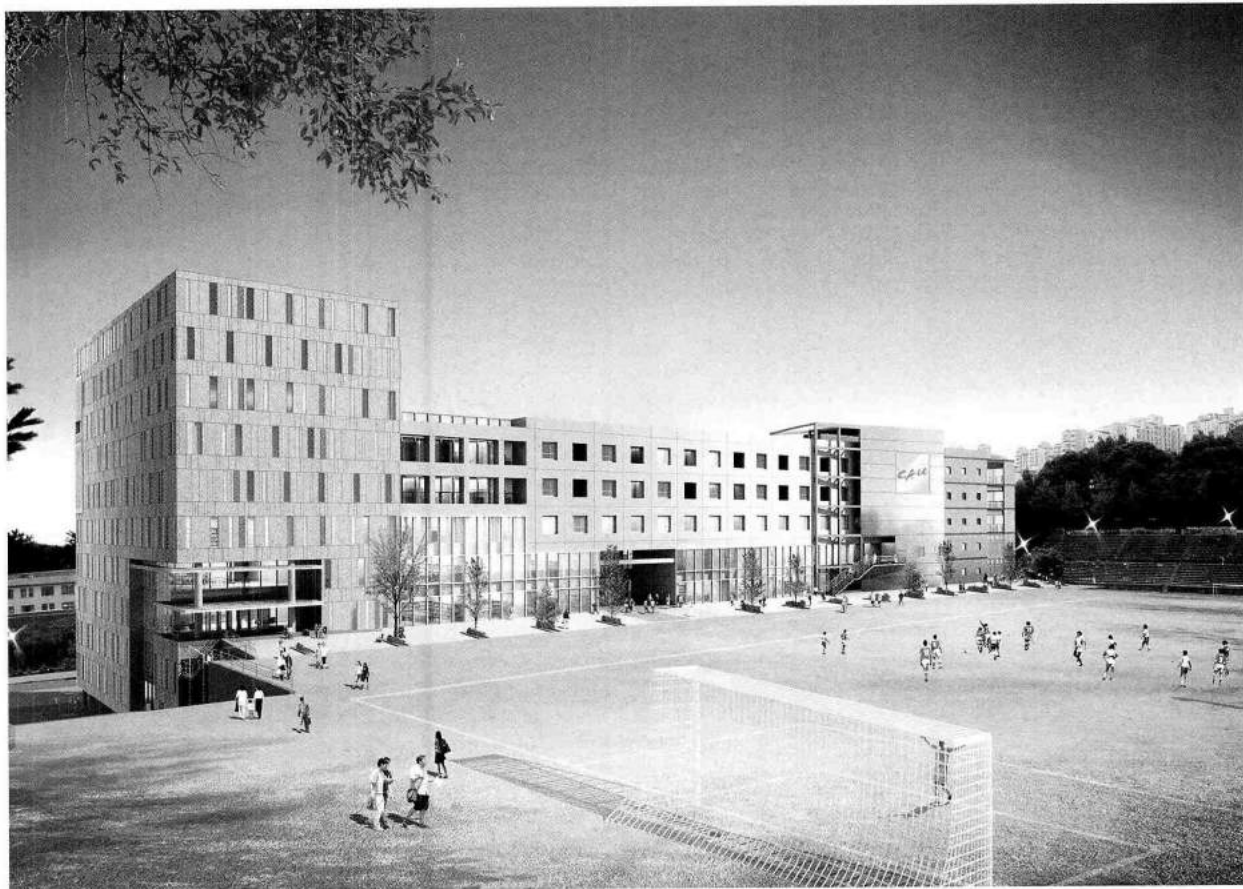
디자인 개념은 21세기 명문선도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공학R&D센터의 첨단이미지를 형상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계획안은 2개의 매스로 분리되어 수직적 상승감의 연구동과 수평적 안정감의 실습동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내부 기능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 개념은 건물의 형태뿐 아니라 재료와 단면계획에서도 일관성을 갖고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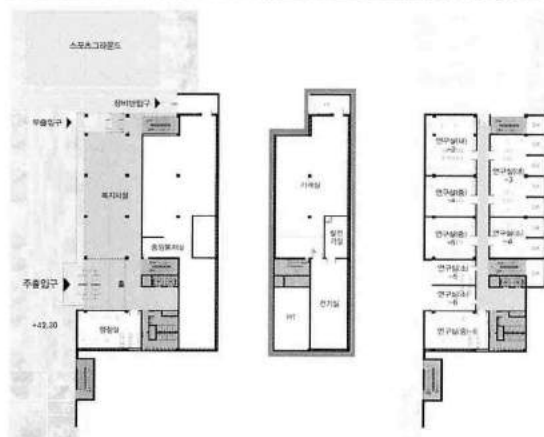
사업은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순응하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간의 연계를 위해 T자형태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계획의 중점으로 보았으며, 캠퍼스 내에 공학R&D센터의 첨단 분위기와 조화되는 외장마감을 통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중앙대학교 공학R&D센터는 후문 대운동장 측에 계획되는 건물로서 다양한 크기의 연구실, 회의실, 실험실, 휴게실, 도서열람실 등의 복합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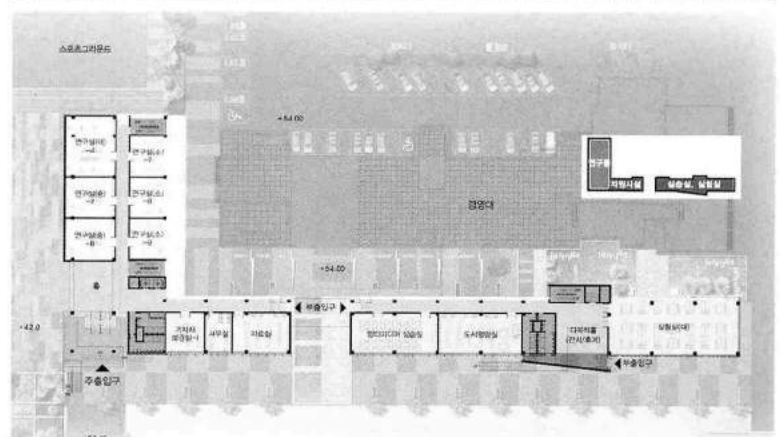
수용하고 있으며, 부지는 후문에서 진입할 경우 가장 먼저 인지되는 곳으로 캠퍼스의 마침표가 되는 곳으로서 기존 캠퍼스와의 연결 축 형성을 통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상징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자칫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이 수평, 수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였다.

주재료는 투명성을 강조한 커튼월 유리 와 중앙대학교 내 건축 재료의 맥락을 유지하는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동 정면은 깔끔한 느낌의 솔리드 면으로 처리하여 정면성을 살리면서 레벨차를 고려한 매스의 조형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출입구 부분을 커튼월로 계획하였고, 실습동은 공학R&D센터의 첨단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차용하였고, 긴 매스의 단조로움을 상쇄시키는 포인트로서 씨아이(CI)월을 계획하여 후문 진입 시 인지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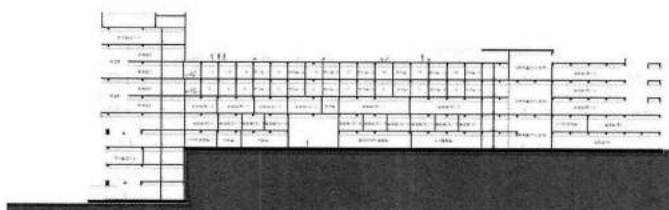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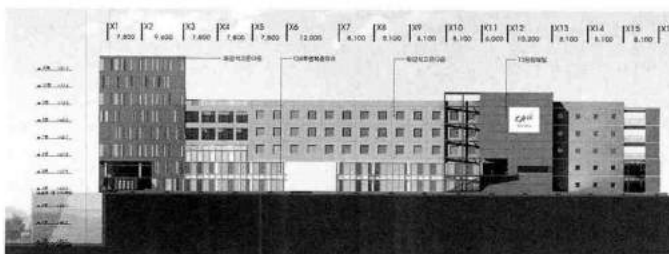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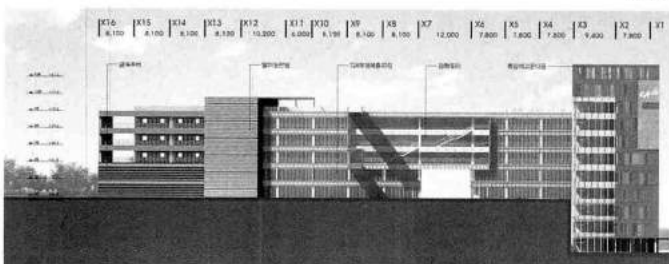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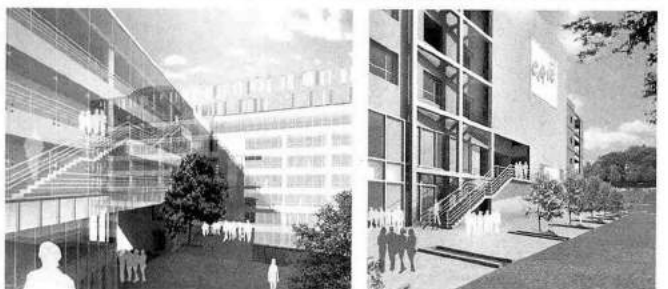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고양시 역도연습장

Goyangsi Weight Lifting Range

당선작 / 왕한성 정배원(주. 화랑 종합건축사사무소) +
백경무(안산공과대학)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체육시설)
주요용도 체육시설
대지면적 2,675.7m²
건축면적 534.15m²
연면적 4,365.64m²
건폐율 19.96%
용적률 79.23%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발주처 고양시
설계담당 박항수, 김순영, 김인규, 이원규, 이승희

역사(力士)들이 모여 역사(歷史)를 만들어 가는 곳, 2008년 치르게 될 아시아 역도클럽선수권대회 및 2009년 개최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바로 이곳, 경기도 고양시 역도연습장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처음 현상설계를 접하고서 느낀 점은 참으로 쉽지 않은 부지여건이라는 점이 었다. 자연녹지로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어 있고, 지상에 노출되어야 할 공간들은 많이 필요한데, 부지의 형상마저 길고 좁은 부지형상에 3면이 3.0m~7.0m에 걸치는 옹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야 하나 하고 고민에 빠졌다. 계획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해만 갔고, 시간 역시 무정하게 흘러만 갔다.

건물형태를 결정하면서...

세계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고양시

하면 떠오른 것이 '꽃의 도시'라는 것이다.

꽃-아름다움-과 역도-힘-의 자연스러운 조화. 역도 바벨을 형상화하고, 꽃을 표현해 보고자 원을 설계에 반영해 보았다. 조금의 여유도 없는 건폐율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 보고자 온갖 지혜가 다 동원되었다. '원은 동선의 길이는 짧지만 실의 면적은 가장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원을 채택하게 된 요인이었다. 그리고 성격이 서로 다른 실들은 긴 연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별동으로 분리해서, 그 사이로 자연을 건물로 끌어들이었다.

자연의 건물 인입과 바람길 조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꽃 형상을 한 원과 깔끔하게 정리된 직사각형의 별동, 그리고 연결 복도의 조화는 전체적인 안정감과 역동감을 동시에 준다.



배치계획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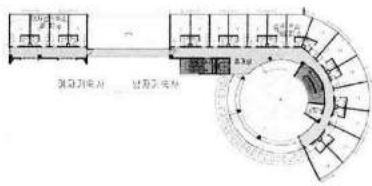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지상 주차 대신 전 부지를 공원화, 녹지화 했다.

지역주민에게는 주민휴게 장소로서, 심신이 지친 선수들에게는 사색의 공간으로서 제공되는 역도연습장 상부는 수공간과 조경공간으로 구성된 옥상 정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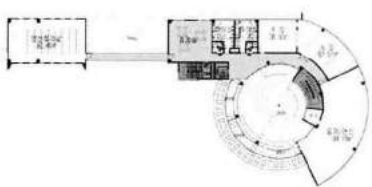
장애우를 위한 경사로는 비상시 응급차량동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0m의 폭을 유지하였다.

가중 지표면 산정에 따라 경사형태의 연습장 상부는 어느새, 건물속의 산책로가 되어 배면의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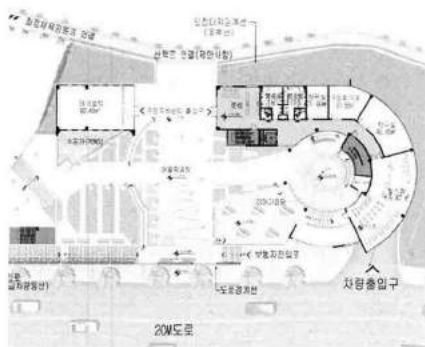
차량은 비상주차를 제외하고는 원을 따라 순조롭게 지하2층 주차장으로 유도된다. 도심속 작은 공원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조경계획과 배치계획은 본 계획의 주안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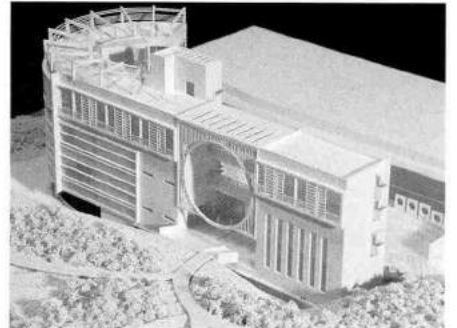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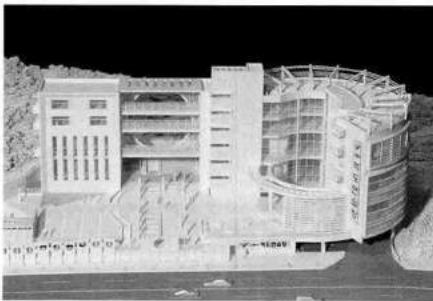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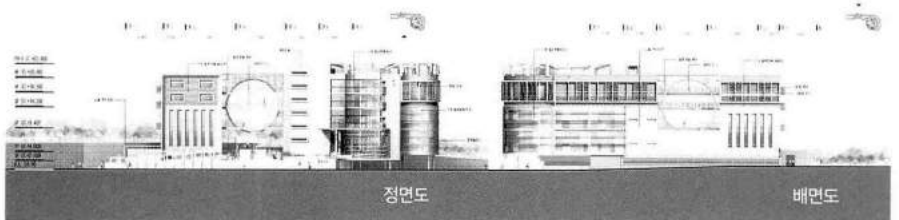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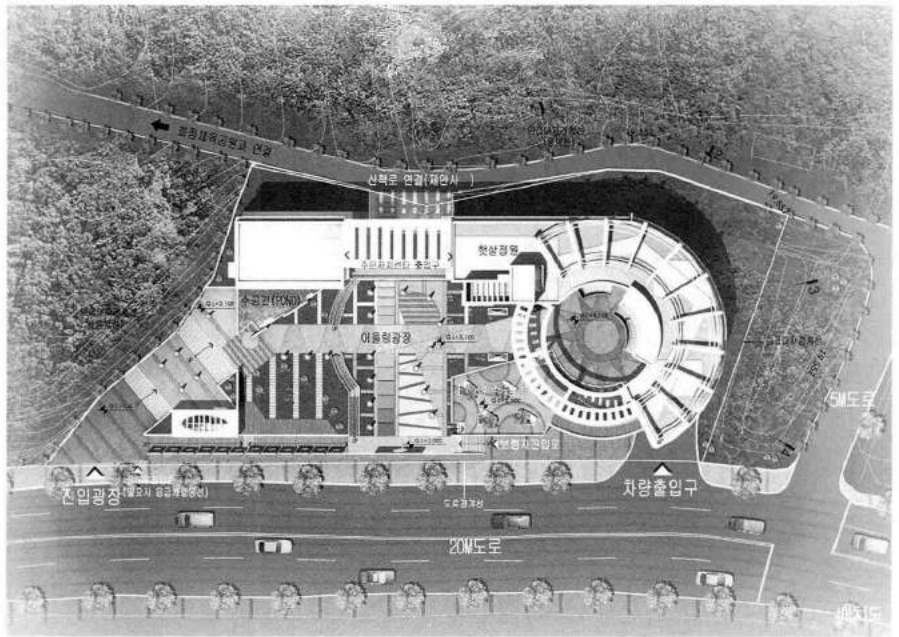
3,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고양시 역도연습장

Goyangsi Weight Lifting Range

우수작 / 김형평 정회원 · 한충국 정회원 · 김영민 · 채승병
(주. 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체육시설)
주요용도 체육시설
대지면적 2,675.7㎡
건축면적 534.02㎡
연 면 적 1,751.30㎡
건 폐 율 19.96%
용 적 륜 65.45%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 조 자우구조
기 계 맥엔드
전 기 하나HT
발 주 처 고양시
설계담당 김병철, 천성진, 김지아, 한정운, 박수정

한국 역도체육의 진흥과 고양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덕양구 동측 배라산 인근의 화신로변에 위치한 대지에 계획하였다.

인근의 아파트단지와 백양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지의 도시계획상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역도인들에게는 인근의 자연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집중적인 연습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근린공원과 연속된 개방된 커뮤니티 시설로서 배라산공원 접근로의 관문(Gate)역할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현황대지는 굽어진 전면 20m도로에 장변이 접하고, 배면부의 인접지와 공원예정지는 계획대지와 3~4m의 레벨차이를 보이며 경사지로 조성되어있으며 경계부의 긴 웅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대한 저해와 도시-자연 공간간의 단절된 형상을 보이고있다.

복합기능의 연계와 단절

체육관, 선수숙소 등을 포함한 역도연습장과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탁구 등을 수용하는 주민체육시설의 두개 기능을 적절히 연계시켰으며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숙소는 상부층으로 배치하고 주민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하층과 1층 두개 층의 접근로를 이용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두 기능의 체육시설 상호간에 시각적인 연계를 통하여 연습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자연환경의 연속과 복원

대지 후면부의 경사진 공원의 지형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단절된 지형을 복원하고, 그 잔디언덕을 통하여 화정근린공원으로 접근하는 경사로를 조성하였으며, 기능적으로는 조성된 언덕 하부에 천장을 가진 역도연습장을 계획하였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두 개의 레벨에서 진입로를 형성하였으며 보행데크를 이용하여 외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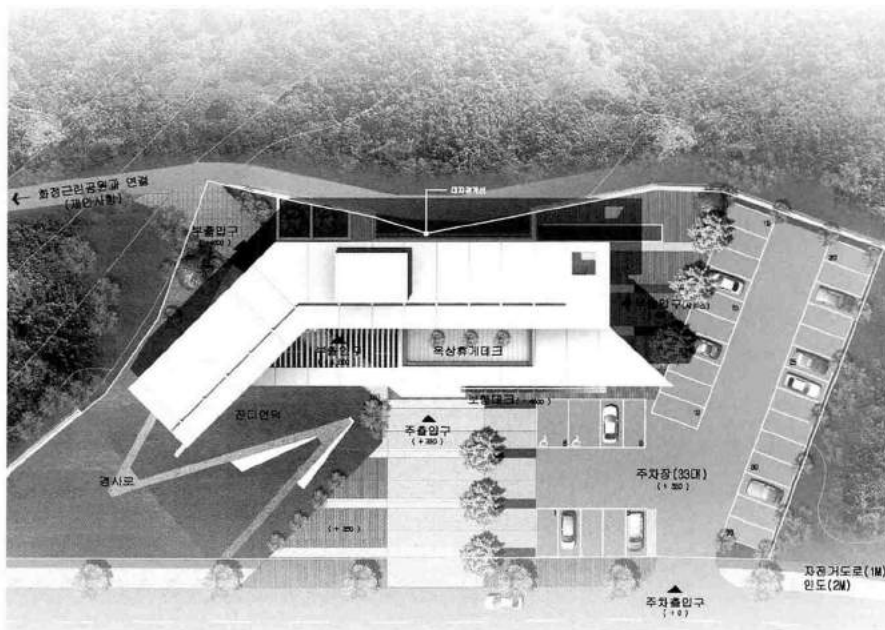
간과 건축공간을 연속된 보행공간으로 통합하여 연속성과 사용자선택권을 극대화하였다.

열림과 닫힘... 그리고 대응

경사진 대지에 밀착한 저층부와 피로티로 인해 부유하는 상층부 매스로 분할하고 그 두 매스를 프린티드 글라스로 연결하여 변화속의 일체감을 고려하였다.

상층부에서는 굽어진 도로와 지형에 대응하는 깎어진 매스를 계획하고 자연을 향하여는 열린 숙소공간을 도로측을 향하여는 반 개방된 공용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반복적이며 불규칙한 입면요소를 사용하여 건축물 전체에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자연과 도시의 매개공간에서의 건축물, 그 두 요소가 상호 관입과 융화로 조화를 이루는 공간, 고양시 역도연습장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러한 명제들로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며 건축사들의 치열한 노력에 의한 개념적 풍성함이 공간의 질을 높이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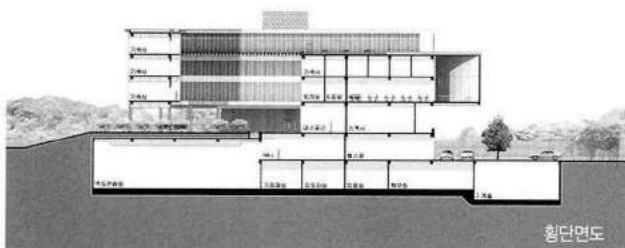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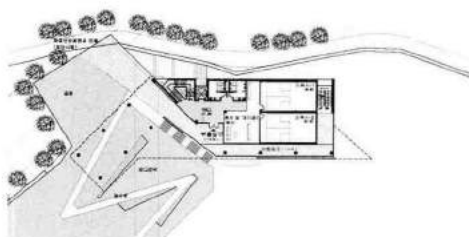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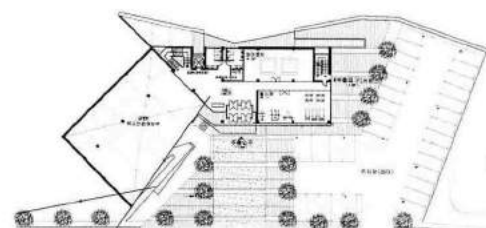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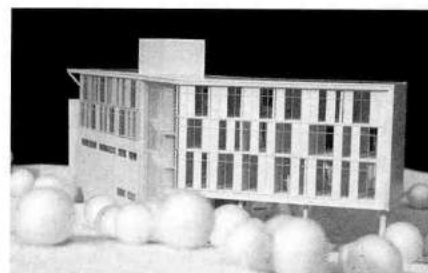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김 주 형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by Kim, Ju-hyeong

건축주 브리핑 - 관점의 중첩(1)

Client Briefing - Perspectives Overlapping

목 차

1. Who are clients?

건축주의 이해 : 건축주의 정의, 유형, 건축주의 당위적 행위, 국내 건축주 대상 만족도, 당위적 행위 중요성 인지 및 이의 수행 시 어려운 정도, 당위적 행위를 위한 정보취득 행동 조사 방법 및 분석 결과

2. In and out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이해 : 건축주 입장에서의 프로젝트 성공, 건축주 브리핑의 유형, 건축주 브리핑의 절차 및 내용

3. Today and tomorrow of clients briefing

건축주 브리핑의 현재와 미래 : 국내외 건축주 브리핑의 사례, 향후 건축주 브리핑 발전 방향

※ 김주형 교수는 한양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 후, 영국 레딩대(Univ. of Reading)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1997 ~ 2000.

(영)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연구원

- 2002 ~ 현재, 동명대학교 교수

- 2006,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워크숍 분과위원

- 2006 ~ 현재,

한국교육평가원 교육시설 BTL 제안서 평가위원

- 2007 ~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2007 ~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영남지회 총무이사

- 2007 ~ 현재,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장

- 2007, 대한건축학회 논문상 수상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못' 한다면 그 어떤 명의도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의는 뛰어난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까지 파악해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료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의사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에게 진료 받을 기회를 어렵게 얻은 후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 혹은 치료방법에 대한 독단적 결정에 실망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린 건축주에게 건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환자와 건축주 모두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와 건축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설명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경험 혹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도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상이한 관점들의 접점에서 때로는 환자나 건축주를 교육시키면서 때로는 그들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요구를 표면화 시키면서 상황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의사나 건축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환자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건축주 및 건축사를 포함한 용역제공자의 관점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건축주 브리핑이다. 건축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는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s)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도'라고 요약될 수 있다. 문제상황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우려(concerns), 관심(interests), 요구(requirements), 필요(needs) 및 제약(constraints)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¹⁾. 브리핑(briefing)은 문제상황의 파악 및 해결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건축주 조직의 필요와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주의 (시설물에 대한) 목적과 (건축주 조직의 고유) 업무와 부합시키는 점진적 절차"라 정의내릴 수 있으며 브리프(brief)는 이 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건축주 브리핑을 기술 혹은 절차로만 이해한다면 기존의 건축기획 혹은 설계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다.

올바른 건축주 브리핑은 건축주는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건축에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축주 자신의 생활 혹은 업무영역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식을 최대한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 제공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무료로 수행했던 건축주 대상 비설계 업무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용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물론 건축사 혹은 여타 전문가의 건축주 브리핑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건축주는 브리핑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결과 건축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건축주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무료로 수행된 브리핑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브리핑의 온전한 이해는 건축주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자 하며, 건축주의 정의, 유형, 건축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당위적 행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주 중 민간 개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당위적 행위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이를 수행할 때 느꼈던 어려운 정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의존한 대상 조사 방법 및 이를 토대로 추론한 행동 양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룬다. 2회에서는 건축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축주 브리핑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브리핑 내용 등을 설명한다. 3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건축주 브리핑 사례와 앞으로의 건축주 브리핑 발전 방향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Blyth, A. and Worthington, J. "Managing the Brief for Better Design", Spon Press, London, UK, 2001. 기타 브리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Who are clients?

건축주의 이해

건축주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건축주의 정의 및 책임

국내에서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²⁾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역할은 공공 및 법인건축주의 경우 집단 내에서 나뉘어 수행되기도 한다.³⁾ 영국의 경우 Rowlinson(1999)은 건축주를 프로젝트의 주인(owner) 혹은 구매자(purchaser)로 정의했다. CIOB(1980)는 법적으로 건축주는 건설프로젝트를 발주(order)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인 및 지불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으로 정의했다. CIOB(1992)는 완성된 시설물의 최종 사용 여부에 따라서 개발자(developer), 이용자(end user) 혹은 점유자(occupier)로 구별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건축주의 정의는 건축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내려지고 있다. 건축주의 주요 역할은 건설프로젝트를 지도(direct)하는 것이

며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CSSC 1991) 지도와 유사한 역할로 건축주 입장에서의 관리(manage) 혹은 제어(control)도 들 수 있다. (Higgins and Jessop 1965) 국내의 각종 건축 관련 법규에서도 건축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절차 및 법규 인지, 조직구성 및 계약, 감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관한 일부 내용은 다음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건축주의 유형 분류 및 국내 건축주 유형별 발주 현황

건축 관련 작업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주의 유형을 분류하는 공인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Bowen 외 2인(1999)은 용역제공자가 건축주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주의 독특한 성향을 인지하고 이에 알맞은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따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주를 동일한 유형으로 묶기 위한 몇 가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①개인 및 조직 여부, ②건축주의 사업유형 및 건설프로젝트 발주 경험, ③프로젝트의 목적, ④건축주가 속한 산업분야, ⑤건축주의 프로젝트 발주 빈도, ⑥초기투자비에 근거한 프로젝트의 규모, 그리고 ⑦재원조달 방법 등 이다.⁴⁾

국내에서는 건축주의 유형 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공론화된 논의가 드문 편이다. 다만 통계 목적으로 건축주를 공공 및 민간 건축주로 분류해, 이들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금액 및 건수를 취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 건축주 분류 기준을 잠정적으로 제시한 것이 <표 2>다.

첫 번째 기준인 주체는 국내외 건설관련 각종 통계에서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공공 및 민간건축주로 나뉘고 있다. 대한 건설협회 및 건교부에의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본 공공건축주의 유형에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표 1> 국내 건축 관련 법규를 토대로 한 건축주의 책임

분류	관련 내용 및 법규
절차 및 법규 인지	• 허가, 신고, 착공신고 (건설법 제1장 제10조, 제 13조)
	•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지 (건설법 제1장 제13조 ③)
	• 감리완료보고서(건설법 제1장 제18조 ①) 제출
	• 사용승인서 (건설법 제1장 제18조 ②) 획득
조직구성 및 계약	• 현장관리인 선정(건설법 제1장 제2조)
	•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선정 (건설법 제1장 제5조)
	• 건설업자 선정(건설법 제1장 제7조 ②)
	• 규정 이외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 규명 (건설법 제1장 제9조의 2)
감독	• 공사시공자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건설법 제1장 제19조 ②)
	• 설계변경동의 (건설법 제1장 제19조 ③)
	•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수납 (건설법 제1장 제21조 ⑤)

2) 건설법 제1장 제2조 12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에서는 공공건축주를 ‘발주자’ 혹은 ‘발주청’ 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3)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은 공공 건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건축주 조직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역할을 투자 의사결정자(investment decision makers), 소유주(project owner) 및 건축주대표(client representative) 등으로 나누었다. 건축주 대표는 또한 프로젝트 후원인(project sponsor)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흔히 건축주와 혼용되고 있는 ‘발주자’ 는 엄밀한 의미에서 건축주대표라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주형, ‘영국의 건축주 관련 연구 고찰 및 이의 국내 수행 방향 제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제, 20(3), 2004, 125-13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 국내 건축주 분류 기준 제안

주체		용도
공공건축주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국영기업체) - 공공단체 -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관공서 건물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저층 아파트 (5층 이하) - 고층 아파트 (6층~15층 이하) - 초고층 아파트 (16층 이상) - 주거·상업용 겸용 건물 - 상가·백화점·쇼핑 센터 - 사무용 빌딩 - 호텔·숙박 시설 - 학교 - 병원
	- 법인 건축주 - 개인 건축주 - 시행사 -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 주한외국기관	- 종교용 건물 - 전통양식 건축 - 공연·집회 장소 - 전시시설 - 경기장·운동장 - 공장·작업장 건물 - 기계기구 설치 - 변·발전소용 건물 -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 위험물 저장소 - 기타 건물

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있다. 공공건축주와는 달리 현재 통계에서 민간건축주는 세부적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민간 건축주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법인 및 개인 건축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류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시스템의 복잡성,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점 및 총당 가능한 내부 인적자원이 이들 두 부류의 건축주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 건축주는 필요 인지, 건축물 발주 및 자원투입 주체가 모두 동일한 반면 법인 건축주의 경우 이들 주체가 다를 수 있다. 법인 건축주는 주 업무가 건축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경영적 관점에서 건축 프로젝트에 접근하게 된다. 이들 법인 건축주는 필요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에서 총당할 수 있다. 민간 건축주 중에서도 건축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부류가 있다. 시행자 혹은 시행사는 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획득하며, 조직 내부에 건축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주는 민간 건축주 중 별도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민간 건축주 중 개인 및 법인 건축주 그 어디에도 분류하기 난해한 건축주 집단이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은 건축주의 외형상 법인 건축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된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은 별도의 민간 건축주 세부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인 용도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분류할 경우 오히려

〈표 3〉 2004년 건축주 유형 및 건축용도별 발주금액 및 건수⁵⁾ 단위: 10억원/건

건축용도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국영기업	민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금액 23 1%	9 0%	1 0%	1 0%	752 1%
저층아파트 (5층 이하)	금액 33 2%	2 0%	0 0%	12 0%	282 0%
고층아파트 (6층 ~ 15층)	금액 15 1%	33 1%	102 6%	911 30%	10994 18%
초고층아파트 (16층 이상)	금액 0 0%	4 0%	247 14%	1624 53%	17038 28%
주거·상업용 겸용건물	금액 1 0%	48 1%	123 7%	12 0%	4913 8%
상가·백화점·쇼핑센터	금액 0 0%	52 1%	44 3%	20 1%	5080 8%
사무용빌딩	금액 8 0%	23 0%	114 7%	50 2%	6981 11%
관공서건물	금액 651 34%	862 17%	225 13%	93 3%	28 0%
호텔·숙박시설	금액 18 1%	23 0%	3 0%	4 0%	1425 2%
학교	금액 332 17%	2448 49%	27 2%	7 0%	1333 2%
병원	금액 23 1%	49 1%	49 3%	10 0%	753 1%
종교용건물	금액 3 0%	1 0%	217 13%	0 0%	453 1%
전통양식건축	금액 3 0%	28 1%	1 0%	0 0%	9 0%
공연·집회장소	금액 18 1%	264 5%	23 1%	9 0%	255 0%
전시시설	금액 6 0%	256 5%	79 5%	5 0%	57 0%
경기장·운동장	금액 107 6%	179 4%	74 4%	13 0%	246 0%
공장·작업장 건물	금액 21 1%	19 0%	69 4%	19 1%	6859 11%
기계·기구 설치	금액 4 0%	9 0%	2 0%	2 0%	741 1%
변·발전소용 건물	금액 7 0%	1 0%	7 0%	82 3%	112 0%
창고·차고·터미널용건물	금액 157 8%	101 2%	130 8%	22 1%	683 1%
위험물 저장소	금액 3 0%	0 0%	4 0%	2 0%	65 1%
기타건물	금액 486 25%	553 11%	188 11%	153 5%	1926 3%
총	금액 1,902	4,963	1,728	3,049	60,983
	건수 3,710	12,625	1,640	1,128	33,867

려 건축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만큼 복잡해 질 수 있다. 일례로 공장도 제조업 분야에 따라 전자, 전기, 기계 등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의 당위적 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용도에 맞게 분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공사세분'을 용도별 분류 기준으로 이용한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관공서 건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 사업 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용 빌딩, 호텔·숙박시설, 학교, 병원, 종교용 건물, 전통양식 건축, 공연집회장소, 전시

5) 대한건설협회가 2005년 발간한 '2004' 건설업통계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시설, 경기장·운동장, 공장 작업장 건물, 기계기구 설치, 변·발전소 건물, 창고·차고·터미널 건물, 위험물 저장소, 기타 건물 등이 있다. 공사세분별로 발주가 가능한 주체가 한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병원 같은 경우 공공 및 민간 건축주 모두 발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세분을 주체에 따라 재분류 하지 않고 제시한다.

현재까지 국내 건축 관련 통계에서 민간 건축주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발주 금액 및 건수는 파악할 수 없다. 2004년 기준 공공건축주 세부 유형 및 민간건축주가 발주한 건축용도별 발주 금액 및 건수는 <표 3>과 같다. 2004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주된 건축 프로젝트는 발주 금액 기준으로 71조 원 가량이다. 민간부분이 61조 원 가량을 발주해 86%를 점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 단일 유형으로 17조원 정도를 발주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시행자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해 발주되었을 것이다. 개인건축주가 발주할 수 있는 유형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상가건물, 공장건물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기관은 주로 관공서(금액기준으로 34%) 및 학교를, 지자체는 학교(금액기준으로 49%)를 발주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건축주는 고층(금액기준으로 18%) 및 초고층 아파트(금액기준으로 28%),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금액기준으로 23%)을 주로 발주하고 있다. 건축용도별 유사 유형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건축주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일종의 규범 같은 것이 형성돼 유사한 태도 및 행동양태를 견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건축주의 태도 및 행동양태를 이해하는 것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건축주의 당위적 행위와 지식

사업의 유형, 건축주의 경험 등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① 필요 인지 및 이의 기술
- ② 프로젝트의 목적 규명
- ③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 고려 및 이의 평가
- ④ 건축주의 이상적 상황을 반영한 시설물 설명
- ⑤ 구매전략(procurement strategy) 기획 및 참여자 선정 등⁶⁾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연재 2편 '건축주 브리핑의 이해'에서 다루고자 한다. 위와 같은 당위적 행위는 수행하는데 있어 건축주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⁷⁾에 대해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 ① 기능: 시설물을 통해 건축주 자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 ② 재정: 순수 프로젝트 비용, 유지/운영 비용, 그리고 시설물의 보유에 따른 세금
- ③ 법률: 인허가, 건축법규, 노무 관련 법 등
- ④ 건물의 구조 및 이의 시공
- ⑤ 설비 및 환경적 성능
- ⑥ 프로젝트의 기간
- ⑦ 대지 상황: 접근로, 부동산으로써의 가치 등

위와 같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관련 전문가들의 용역을 제 공받게 된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는 전문 종사자들의 지식을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건축주가 절차에 대한 지식과 당위적 행위중의 하나인 시설물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procurement strategy)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참여자 선정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른 계약방식을 선택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험이 있는 건축주가 할지라도 이전 프로젝트 성공 경험에 따라 과거의 계약방식과 참여자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건축주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참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주의 태도 및 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관련된 규범과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축주가 지식을 어떤 동기와 경로로 취득하고 있는지 추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행동론에 의한 정보취득 행동 예측은 이러한 추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소비자 행동론에 근거한 건축주의 정보취득 행동

소비자는 보통 개인소비자(individual consumer)와 조직소비자(organizational consumer)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소비자란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에 관여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Mowen과 Minor(2001)에 의하면 소비자의 유형은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post-modern consumer),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소비자(rational consumer), 정보를 획득한 후 구매하는 소비자(information seeking consum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가

6) Bennett, J. (1985)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Butterworths, London.

7) Goodacre, P. E., Pain, J., Noble, B. M. and Murray, J. (1982) Client Aid Program, Occasional Paper No.5, Dept. of Construction Management, Univ. of Reading.

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일수록 두 번째와 세 번째 경향을 보이며 건축주도 다른 구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축물을 발주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 예를 들어 광고, 제조회사 등의 판촉과 같은 마케팅 활동, 대중매체,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 등의 영향력을 받아 개인의 생각과 태도, 선호 등이 변화한다. 건축주도 이와 유사하게 건축 관련 전문서적이나 잡지, 인터넷 및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어떤 매체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지 조사한다면 향후 이들을 지원하기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축주 대상 조사

건축주 관련 연구 자체가 국내 도입 단계에 있는 관계로 그동안 건축주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건축주 관련 연구의 역사가 40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건축주 관련 연구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주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특정 유형으로 묶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정 유형의 건축주의 모집단 및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우며, 설령 표본을 추출해 각종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해도 이들 유형을 특징짓는 태도나 행동이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도 부족한 터에 저자 혼자 국내의 모든 건축주 유형을 조사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축주의 관점에서 건축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으며 몇몇 관련연구를 수행한 결과 공공발주자에 의해 먼저 발주된 핵심 건물 연계 시설물 개발 프로젝트 사례연구⁸⁾, 재개발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식보유 정도⁹⁾ 등을 조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발주 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 의사 결정자, 사업의 주인 및 건축주 대표의 역할을 각기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행자, 지자체, 의회 및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이 경우에 따라 각기 투자의사결정자 역할을 한다. 사업의 주인은 외형적으로 시행자이지만 기발주된 중심 건물까지 고려한 전체 사업의 주인은 지자체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시행자는 시공자와 같은 사업 참여자에게는 건축주 대표로 역할을 하지만 분양 승인을 하기까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시행자에게 건축주대표로 사업 내용 결정에 관여한다. 공공발주자의 태도특성은

건축주의 당위적 행위와 관련해 법률이 정한 바가 많아 상대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발주자의 경우 프로젝트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행자의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건축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며 이에 따라 이들의 태도 및 행동이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 수행해야 할 당위적 행위를 ① 사업의 전체적 흐름 이해, ② 조합설립인가 절차 및 내용 이해, ③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업무범위 이해 및 이의 선정, ④ 시공사 선정, 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해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업무범위 이해 및 이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수준에서 규명된 당위적 행위는 건축주의 유형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건축주 유형별로 연구 방법론을 특성화시켜 제시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민간 개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프로젝트 만족도 및 당위적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과 결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적 관점에서 외부 자문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건축주와 달리 개인의 타 제품 구매 경험을 토대로 건축에 접근하는 개인 건축주가 오히려 건축사가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 및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대다수 중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주 고객이 개인 건축주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과 분석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조사기획

조사는 개인건축주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태도 및 행동을 밝히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해 수행하기로 했다. <표 4>는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설문문항 분류 및 예시문항을 요약한 것이다. 주요 목적은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당위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 및 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정도 조사, 당위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접촉한 매체 조사 등이다.

개인건축주가 프로젝트 결과에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비용, 기간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해 표현하도록 했다. 정량적인 프로젝트 성공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예상 및 실제 비용과 기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8) 김주형 외 2인, 지방자치단체 기발주 중심건물 연계시설 개발사업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권, 5호, pp. 145~152, 2006.

9) 김주형, '건축주를 위한 지식흐름 활성화 방안 - 이론적 배경 및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2(4), 2006, 135-143

자의적으로 선정된 개인건축주 5인을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수행해 1.3절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 당위적 행위를 '과정 및 절차 파악', '품질, 비용, 기간 예측 및 결정' 및 '조직구성 및 관리' 세 분류에 따라 12 가지로 세분했다. 이들 12 가지 당위적 행위의 중요성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및 '매우 중요함'의 5점 척도를 이용해 표현하도록 했다. 어려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당위적 행위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과 같이 척도로 만들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된 당위적 행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이를 수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어려운 정도에 대해 답변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하지 않음'이라는 예시도 포함했다.

이들 당위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12 가지로 분류해 이를 획득하기 위해 접촉한 매체를 밝히도록 했다. 관련 정보 획득 매체의 유형은 '친인척', '지인', '인터넷', '잡지', '방송매체', '설계자', '시공자', '본인직식'으로 예시했다. 응답의 신빙성(relia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찾지 않음'도 예시에 포함했다. 응답자가 관련 정보와 상응하는 당위적 행위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정보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된 답변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응답의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분석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표 4〉 건축주의 태도·행동 조사를 위한 설문지 기획

목적	분류	예시 문항
만족도조사	예상과 실제 결과 비교	• 예상 비용 및 기간 • 실제 소요 비용 및 기간
	만족도 정도	• 품질, 비용 및 기간에 대한 만족도
당위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 및 어려운 정도 인식 조사	과정 및 절차 파악	• 필요파악, 설계, 시공, 준공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이해 • 인·허가 절차 및 내용의 이해
	품질, 비용, 기간 예측 및 결정	•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규명
		•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용 예측
		• 예산내에서 적절한 규모, 품질 등을 결정
		• 필요한 비용의 조달방법 결정
	조직구성 및 관리	• 준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파악
		• 건축주 대신 전제과정을 총괄할 대리인 선정
		• 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
		• 시공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
		• 설계자, 시공자 등의 관련자와 계약서 작성
정보취득 행동 양태	정보내용	• 당위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12 종류
	정보원	• 개인건축주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접촉할 수 있는 정보원 8 종류

모집단 및 표본 추출

건축주 관련 연구는 모집단과 표본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누구

나 건축주가 될 수 있고, 해당 유형의 건축주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까지 무작위로 찾아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개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건축주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랜 기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도한 결과 국내에서는 이들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모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의 성명, 주소, 허가 신청 건축물 용도, 건축물규모 및 공사종류 등에 대해 승인된 건축허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에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2개월의 숙의기간 끝에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불가 판정을 통보해 왔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구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역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모집단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불가능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모색했다. 건축주를 프로젝트 초기에 접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건축사사무소의 능력이나 용역 제공 내용에 따라 건축주의 태도 및 행동양태가 편향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건축사사무소를 접촉해 각 사무소별로 소수의 건축주를 무작위로 소개받아야 한다.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주 정보를 획득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명단을 확보한 후 메일 및 전화통화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이 방법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10여 곳의 건축주 명단을 확보했지만 이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경우 앞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최종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열린정부사이트(www.open.go.kr)에 공개된 자료 중 2004년 서울특별시 관내 건축허가 승인 목록을 바탕으로 대지 주소, 대지 면적, 주용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표본을 추출했다. 모집단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표본을 임의로(purposeful) 추출했기 때문에 조사결과 의 통계적 신뢰성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4개 구청에서 공개된 유사 정보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했다.

2006년 6월 400 장의 설문지를 건축주 주소가 아닌 건축허가신청서상의 대지주소에 발송했다. 반송봉투를 이용해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 설문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통한 응답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주의 성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주소로 배달되었기 때문인지 반송된 설문지가 9.8% (39 통)에 달했고 응답률은 2.8% (11 통)에 불과했다. 인터넷을 통한 응답은 1건이었다.

2006년 10월 서울지역 K구 건축대장 사본에서 2004년 건축허가를 득한 1,000건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역시 건축주 성명 및 전화번호는 공개되지 않았다. 1,000건 중에 신축, 증축 허가를 신청한 300건을 선정해 건축주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했다. 반송율은

오히려 증가해 17% (52 통)에 달했고 응답률은 1.7% (5 통) 였다.

응답자 분석 결과 대지 면적은 200~400㎡이 38% 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200㎡ 미만인 31% 가량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건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6명), 공장(1명), 근린생활시설(5명), 업무시설(2명), 기타(2명)로 공동주택이 전체응답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주로서의 경험은 2004년에 처음 경험해 본 건축주가 63%, 2004년 이전 한 두 차례 발주 경험이 있는 건축주가 25%로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많았다.

〈표 5〉 응답자 분석

설문	구분	빈도	백분율
대지면적	200㎡ 미만	5	31.3
	200 ~ 400㎡	6	37.5
	400 ~ 600㎡	2	12.5
	600㎡ 이상	3	18.8
주용도	공동주택	6	37.5
	공장	1	6.3
	근린생활시설	5	31.3
	업무시설	2	12.5
	기타	2	12.5
경험	2004년이 처음	10	62.5
	2004년 이전 한 두 차례 발주	4	25.0
	지속적으로 발주	2	12.5

만족도 분석

Mowen과 Minor(2001)에 따르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최초 예상했던 기대수준에 결과가 어느 정도 근접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건축주의 만족도는 이들이 예상했던 품질, 기간 및 비용에 대해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해 추론할 수 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품질을 제외하고 비용 및 기간의 예상 및 결과를 직접 기입하게 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개인건축주가

〈표 6〉 만족도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

항목	평균값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총비용	3.08	빈도	0	2	9	1	1
		백분율	0.00	15.38	69.23	7.69	7.69
기간	3.00	빈도	1	3	6	3	1
		백분율	7.14	21.43	42.86	21.43	7.14
품질	2.79	빈도	1	6	3	3	1
		백분율	7.14	42.86	21.43	21.43	7.14

최초 예상했던 비용에 비해 평균 14.15% 초과된 비용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은 10% 내외 정도 더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단순 수치 비교 이외에 응답자가 직접 밝힌 만족도는 〈표 6〉과 같다. 비용과 기간은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나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위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분석

〈표 7〉은 예시문항인 12 가지 당위적 행위의 중요성을 개인건축주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다. 〈표 4〉의 조사항목별 예시문항에 대한 답변은 정량적으로 환산되었고¹⁰⁾, 이 점수를 응답자의 빈도에 곱한 후 평균값을 구했다.

〈표 7〉 당위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 인지 정도

당위적 행위	평균값
전반적인 과정 이해	4.13
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	4.13
시공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	4.13
예산 내에서 적절한 품질 및 규모 등을 결정	4.00
설계자, 시공자 등의 관련자와 계약	4.00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용 예측	3.94
건축주 대신 전체 과정을 총괄할 대리인 선정	3.94
인허가 절차 및 내용을 이해	3.88
필요한 비용의 조달 방법 결정	3.88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규명	3.75
준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파악	3.63
언제 누구에게 보고를 받을지 파악	3.63

예시문항별로 평균값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정렬했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정성적인 응답을 정량적으로 환산한 관계로 개별적인 수치 및 이들 간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거의 전 예시문항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개인건축주가 당위적 행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당위적 행위에 대한 어려운 정도 인식 분석

〈표 8〉은 예시문항으로 제시된 12 가지 당위적 행위에 대해 5점 척도로 어려운 정도를 표기하게 한 조사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제시 행위가 어렵다고 인식한 것이다. 표에서는 평균값이 높은 예시문항, 다시 말해 응답자가 다른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낀 것부터 덜 어렵다고 느낀 것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앞 절의 중요성 인식 정도 분석에서 밝힌바와 같이 개별적인 수치 및 이들 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평균값 3 이

10) '전혀 중요하지 않음' 은 1점, '중요하지 않음' 은 2점, '보통' 은 3점, '중요함' 은 4점, '매우 중요함' 은 5점.

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보통 수준보다 더 어려움을 느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산 내에서 적절한 품질 및 규모 등을 결정' 하는 것, '전반적인 과정을 파악' 하는 행위가 비교적 어려웠던 것으로 추론된다.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관련자와 계약을 맺고 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하는 등의 행위는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별적으로 분석된 당위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 및 어려운 정도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표 9>와 같다. 응답자가 많은 경우 예상 비용, 경험과 같은 요인으로 건축주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태도차이를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8> 당위적 행위에 대한 어려운 정도

당위적 행위	평균값
예산 내에서 적절한 품질 및 규모 등을 결정	3.67
전반적인 과정 이해	3.60
건축주 대신 전체 과정을 총괄할 대리인 선정	3.47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규명	3.40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용 예측	3.40
필요한 비용의 조달 방법 결정	3.40
시공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	3.27
준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파악	3.13
인허가 절차 및 내용을 이해	3.07
언제 누구에게 보고를 받을지 파악	3.00
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정	2.87
설계자, 시공자 등의 관련자와 계약	2.87

<표 9> 중요성 및 어려운 정도 인식 종합 분석

구분	내용
과정 및 절차 파악	• 전반적인 과정 파악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됨
품질, 비용, 기간 예측 및 결정	• 비용예측은 중요함에 있어 최고였고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상 프로젝트 기간에 대한 예측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어려운 정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조직	• 설계자 선정은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용역제공자와의 계약은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정보 획득 매개체 의존 정도 분석

<표 10>은 당위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접촉한 매체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접촉한 매체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같은 전문 용역 제공자로 보인다.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전반적인 과정, 인허가 절차 및 내용, 유사 공간의 시설 및 내용, 건축주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 등에 관한 정보를 주로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공자로부터는 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규모 및 품질,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소요

비용에 대한 정보는 설계자보다 시공자로부터 획득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예상비용 이내에서 적절한 규모 및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설계자의 역할과 시공자의 역할이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공자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공자가 아닌 시공업무에 종사하는 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한 정보는 지인으로 대표되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매체,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한 정보 획득은 극히 미약해 개인건축주는 용역제공자, 지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로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정보취득을 위해 접촉한 정보내용별 매체 빈도

정보내용		정보원 및 접촉 빈도							
		찾지 않음	친인척	지인	인터넷	잡지	설계자	시공자	본인 지식
전반적인 과정	빈도	0	1	1	0	0	9	1	4
	%	0	6	6	0	0	*56	6	25
인허가 절차 및 내용	빈도	0	0	0	0	0	12	4	0
	%	0	0	0	0	0	*75	25	0
유사 공간 및 시설	빈도	0	0	1	1	0	6	2	6
	%	0	0	6	6	0	*38	13	*38
비용예측	빈도	0	1	0	0	0	2	10	3
	%	0	6	0	0	0	13	*63	19
비용조달방법	빈도	1	0	1	0	0	0	1	13
	%	6	0	6	0	0	0	6	*81
예산내 적정 규모 및 품질	빈도	0	2	0	0	1	3	4	6
	%	0	13	0	0	6	19	*25	*38
소요기간	빈도	1	0	0	0	0	3	7	5
	%	6	0	0	0	0	19	*44	31
대리인관련 정보	빈도	2	0	2	0	0	5	4	3
	%	13	0	13	0	0	*31	25	19
설계자에 대한 정보	빈도	0	1	7	0	0	1	3	4
	%	0	6	*44	0	0	6	19	25
시공자에 대한 정보	빈도	1	1	7	0	0	2	0	5
	%	6	6	*44	0	0	13	0	31
계약서 내용	빈도	0	0	2	0	0	3	6	5
	%	0	0	13	0	0	19	*38	31
보고시점 및 내용	빈도	1	0	1	0	0	5	0	8
	%	7	0	7	0	0	33	0	*53

맺음말

건축주의 책임 및 당위적 행위는 세부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다. 건축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부수준의 당위적 행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보유 정도는 건축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건축주 관련 연구의 어려움, 국내 연구 인력 및 기반의 미비로 다양한 건축주 유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유형 중 민간 법인 건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다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주 고객일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개인건축주에 대한 조사 방법과 결과를 제시했다. 비록 저조

한 응답률로 인해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인건축주의 일반적 태도 및 행동양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일부 결과는 특정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건축주가 예상한 것에 비해 실제로는 15%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10% 내외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비용, 기간 및 품질에 대해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건축주 집단은 당위적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보통 이상 수준에서 인지하고 있고, 이를 평이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위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로 설계자를 통해 획득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을 예측하는데 설계자보다 시공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건축사가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이의 비용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건축주의 설계용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건축주간의 정보공유를 지원해 우수한 용역제공자만이 시장에서 생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건축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주(혹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라고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프로젝트의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과하기 쉽다. 건축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건축프로젝트의 성공은 정해진 기간과 예산내에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품질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도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주가 점유 혹은 이용하면서 건축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 이점에서 건축주가 프로젝트 초기에 가장 먼저 접하고 각종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있음은 틀림없다. 건축사는 또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건축주에게 인도되어 사용 중인 시설물의 사후 평가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어 이를 유사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굳이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라 칭하지 않아도 독립적인 영역에서 진정으로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건축주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건축사가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론화 시킬 시기가 온 것 같다. 이 용역이 건축주 브리핑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김주형, 윤성명, 이수용, '국내건축주 분류 및 유형별 태도/행동 조사 - 개인 건축주 대상 연구 보완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8(4), 2006, 123-130
- 2) 김주형, '건축주를 위한 지식흐름 활성화 방안 - 이론적 배경 및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2(4), 2006, 135-143
- 3) 김주형, '건축주 브리핑의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 대한건축학

- 회지 건축, 49(4), 2005, 4, 35-38
- 4) 김주형, '건축주 브리핑의 이론적 고찰 및 이의 국내 수행 방향 제언',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5(3), 2004, 79-87
- 5) 김주형, '영국의 건축주 관련 연구 고찰 및 이의 국내 수행 방향 제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3), 2004, 125-134
- 6) 김주형, '건축주에게 눈을 돌리자 -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동향', 한국건설관리학회지, 2002, 12
- 7) Blyth, A. and Worthington, J. "Managing the Brief for Better Design", Spon Press, London, UK, 2001.
- 8) Rowlinson, S. (1999) A definition of procurement systems, In Procurement Systems: A guide to best practice in construction, Rowlinson, S. and Mcdermott, P. (eds), E&FN Spon, London, pp. 27-53.
- 9) CIOB (1980) Building for Industry and Commerce Clients Guide, CIOB, Ascot.
- 10) CIOB (1992) Code of Practice for Project Management for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IOB, Ascot.
- 11) CSSC (1991) Construction Management Forum, CSSC, Univ. of Reading.
- 12) Higgin, G. and Jessop, H. (1965) Communications in the Building Industry, Tavistock Publication, London.
- 13) Goodacre, P. E., Pain, J., Noble, B. M. and Murray, J. (1982) Client Aid Program, Occasional Paper No.5, Dept. of Construction Management, Univ. of Reading.
- 14) Mowen, J. C. and Minor, M. S., Consumer Behavior: A Framework, Prentice Hall, London, 2001.

이 영 수

정회원, 본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주)건축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soo, KIRA

AIA 2007 Convention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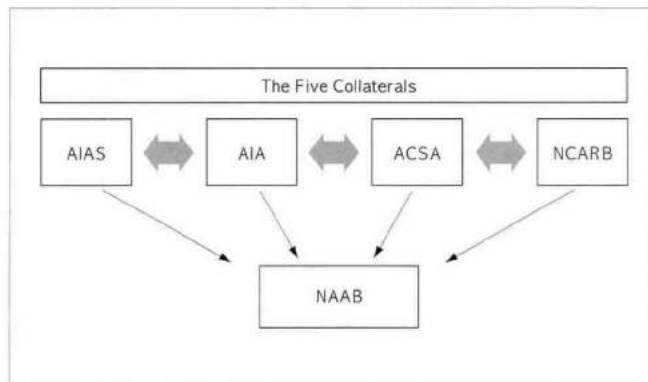
Attending AIA 2007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1857년 창립된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가 15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의 Texas-San Antonio에서 2007년 5월 3일 개최, 3일간 진행되었다.

AIA는 1956년에 설립된 건축학 학생들의 단체인 AIAS(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s)와 건축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1912년에 설립된 건축대학연합인 ACSA(The Association for Collegiate School of Architecture) 그리고 미국 각주의 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의 전국적인 표준으로서의 연방건축사등록위원회인 NCARB(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 등 4개의 단체들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건축학교육 인증원인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가 건축학교육의 기준 유지와 건축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1919년에 설립되었다.

AIA 2007 Convention Final Program 에서 밝히고 있듯이, AIA는 80,000여명의 각주(state)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AIA회원들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건축주(client)와 공공(public) 그리고 동료 건축사들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킬 것과 최고 수준의 실무를 지향하고자 설립된 건축사들의 유일한 단체이다.

San Antonio는 미국 남부 Texas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뜻한 기후와 관광객을 위하여 잘 개발된 시내를 관통하는 강,



AIA회원 ID카드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로 일 년 내내 각종 convention이 열리고 축제가 있는 관광도시이다.

향후 3년간 AIA Convention 개최에 대한 Schedule이 Final Program 책자에 나와 있듯이

Boston----- May 15-17, 2008
San Francisco----- April 30-May 2, 2009
Miami----- June 10-12, 2010

전국을 지역별로 거쳐 가면서 AIA Convention이 열리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1990년부터 AIA회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ARCASIA회장인 이근창 전부회장이 AIA회장 초청으로 AIA 명예회원증을 수여 받기 위해, 전 국제위원회 담당이사며 현정 책위원장인 본인이 AIA와 공식교류협정체결에 대한 협의와 향후 건축사등록원 설립과 계속 교육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AIA Convention은 각종 건축 관련 제품 등의 전시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AIA회원들은, Convention동안 제공되는 계속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s)과 유익한 건축 관련 제품에 대한 최신정보 때문에 약

30,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Convention은 AIA설립 150주년이 되는 해로서 AIA와 AIA San Antonio Chapter(San Antonio 건축사회)가 가치 있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to achieving valuable, healthy, secure, and sustainable communities)

5월2일부터 5일까지 열린 Convention 기간 중에는 회장 및 임원 선거와 정관개정 등을 위한 회의와 건축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아래 지속가능성의 과학(The "science" of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의 실천(The "practice" of sustainability) 그리고 Albert Gore 전 미부통령이 발표한 지속가능성에의 도전(The "challenger" of sustainability)라는 3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열린 강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Convention에는 계속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현장견학 (Professional Tour), 동반자 관광(Guest Tour) 그리고 교류 및 총회행사(Networking/Business Event)라는 4개의 분야에 400여 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3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때문에 선택적으로 참석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었다. Convention개최 몇 개월 전부터 홍보 및 각 프로

Theme Presentations The expert theme presentations offer an in-depth look at the latest in sustainable design, building, and construction. Each presentation is a unique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best in the industry. THURSDAY, MAY 3 051 The "Science" of Sustainability Henry R. Gonzalez, Executive Director, GreenSource Inc. 052 The "Practice" of Sustainability Henry R. Gonzalez, Executive Director, GreenSource Inc. FRIDAY, MAY 4 053 The "Practice" of Sustainability Henry R. Gonzalez, Executive Director, GreenSource Inc. SATURDAY, MAY 5 054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Henry R. Gonzalez, Executive Director, GreenSource Inc.	Continuing Education Throughout this year's convention, real-world accomplishments in applying high performance, sustainable design will be discussed by highlighting tangible methods, materials, and case studies in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Presentations will feature those who are leaders in sustainability and introduce emerging professionals who are ready to reach new heights of achievem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will acknowledge the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n ethics that is global-based, not just United States-based. Growing Beyond Green will be understood as a perpetual journey—not a destination. ENTRY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are new to the field,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INTERMEDIATE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hav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ADVANCED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hav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CEU CREDIT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PROFESSIONAL TOURS Join the AIA San Antonio Chapter for a day of professional tours that offer you a unique opportunity to see the latest in sustainable design and construction. Each tour is a unique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best in the industry. RECOMMENDED FOR YOUNG ARCHITECTS The following professional tours are recommended for young architects who are new to the field. Each tour is a unique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best in the industry. ADMITTANCE TO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ND RECORDING LUS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LEARNING LEVELS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ENTRY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are new to the field,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INTERMEDIATE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hav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ADVANCED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hav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CEU CREDIT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More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CEU CREDIT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ADMITTANCE TO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ND RECORDING LUS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LEARNING LEVELS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ENTRY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are new to the field,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INTERMEDIATE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hav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ADVANCED LEVEL Designed for those who hav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is level of continuing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CEU CREDIT Each presentation is designed to provide 1 CEU credit.
--	--	---	---



ID카드 리더기



AIA information

그럼에 대한 등록을 미리 받기 때문에 유익하고 인기 있는 유료 세미나와 현장견학은 매진이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친환경건축의 실제 사례 등 현장견학은 높은 계속교육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았다.

이번 Convention에서는 건축사가 주로 하는 디자인빌드(Architect-led Design-Build: A Practical Business Plan) 등 설계자가 시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며 시공자와 설계/감리자와의 공사기간 동안의 잦은 소송 등을 겪지 않고 설계자가 책임시공을 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많아져서 추후 어려운 우리 건축시장의 타결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강의나 현장견학에 참가하기 위해선 ID카드에 성명, 소속 그리고 AIA회원인 경우 회원번호 등이 전면에 표시되어 있고, 뒷면의 마그네틱에는 기타 자세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어서 카드 리더기에 입력을 시킨 후 입장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 교육이수 학점 등이 자동 입력이 되며 즉시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모든 강의 및 프로그램은 추후 참가자들이 평가를 하며, 주최 측에서 참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성실하게 강의하려고 하는 모습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는 청중들의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게 느껴졌다. 향후 건축사법개정에 의한 건축사등록원이 발족하고, 모든 건축사들은 건축사등록원에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교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AIA본회와 지부(Chapter)가 대표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자이며, 그 외에도 연방건축사등록위원회(NCARB) 및 수많은 설계회사, 자재회사, 시공회사, 연구소 등 건축 관련 업체들이 계속교육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AIA Convention에서는 건축실무에 유익한 많은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자재전시와 함께 계속교육은 Convention 참석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Convention 환경을 창조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계속교육 세미나들을 위한 자료인쇄물은 현장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세미나 내용은 on line으로 미리 검토할 수 있으며, 총회 중에 해당 세미나의 내용을 AIA Information Desk에서 안내하는 가까운 business center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다. 또한

총회가 끝난 후 세미나 발표 자료들을 CD-ROM으로 주문 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세미나들은 AIA e-Classroom으로 인터넷 접속하여 볼 수도 있다.

실생활의 높은 실행력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과 자료들과 사례연구들을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계속교육프로그램들의 참석과 그 외 교육적인 이벤트, 자재전람회 그리고 현장견학(Professional Tour)을 하기 위해선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EXPO EDUCATION(자재전시 교육)이라 하여, 건축 관련 자재 전람회에서 AIA로부터 인가 받은 업체들은 각자의 부스(booth)에서 관람자들에게 현장에서 20분 내외의 제품 등에 대한 선전 및 교육을 한 후 퀴즈시험을 해서 75%이상 성적을 받으면 0.25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각주에서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Health, Safety and Welfare: HSW)에 해당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AIA San Antonio 지부는 60개가 넘는 현장견학코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계속교육학점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회 측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에 오고 가는 그 시간을 포함하여 교육 시간으로 산정하여 주었으며, 유료인 몇몇의 견학코스는 수백 불의 고가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찍 예약하지 않으면 참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계속교육은 난이도에 따라 입문,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IA회원에게 일 년 동안 부과된 8시간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HSW프로그램에는 표시가 되어있어 과목신청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계속교육학점과 상관없이 방문객을 위한 현장견학(Guest Tours)코스들도 있어서 총회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총회관련행사들(Network/ Business Event)은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휴식을 위하여 교육과는 별도로 열렸다. 그 중의 몇 개의 행사

AIA EXPO 2007 전경



들을 소개하면, 미 공군건축사 워크숍(U.S. Air Force Architects Workshop), AIA 조찬 기도회(AIA Prayer Breakfast), AIA 역대 회장과 부인들의 점심식사(AIA Former President and Spouses Luncheon)와 건축대학들의 동창회 모임들(Alumni Reception)을 포함하여 70여 개의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었다.

2007년도 건축산업박람회(AIA EXPO 2007)에는, 800여 개의 기업들이 6,000평 가까운 면적에 새로운 제품들,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건설 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곳에서 동시에 보여 주고 있었다. 주요 전시들로서는 AIA EXPO 2007 Pavilions에 4개의 집약된 코너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Software and Technology Pavilion에는 American Reprographics Systems, Building Systems Design Inc, 그리고 Hewlet Packard Company 등으로 구성 되어있고, Kitchen and Bath Pavilion에는 Delta Faucet Company, Kraftmaid Cabinetry Inc, Moen Inc, 그리고 Toto USA 등으로 구성 되어있고, Lighting Pavilion에는 B-K Lighting, Ivalo Lighting Inc, and Lucifer Lighting으로 구성 되어있고, Stone and Tile Pavilion에는 Natural Stone Council, Italian Trade Commissions of New York City and Los Angeles and Tile of Spain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AIA EXPO 2007 Trivia Challenge에서는 총회 등록 시 참석자에게 나눠주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에 기입하여 제출하면 상당한 상품들이 당첨되는 행운도 있게 하여 조금이라도 산업박람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AIA Town Square에서는 최신의 Toyota Prius 자동차에 당첨 될 수 있는 행운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는 장소와 e-mail과 총회에 참석

한 계속교육(CES)학점표 등을 체크하고 차기 AIA회장을 뽑는 투표에 참가 할 수도 있었다. 현장에서 AIA회원 가입을 원하는 건축사들에게는 AIA회원들에게 제동되는 서비스들과 질문들에게 답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매년 30억불이상의 예산을 연방정부 관련(Federal Agency Connection) 설계와 시공 및 수많은 계약의 기회 등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AIA회원들은 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보훈처(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그리고 체신부(U.S. Postal Service) 등에서 나온 관계자들과 20분 정도의 상담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축사법 개정에 의한 건축사등록원 설립과 함께, 더 경쟁력 있고, 많은 건축사들이 회원 가입을 원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AIA가 2007 Convention에서 보여준,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특히 재정자립을 위하여 건축산업전시회를 수익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방법 등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 관련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산업전시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협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건설사들이 설계까지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건축설계 시장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AIA 2007 Convention 에서 보여진 것같이 회원들을 위한 깊은 배려와 진지함으로, 건축사의 업역 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축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6회 이사회

2007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재경위원회규정 제정 승인의 건, 건축문화발전기금운용규정 개정 승인의 건,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 연구용역 승인의 건, 건축물유지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 승인의 건, 회관 다목적실 용도변경 및 용역발주 승인의 건,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직원징계 승인의 건,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따른 주최/주관 승인의 건이 논의되었고, 협의사항으로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설립추진에 따른 조치의 건과 건설업체 설계업 특혜요구 관련 대응에 관한 건, 질의회신집 발간에 관한 건, 일반회계 홍보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제5조(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담당 위원장이 수정·보완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재경위원회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제5조 '6호'를 '7호'로 변경하고 '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되,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 : 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호의안 : 건축문화발전기금운용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 연구용역 승인의 건
 -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

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하고, 연구기관 선정은 담당이사 및 위원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5호의안 : 건축물유지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회관 다목적실 용도변경 및 용역발주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함.
- 제8호의안 : 직원 징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따른 주최/주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가.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 나. 주 관 : 부산광역시건축사협회

▲협의사항

- 제1호 :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설립추진에 따른 조치의 건
 - 조치계획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함.
 - 단체 통합논의는 지속하되, 단체간 합의대로 협회 대표자를 기존 3인(전영철, 백민석, 이영수) 이외에 2인(조총기, 이재림)을 더 추가하기로 함.
- 제2호 : 건설업체 설계업 특혜요구 관련 대응에 관한 건
 - 건설업체 설계업 특혜요구 대처에 관한 사항은 이미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제3호 : 질의회신집 발간에 관한 건
 - 발간사업을 추진키로 하되,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한 후 수지·타산 여부 및 예산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 : 일반회계 홍보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
 - 일반회계 홍보사업비 중 법제도개선사업 대외협력비를 회장이 집행하기로 함. 다만,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부회장단과 감사의 자문을 얻어 집행하기로 함.

제3회 임시이사회

2007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징계직원 재심청구에 관한 건 이 논의되었고, 협의사항으로 FIKA 실무위원 추천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기로 함.

구 분	인 원	구 성
위원장	1인	- 부회장중 선임
위 원	10인	- 우리협회 회원(5인) - 건축가협회(2인), 건축학회(2인), 새건축(1인)
전문위원	4인	- 건설교통부(2인) - 시민단체(1인), 변호사 또는 법대교수(1인)

-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기로 함.
- 다만, 타단체 위원 및 전문위원은 해당기관에 추천의뢰
- 제2호의안 : 징계직원 재심청구에 관한 건
-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FIKA 실무위원 추천에 관한 건
- 심재호 이사, 이근창 아카시아회장을 추천하되, 이근창 회장의 일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류춘수 부회장을 추천기로 함.

위원회 회의

■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7월 3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사 설계업 허용추진에 따른 대처의 건,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설립추진에 따른 조치의 건,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전 추진 협조에 관한 건,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연구를 위한 협조의 건,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사 설계업 허용추진에 따른 대처의 건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상황실을 설치한 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비상대책위원이 1일 한 명씩 상주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세부실행계획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속히 수립 추진
- 제2호 :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설립추진에 따른 조치의 건
- 지난 6월 이사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진행추이에 따라 회장단회의에서 조치하도록 함.
- 제3호 :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 정회원(월정)회비를 3년(36개월)이상 장기미납한 회원을 제명하기로 함.
- 추후 정관개정시에는 2년이상 미납 회원을 제명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전 추진 협조에 관한 건
-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회장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제5호 : 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연구를 위한 협조의 건
- 본협회에서는 필요로 하는 조사양식을 만들어 송부하고, 각 시.도건축사

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 제6호 :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지역적 특성과 장점이 연구결과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기타사항

-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자료와 국무조정실의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 자료를 각 시.도건축사회에 송부하기로 함.
- 서울건축사회 주최 서울시장 초청강연회(7/23)에 참석해 주도록 요청함.
- 몽골건축사협회 방문(7/26~7/30)에 가급적 많이 동참해 주도록 요청함.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심사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심사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가칭) '설계심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내용 중 '설계심사원 설립'에 관한 장을 두어 설계심사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

■ 제3회 정책위원회

제3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심사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심사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가칭)설계심사원 설립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 회원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 (가칭)건축·도시 환경 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

■ 제10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제10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케팅 전략 협의에 관한 건, 건축사사무소 참가유치 설명회 협의에 관한 건, 유사전시회 관람(대한민국건설대전2007) 협의에 관한 건, 대기업홍보관 참가유치 협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마케팅 전략 협의에 관한 건
 - 이철호 조직위원장, 강석후 위원장, 박진훈 위원, 홍훈표 위원, 유대근 위원, 이규환 위원이 각 업무에 대해 협의함.
- 제2호 : 건축사사무소 참가유치 설명회 협의에 관한 건
 - 7/3(화), 14:00, 3층 국제회의실 - 200개 건축사사무소 대표 참석요청
- 제3호 : 유사전시회 관람(대한민국건설대전2007) 협의에 관한 건
 - 대한민국건설대전 및 SEK(국제전자전) : 코엑스(6/20~22)
 -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관람하고 정보 수집 및 홍보 활동(테마별로 분배)
- 제4호 : 대기업홍보관 참가유치 협의에 관한 건
 - 대기업의 참가 유치 및 후원금을 협찬할 수 있도록 회장, 이철호 조직위원장, 이철호 조직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

■ 제11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제11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케팅

현황 보고 및 전략 협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마케팅 현황 보고 및 전략 협의에 관한 건
 - 백민석 담당이사, 강석후 위원장, 박진훈 위원, 김지한 위원, 신현기 위원, 유대근 위원, 이규환 위원, 홍훈표 위원이 각 업무에 대해 협의함.
- 제2호 : 건축사사무소 참가유치 설명회 개최에 관한 건
 - 7/3(화), 14:00, 3층 국제회의실 : 시아플랜, 삼풍엔지니어링, 현종설계, 동일건축 참석(공정적 검토)

■ 제7회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회 기획위원회 회의록 회의가 지난 6월 20일 오전 7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위원 정책제안 과제에 관한 협의와 위원회 정책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한국건축사협회' 설립 대처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기획위원 정책제안 과제에 관한 협의
 - 회원 및 협회의 정체성에 대한 제고, 협회업무 및 직원 업무개선방안(제안자 : 조충기 위원)과 '법원감정 연구회' 발족(제안자 : 김형수 위원)에 대해 논의함.
- 제2호 : 위원회 정책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 각 정책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함.
- 제3호 :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법건축계의 대통합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혁신정관'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개정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키로 하고, 동 위원회 구성

(안)을 보완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한국건축사협회' 설립 대처에 관한 사항

■ 제8회 기획위원회

제8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기획 추진점검과 함께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연구원 설립방안을 정책위원회에 정책과제로 제안하여 마련토록 요청키로 함.

▲기타사항

- 기획위원회 정책 및 기획과제 업무분장 건
 - 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주요 정책·기획과제의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위원별로 업무를 분담키로 함.
 - 각 위원은 담당한 과제의 추진현황 점검 또는 추진방안 마련과 필요시 소관위원회에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제2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회의

제2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회의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대처방안에 대한 협의
 - 비상대책위원회 명칭을 현실화하기로 함.(구체적인 명칭은 다음회의에서 논의)
 - 행정연구원과 의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함.(박찬정 이사 주선)
 -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우선 건축설계 교수를 통해 연구,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로 함.

■ 제2회 교육·시험위원회

제2회 교육·시험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계획 수립, 건축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협의, 연수교육 설문에 대한 협의와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계획 수립
 - 2007년도 연수교육은 한국건축산업대전(10. 2~6)과는 별도로 실시하기로 함.
 - 연수교육 시기 및 장소
 - ▷ 시 기 : 9월
 - ▷ 장 소 :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
- 제2호 : 건축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협의
 - 협회에서 정해진 교육시간에 맞춰서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사업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시간 20분 분량의 교육을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연수교육 설문에 대한 협의
 - 설문서에 2007년도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한 후 2008년도 연수교육 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기타사항

- 연수교육 계획을 조속히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집)

제2회 법제소위원회(질의회신집) 회의가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과업계획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과업계획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과업계획 및 지원금에 대해 논의함.

■ 제2회 법제소위원회(주택건설공사감리)

제2회 법제소위원회(주택건설공사감리) 회의가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공사감리 및 조사검사업무 관련 간담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제5회 법제위원회

제5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리제도(주택건설공사감리/현장조사검사업무확인업무) 관련 건축법령 정비에 대한 간담회,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감리제도(주택건설공사감리/현장조사검사업무확인업무) 관련 건축법령 정비에 대한 간담회
 -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법체계 및 상호간의 모순 및 감리제도의 운영의 모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법제소위원회(주택건설공사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제2호 :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
 -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주최하는 회의(7/2, 14시)에 전영철 이사, 조충기 위원장, 김상호 위원, 류치열 실장이 참여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함.
 - 규제개혁기획단에 간담회를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
 - 감정업무 관련 사항

■ 제5회 국제위원회

제5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주제선정 등에 관한 건, UIA PPC 회의 개최에 관한 건,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에 관한 건, 한중일 건축사협회 개최에 관한 건, AIA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건, 각국 건축사 등록기준 및 법령 수집·번역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주제선정 등에 관한 건
 - 대회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는 포괄적 주제를 선정하되, 소주제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기로 함. 대회주제에 관한 의견을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6.24(일)까지 신춘규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호 : UIA PPC 회의 개최에 관한 건
 - UIA PPC 회의 관련사항(초청연사 섭외, 건축물 탐방장소 등)은 UIA PPC 회의 집행위원회(위원장: 심재호 이사)를 구성한 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에 관한 건
 - 한·몽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오근석 위원이 발표주제 및 발표자 등을 6.27(수)까지 신춘규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제안하기로 함.
 - ▷ 참가 방문단은 심재호 이사, 신춘규 위원장, 오근석 위원을 포함할 것을 제안키로 함.
- 제4호 :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 지난 제10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의사록의 일정에 따라 이성란위원이 내용을 준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AIA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건
 - 한국건축가협회(KIA)와 미국건축사협회(AIA) 간 체결된 협정서를 입수하여 우리 협회와 미국건축사협회(AIA) 간 교류협력 방안에 관하여 이영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출키로 함.
- 제6호 : 각국 건축사 등록기준 및 법령 수집·번역에 관한 건
 - 현재 국내 및 협회에 조사 및 공개되어 있는 관련 번역자료 등을 우선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자료수집 업무를 추진키로 함.
 - ▷ 민규암 위원이 작성중인 건축관련 해외 정보통신원 운영방안은 검토안을 조속히 접수하고 민규암 위원이 실행방안을 계속 검토키로 함.

▲기타사항

- 한·미 FTA 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장이 취합하여 제출키로 함.
- 협회 영문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함.

- 협회 홈페이지 Main 화면에 국제위원회 게시판 구축을 관련부서에 요청하도록 함.

- 차기 회의는 8. 8(수) 10:00에 개최하기로 함.

■ 제6회 건축문화신문 편집회의

제6회 건축문화신문 편집회의가 지난 6월 25일 오후 4시 본협회 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원 총원의 건, 건축문화신문 20, 21, 22, 23호 기획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직원 총원의 건
 - 직원총원의 건은 정직원, 계약직 중 회장의 결정을 받아 채용하되, 채용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임시직을 총원하여 임시 운용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신문 20, 21, 22, 23호 기획의 건
 - 건축문화신문 20, 21, 22, 23호에 대해 기획 함.

▲기타사항

- 오피니언 등 원고를 청탁 시 15매로 규정한 원고매수가 너무 많으므로 앞으로는 13매로 청탁키로 함.
- 리모델링협회 우돌출 광고 게재 - 장현숙 위원
- 강태웅 위원이 앞으로 '가칭 건축속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호로 6회분 정도의 원고를 작성키로 함.
- 1주년 특집 관련 '평균건축사' 설문조사 항목은 각 위원들이 좀 더 검토한 뒤 취합하기로 함.
- 면직된 황현철 대리의 인수인계는 최락청 팀장이 받기로 하며, 아르바이트를 총원하기 전까지 장양순 국장과 이홍식 실장, 최락청 팀장이 업무를 진행토록 함.

■ 제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회의

제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회의가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본협회 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호 평가의 건, 부산건축사회 건축사신문 예산지원의 건, 논설위원 확정 및 위촉의 건, 편집위원 위촉의 건, 광고국장 및 신문담당 직원 채용의 건, 인쇄소 결정의 건, 업무분장의 건, 기자 선임의 건, 창간 특집의 건, 21, 22, 23호 계획의 건, 차기 회의 날짜 확정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호 평가의 건
 - 20호를 평가 함.
- 제2호 : 부산건축사회 건축사신문 예산지원의 건
 - 부산총무50.1-324' 건축사신문 예산지원 건의 관련 장양순 편집국장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결재 후 발송토록 함.
- 제3호 : 논설위원 확정 및 위촉의 건
 - 논설위원을 위촉키로 하고 최종결정은 회장과 백민석 이사에게 위임함.
- 제4호 : 편집위원 위촉의 건
 - 위원을 위촉키로 함.
- 제5호 : 광고국장 및 신문담당 직원 채용의 건
 - 광고국장은 건축사를 임용하여 인센티브제로 운영하고, 담당직원은 정직원과 현재 신문발간 비용을 절약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으로 매킨토시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요청키로 함.
 - 6호의 안 참조, 백민석 위원장이 회장과 아웃소싱 방법 등 최종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키로 함.
- 제6호 : 인쇄소 결정의 건
 - 첫 번째 방안 : 디자인 능력을 갖춘 인쇄소를 선정하여 신문 편집 디자인과 일정 업무를 인쇄소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단점, 다소 가격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두 번째 방안 : 현재 거래중인 '한국

CTS'처럼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고, 절약된 금액으로 매킨토시 운용 및 디자인 능력을 겸비한 계약직을 고용하여 신문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홍보편집팀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3, 4, 5, 6호의안 결정은 차기 회의시까지 회장의 결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 제7호: 업무분장의 건
 - 업무를 각 위원과 함께 분장함.
- 제8호: 기자 선임의 건
 - 활동이 저조한 기자를 선별하여 교체하기 위해 각 위원들에게 명단을 발송하여 체크토록 하고 다음 회의전까지 결정하기로 함.
- 제9호: 창간 특집의 건
 - 평균 건축사선정 설문지를 시도건축사회로 보내지 말고 협조문 형식으로 각 44명에게 직접 보내기로 하되,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설문자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11일 이내에 발송하고 25일까지 취합할 수 있도록 함.
- 제10호: 21, 22, 23호 계획의 건
 - 21, 22, 23호를 계획함.
- 제11호: 차기 회의 날짜 확정 of 건
 - 오는 7월 13일 오후 4시에 편집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기타사항

- 현재 국내외 매스컴들의 건설관계 소식을 취합해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건설'을 요약 정리하여 '건축계 소식'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무료기증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 잡지를 유료구독하기로 함.

■ 제5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제5회 회관건립백서발간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건립백서 교정 및 검수에 관한 건, 회관 조경보완공사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회관 건립백서 교정 및 검수에 관한 건
 - 회관건립백서 2차 교정본에 대한 내용 감수를 박무길 이사가 실시하기로 하고, '07.6.29(15시) 김순명 위원장과 함께 검토하기로 함.
 - 회관건립백서 2차 교정본을 '07.7.3 개최되는 시·도건축사회장 회의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교정하여 발간하기로 함.
- 제2호: 회관 조경보완공사에 관한 건
 - 조경보완공사 수정 설계(안)에 대해 같이 심사위원회 요청사항의 반영내용을 검토함.

▲기타사항

- 회관 다목적실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부 공사는 최대한 공사비용을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용역업체(우슬재건축)와 협의토록 함

■ 제1회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소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행사운영계획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 요청사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행사 운영계획에 관한 건
 - 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행사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함.
- 제2호: 서울건축사회 요청사항에 관한 건
 - 전국 중고생 및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에 최우수상인 대상을 건설교통부장관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을 논의함.

■ 제1회 공제사업소위원회 (운영세칙마련 소위원회)

제1회 공제사업소위원회(운영세칙마련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사업 운영세칙(안)에 관한 협의와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공제사업 운영세칙(안)에 관한 협의
 - 공제규정 및 보증업무 운영세칙의 10개 운영세칙(안) 초안을 각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보완·삭제할 사항 등 문제가 되는 중점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차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 아울러, 손해배상공제업무 운영세칙(안) 마련을 위해 각 위원들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타 단체의 자료수집에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운영세칙 마련 '제1소위원회'는 7월 중 2번 정도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안)을 확정, 본회의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기로 함.(제2차 회의: '07. 7. 13, 17시)
- 제2호: 기타 논의내용
 - 공제사업에 연금사업도 함께 고려.
 -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

■ 제2회 정보위원회

제2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5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논의 사항과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건
 -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방향으로 소위원회에서 세부

적으로 검토하여 설문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함.

-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정보위원회 소위원장에 안종성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3~5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세부일정 및 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개선·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안) 수립 등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홈페이지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함.

■ 제3회 교류협력위원회

제3회 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6일~7일 양일간 대구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젊은 건축사 인규베이팅의 건, 회원교류증진(대내)의 건, 봉사활동 활성화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젊은 건축사 인규베이팅의 건
 - 젊은 건축사의 ‘기준’과 ‘홍보전략’ 등을 협의함.
- 제2호 : 회원교류증진(대내)의 건
 - 회원간의 교류증진 방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증진을 협의함.
 - 온라인상으로만 교류증진하는 방법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방법도 같이 병행하여 교류하기로 함.
 - 본 협회 홈페이지에 2~3분 분량의 동영상 제작하여 게재
- 제3호 : 봉사활동 활성화의 건
 - 건축사의 이미지 제고가 절실하며,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현재 각 시·도건축사회의 봉사활동 사례를 본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협의함.
 - 성금기탁 및 장학사업은 제외시키고 건축사의 실질적인 봉사활동 사례를 다시 한번 취합하고자 협의함.

▲기타사항

- 차기회의는 9월에 개최기로 협의함.
- 회원 중 학교강의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회의 시 활용함.

■ 제3회 홍보편찬위원회

제3회 홍보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캐치프레이즈(슬로건) 선정에 관한 건, 홍보브로셔 제작에 관한 건, 건축문화대장정(초·중·고등학생 및 국민 대상) 시행에 관한 건,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건, 전국홍보위원회 조직에 관한 건, 대회원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건, 협회 인적관리 시스템 조직에 관한 건, 7080나눔콘서트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협회 캐치프레이즈(슬로건) 선정에 관한 건
 - 협회 슬로건은 공모(회원, 건축학과 학생)를 통해 선정하고, 슬로건과 함께 사용할 CI는 기존 협회 CI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 ▷ 본 협회 및 전국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 전국 건축학과에 슬로건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금(1등 100만원·2등 50만원·3등 30만원)·공모기간(7월 20일까지)·슬로건의 활용범위(문서, 봉투, 차량 스티커 등) 등 상세 공모관련 추진은 왕한성 위원이 담당 진행함.
 - ▷ 기존 CI와 별도로 또 다른 CI를 제작할 경우 이미지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사회 검토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김지호 위원 담당)
- 제2호 : 홍보브로셔 제작에 관한 건
 - 박홍근, 노종식, 박일경 위원이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함.
 - 홍보브로셔는 홍보대상(대국민·해

외·회원)을 구분해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지 위주의 핵심내용만 수록한 4page ~ 6page분량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3호 : 건축문화대장정(초·중·고등학생 및 국민 대상) 시행에 관한 건
 - 각 지역건축사회 건축기행답사 실태를 조사하여 백승기, 정연환, 송일영 위원이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건
 - 최광수 홍보편찬위원(라이너스 리더보컬)을 본 협회 홍보대사로 선정하는 것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제5호 : 전국홍보위원회 조직에 관한 건
 - 2007년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안건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6호 : 대회원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건
 - Email 혹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주일 1회 회원들에게 협회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 서울지역은 김규성 위원장이 각 시도건축사회는 해당 홍보관련위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함.
- 제7호 : 협회 인적관리 시스템 조직에 관한 건
 - 대회원 서비스제고를 위해 건축관련 국회, 지자체 공무원 리스트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정보위원회에 협조요청하기로 함.
- 제8호 : 7080나눔콘서트 개최에 관한 건
 - 최광수 위원이 작성한 콘서트기획안을 전국건축사대회(정동덕 위원) 및 전국건축사 축구대회(김지호 위원)와 연계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6월의 건축환경문화, '밀알학교'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는 장애인 특수학교이자 교회시설인 '밀알학교'를 6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하였다.

밀알학교는 교회와 학교를 창의적으로 계획하면 같은 재원을 보다 풍부하게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장애인 학교라는 이유로 수많은 민원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접근성이 불리하게 배치되었으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 뒤편 경사지에 산책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기후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의 한편을 막아서 아트리움을 만들어 위로부터 자연채광이 되도록 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체육관과 공연장, 카페와 같은 휴게공간은 도로변에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이 쉽도록 배려하였다. 밀알학교는 지역사회에 문턱을 낮추고 개방된 문화시설로의 시도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사회와 윈윈 전략 혹은 시너지 효과를 거둬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히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창의적인 건축공간 설계로 열린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번 6월의 건축환경문화로 '밀알학교'가 선정된 것은, 설계의 창의성과 건축의 완성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결집하고 소통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관계자는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제2회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자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심우갑)는 지난 6월 29일 서울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홀에서 제2회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원로 조경작가인 이교원 선생의 기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본 대상은 환경건축과 조경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국내 최고의 친환경 건축·조경상이다.

시상은 세 부문으로 환경건축부문, 조경부문, 논문부문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수상작 전시와 더불어 '친환경 건축·조경의 패러다임과 해외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 환경건축부문

－대 상 : 신동재 (주. 다울건축사사무소 대표) / 고리 스포츠 문화센터-한국수력원자력(주)

· 지역지원시설

－우수상 : 김정식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 수도권 광역 상수도 통합운영 센터

· 조경부문

－우수상 : 진양교, 류지현(CA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대리) /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공사



조경부문_진양교, 류지현



지역지원시설_김정식



환경건축부문_신동재

· 논문부문

- 논문상 : 이현우(광운대 교수) / 투명 태양전지를 적용한 모듈화된 경사형 이중외피시스템의 건물부하 저감성능과 건축물 적용가능성 예측 연구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1~4

2007년 민건협 여름건축캠프

- 제목: 우리시대의마을만들기-효동마을에서
- 일시: 2007년 8월 15일(수)~8월 18일(토)
- 장소: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
- 학교장&자문: 윤의식(수림건축사사무소), 박훈영(아름건축사사무소)
- 튜터: 건축_양상현(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김의용(동명정보대 건축학과), 김주경(오브제건축사사무소), 임상진(디자인그룹오즈), 진성일(경원위치 건축사사무소)/ 조경_이동홍(환경설계사무소 C&L, 조경가)/ 미술_이현영(공주대, 상명대 강사, 설치미술가)
- 특강: 시인 김용택
- 공연: 불림(전남지역 교사 풍물패)
- 참가비: 10만원
- 문의: 02-6447-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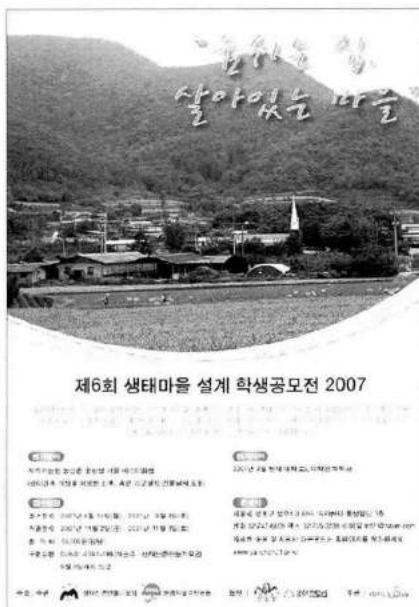
www.mingunhyup.or.kr,

www.blog.naver.com/mingunhyup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제6회 생태마을 설계 학생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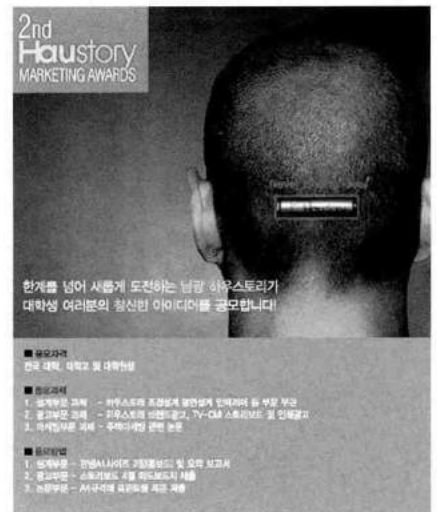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이 생명의 숲과 함께 산림청, 유한킴벌리의 협찬과 캠퍼스라이프의 후원으로 '제6회 생태마을 설계 학생공모전, 2007, 숨쉬는 집, 살아있는 마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순환형사회 만들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건축으로서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참가접수: 6.11~9.8
- 작품접수: 11.2~11.3
- 참가자격: 2007년 9월 현재 대학(원) 재학생
- 참가분야: 지속가능한 농산촌 순환형마을 마스터플랜(생태건축 기법을 이용한 신축/리모델링 포함)
- 전시: 12.11~12.13, 혜화역 전시관 지하 1층
- 문의: 02.747.6009 홍순영,
- www.sanchon21.or.kr

제2회 하우스토리 마케팅 어워드 개최

남광 하우스토리에서는 설계, 광고, 마케팅 분야가 함께 진행되는 통합형 공모전을 진행한다. 'Over the time'이라는 주제로 도



심 활성화를 위한 건축계획과 우리의 정서와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계획, 10년 후 라이프 사이클을 예측 및 대응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한다.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참여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남광토건 신입사원 공채지원 시 특별 가산점이 부여된다.

- 주제: Over the time
- 접수: 2007년 6월 15일~2007년 9월 5일
- 문의: 02-3011-0392,
- www.haustory.co.kr

제8회 건축도시사진전 개최



부산건축가협회에서는 '시선(視線), 시선(詩線), 시선(市線) 그리고 인간(人間)'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소재로 한 사진을 공모한다. 건축과 도시를

그러내는 새롭고도 다양한 시선을 담아봄으로서 인간과 건축,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시는 2007년 9월 12일부터 4일 간 전시될 예정이다.

· 접수: 2007년 7월 20일~2007년 8월 3일
· 문의: 0502-555-4455,
www.kiabb.org

제18회 김수근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지난 6월 14일 공간사옥 마당에서 18회 김수근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건축사 승효상씨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후보작 추천 과정에서도 국내건축의 흐름이 대형작업으로 흘러감에 따라 개인이 아닌 공동작업이 늘어난 점에서 개별 독립건축사의 개념이 담긴 작품성을 중시하는 김수근 문화상의 특성에서 벗어난 점과 외국 건축사들의 국내작업이 활성화 되면서 이들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등 주최측의 어려웠던 과정을 밝혔다. 후보작으로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교문사(이민아+다니엘 바예), 사간깁러리(조병수), 아란유치원(이민+손진), 안양 파빌리온(알바로시자+김준성), 파주웅진씽크빅(김인철) 등 5작품



김수근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

이 거론되었던 이번 대회에서는 건축사 김인철씨의 작품 '파주웅진씽크빅'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파주웅진씽크빅'은 갈대밭 위에 가벼운 바위같은 건축을 디자인 하고자 했던 건축사 의도와 내부공간의 변화, 수직적 질서의 구현 등 건축의 내적 성취도에서도 잘 표현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인 건축사 김인철씨는 1회 김수근문화상 후보로 오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을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웅진씽크빅측과 항상 힘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작년 수상자인 건축사 이타미 준씨의 제주 Pink Museum에 대한 작품전시 및 설명회가 공간사옥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 문의: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4)

KCC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2007 국제부품소재 산업전" 참가, 인조 대리석 'KCC 센스톤' 시리즈 출시

2007 KCC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KCC가 개최하는 '2007 KCC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은 건축설계 및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 시스템의 개선,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고객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실시하는 행사로써, 건축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 및 건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최상의 건축자재 및 건축시공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가대상은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건축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및 3인 이내의 팀으로 공모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7월 1일 ~ 8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공모신청서 및 제안설명서 등 지정된 공모자료를 담은 CD를 제출하게 되며 방문 및 우편접수로 응모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입선에 걸쳐 약 20여 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며,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 총 3,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될 예정이다어서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 문의: 공모전 담당자 02-3480-5625,
www.kccworld.co.kr

인조 대리석 'KCC 센스톤' 시리즈 출시



KCC 신제품 센스톤

건축자재 종합메이커 KCC가 인조 대리석 'KCC센스톤(Senstone)' 시리즈를 더욱 향상된 품질과 새로운 컬러 라인업으로 출시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KCC 센스톤' 시리즈는 천연 대리석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재현한 명품 노블레스를 포함, 다양한 컬러 및 제품군으로 새롭게 출시되었다.

2003년부터 최고급 내장 마감재로서 고품격, 고감각의 공간을 창조해온 'KCC센스톤' 시리즈는 무공질 소재로 천연 대리석에 준하는 질감과 컬러로 주방의 싱크대 상판과 식탁상판, 욕실의 세면기, 선반 등 주거공간은 물론, 은행, 패스트푸드점의 카운터 등과 같은 사무/상업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내오염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열성이 우수하여 각종 환경에서도 변색, 파열 등 외관상 변화가 없으며 수분 및 오염물질의 침투가 거의 불가능한 우수한 외구성과

함께 어떠한 디자인이라도 자유롭게 가공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KCC센스톤' 시리즈는 국내 친환경 건축 자재 품질인증제도(HB) 최우수 등급 및 미국 NSF 위생인증을 획득한 최고급 내장 마감재이다.

· 문의 : 3480-5800, 5805, 5849

'2007 국제부품소재 산업전' 참가



초일류 정밀 화학기업 KCC가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07 국제부품소재 산업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KCC는 '실리콘'을 비롯한 'AM, EMC, 장섬유' 등 기업의 최첨단 소재 제품을 전시하여 국내외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세계적인 초일류 정밀 화학기업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실리콘은 전시회 기간 내내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은 제품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을 만큼 그룹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가 행해지는 사업이다. 2012년까지 연간 20만 톤을 생산해 세계 4대 실리콘 기업으로 올라서며 2014년이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실리콘에서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를 보호해주는 반도체 봉지재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KCC가 1985년 국내 최초 독자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다. EMC는 회로가 설계된 반도체 칩에 전기적 연결을 가능케 하고, 외부의 충격에 견디도록 밀봉 포장된 제품으로 독보적인 기술로 전세계 업체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첨단 소재이다. 최근에는 EMC 파우더 품질이 개선됨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용 인쇄회로기판(PCB)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AM(Alumina Metallizing)은 돌과 쇠를 붙인 복합적인 소재로 세라믹의 특성과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의 특성을 결합시킴으로써 고전압, 고진공, 고온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용 절연 부품 소재이다. 특히 진공차단기용 AM의 경우 KCC가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장섬유는 저알칼리 유리 조성의 원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유리 제품으로 강도가 강하고 불에 타지 않으며 우수한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어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에 보강재로 사용된다. 전기절연성, 내열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의 복합재료로 사용되는 등 적용범위와 그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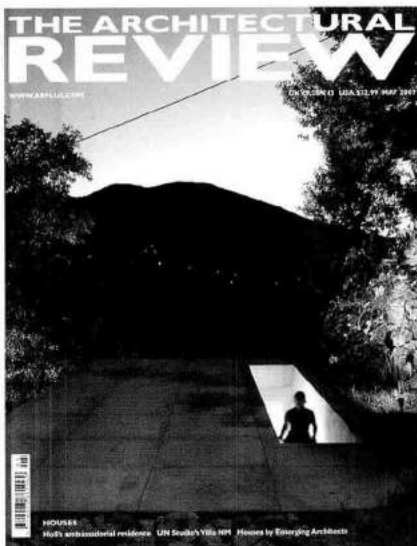
KCC 관계자는 "이번 '국제부품소재 산업전'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KCC의 첨단 기술력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최첨단 소재제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초일류 정밀화학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KCC 홍보팀 02-3480-5884, 최윤 팀장, 윤희성 과장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6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69-156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8-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5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8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8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광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6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6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6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6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6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6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삼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8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영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함양지역건축사회/(055)586-8587 · 창원지역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view 지의 2007년 5월호의 주제어는 주택이다.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쓰는 알바로 시자 2세의 주택 계획안의 인상적인 진입구를 잡아낸 표지에서부터, 다른 잡지들이나 심지어 Review 지 자체로도 수없이 반복했었을 주택 특집과의 개념적 차별을 선언하는 comment와 주택작품들, 그리고 AR Awards for Emerging Architecture에 참가한 작품 중 참신한 주거작품을 모아놓은 Young House 부문까지 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션을 주택에 할애를 하고 있다. Colin Davies의 저서『20세기 주요 주택(Key Houses of the 20th Century, 2006)』의 21세기적 비전 혹은 승계의 일환으로 건축의 경향을 폭넓은 시각으로 함축하는 시설로서의 주택에 주목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주요 뉴스로는 퓨처 시스템의 프라하 도서관 당선안(퓨처시스템의 Jan Kaplicky는 체코 출신이기도 하다.)의 내용과 자하 하디드의 장점을 수혈받아 자신의 본디 장점인 텍토닉에 우회상장시켜 그녀를 2등으로 밀어낸 메카노의 타이완 국립공연예술센터 디자인, 리차드 로저스(공식적으로는 Riverside 경)의 프리츠커상 내정 등이 다뤄지고 있다.

■ VIEW

메카노, 타이완 국립 공연예술 센터

(Na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현상 당선

3월말 메카노가 대만 카오슝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국립 공연예술센터의 디자인 현상에 당선자로 선정되었다. 자하 하디드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기요시 다케야마 + Amorphe의 안들을 누르고 메카노의 안은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이다. 자하 하디드의 형태적 힌트에 타공성의 개념을 결합하여 내부와 외부, 벽과 천정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공간에서 비정형적인 공공공간과 적절한 건조환경을 유지하는 디자인을 추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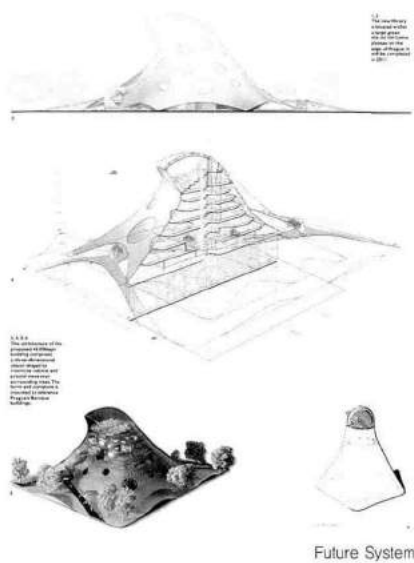


Mecanoo

퓨처시스템, 프라하 신 국립도서관

(New National Library) 현상 당선

1968년 소위 '프라하의 봄'에 조국인 체코를 떠나 영국에 체류한 Jan Kaplicky의 퓨처시스템이 프라하의 신 국립도서관 디자인 현상에 당선되었다. 자하 하디드와 에바 쥐리크나가 포함된 다양한 취향의 심사진은



유사한 블록 디자인 중에서 이전 경험과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퓨처시스템의 디자인에 손을 들어주었다.

■ Ho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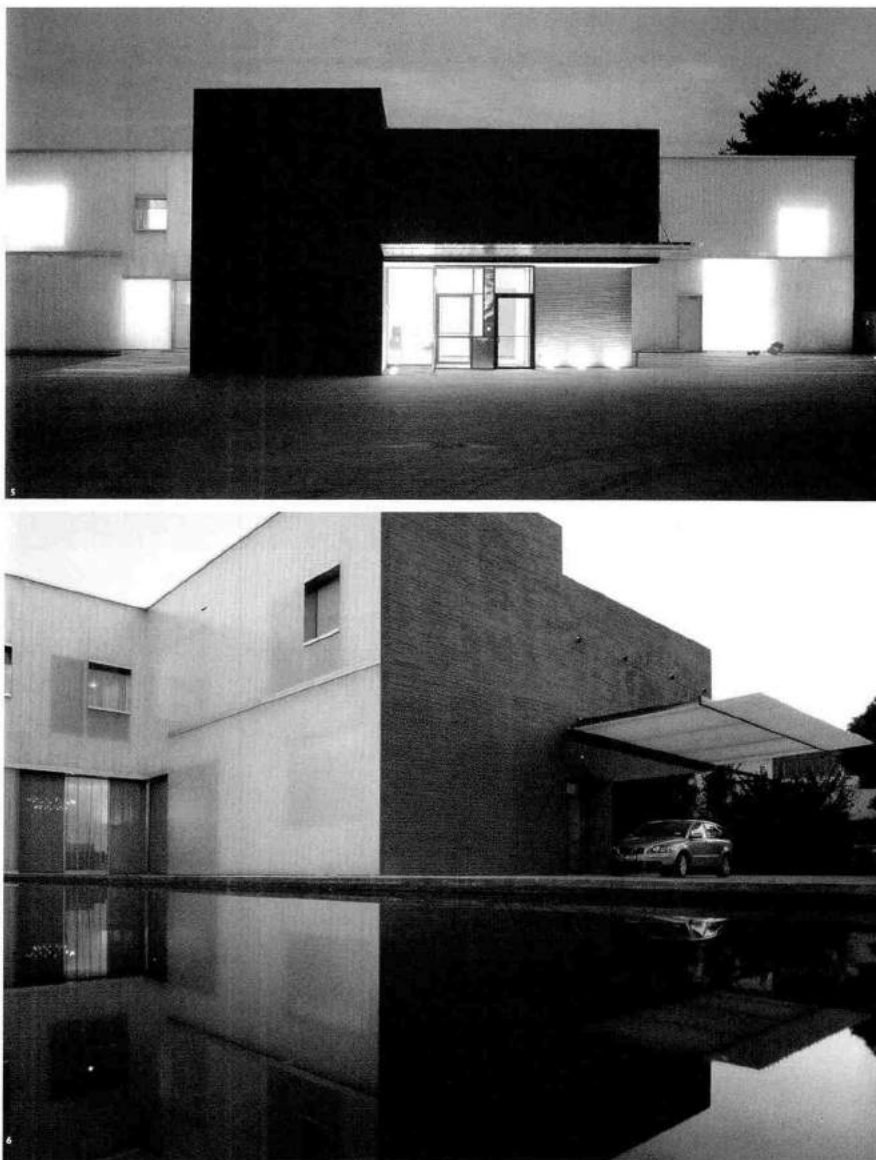
클리쉐가 괜히 클리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부함 속에는 그것이 진부하게 되기까지 유효한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다. 주택이 새로운 건축적 아이디어의 산실이라는 인식은 이미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콜린 데이비스가 주장하듯 개별 건축사가 디자인한 주택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미할지 모르나 건축의 역사의 응축으로 독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라이트나 코르뷔제 아스플런트, 알토가 베렌스, 루티엔스, 브와시, 그리고 매킨토시의 흐름을 확장하여 모더니즘 건축을 열여쭙히는 가운데 그들의 주택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이후에도 샤로운의 쉬민케 주택, 아달베르트 리베토/큐시오 말라파르트의 말라파르트 주택, 맥민스터 풀러의 위치타 주택, 알리스 앤 피터 스미슨의 서전 주택, 벤츄리의 바나 벤츄리 주택, 기소 구토카와의 캡슐호텔, 그리고 UN 스튜디오의 뫼비우스 주택까지, 혁신적 주택 디자인은 그것들의 디자인어에 앞서 그들을 소개하고 건축계를 자극시켰다. Review 지의 이번 기사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으로서 스티븐 홀과 UN 스튜디오, 알바로 라이테 시자, 제이미 포버트, 위크샵 하코모리 안트라사스트,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 콧 힌멜블라우의 최근 주택 작품을 소개

■ 스위스 프로토콜
(스위스 대사 공관/ 워싱턴 DC/
스티븐 홀)

외교를 위한 건축물의 특성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분리되기 시작했다. 1931년 루티엥스가 워싱턴에 영국 대사를 위한 컨트리하우스를 시점으로 하여, 루이스 칸과 스미드슨의 루안다와 브라질리아에서의 계획안, 최근에는 알리스 앤 모리슨, 스노헤타, 램 콜하스의 디자인에 이르면서 대사관 건축은 그 독자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스티븐 홀의 스위스 대사관 공관역시 독특한 조합을 보여

주고 있다. 사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동시에 문화적 중심, 비즈니스 센터, 공적 집회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스위스 로컬 건축사와 함께 평평한 석조 기반 위에 다양한 기능들이 결합되어 있는 단일 건물을 계획했다. 전체적으로는 수평의 얇은 석판을 쌓은 듯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 십자형의 건축 안에서 건축사는 내부의 얼음같은 투과성을 콘크리트 표피를 절개하는 느낌으로 외부로 표출시키고 있다. 구조적 기능을 가진 불투명 유리 패널과 실제 개구부 일부에 걸쳐있는 투명 유리, 창문 프레임으로 구성된 유리스킨이 실제 개구부와 다른 방식으로 절개된(콘크리트가 아닌) 입면을 둘러싸면서 물성에 강한



스티븐 홀의 디자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 입구 측면에 있는 반사를 위한 수공간을 통해 더욱 극적으로 표현된다. 내부 공간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도록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상층부는 주거를 위한 방들이 모여 있다. 스티븐 홀은 현상학자 메를로퐁티의 'in-between(매개)' 개념을 공간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스티븐 홀에게 'in-between'은 개별적 요소들이 그들의 명확성을 잃는 순간과 유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사는 확정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그가 인지하는 대사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사관 공간은 명백히 주택이라는 근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간에 요구되는 사교와 비즈니스, 틀에 박히면서도 동시에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교의 드라마와 수수께끼들로 인해 그 명확성이 약해지고 흐려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 칸은 빛에 지역건축의 특징을 구분하고 구현하는 특질이 있다고 말했다. 이 건축물에서 스티븐 홀은 매개적 진실사이에 있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열음과도 같은 정적을 만들어 내는 공간과 빛의 주목할 만한 화학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 계단의 거장

(주택/ 포르투갈, Lugar 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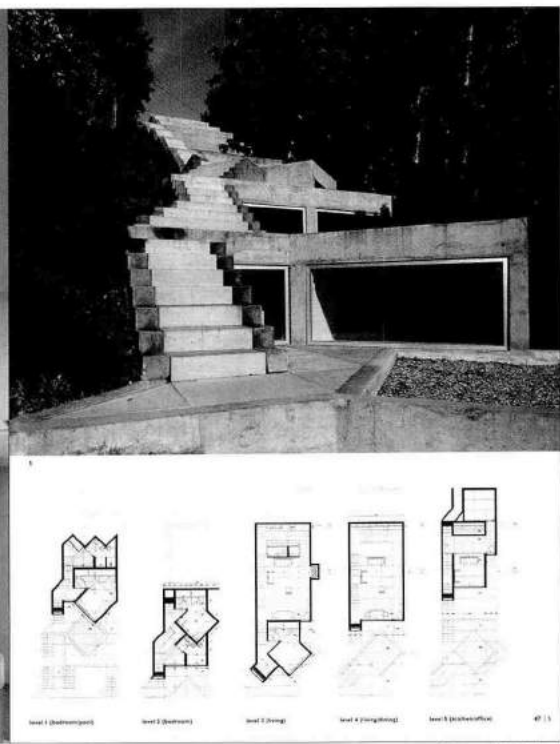
Carvalhinhas/ Alvaro Leite Siza)

부전자전. 거장 건축사인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이 건축사는 자신의 아버지의 건축을 특징짓는 '우아한 침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포르투갈의 북부에 위치한 이 주택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도전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고문에 가까운 대지경사(평균 30도)와 1억원이 채 안되는 타이트한 예산(77,000유로, 건축과 조경 포함), 상당한 넓이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일반적 주거공간+침실 3개+수영장)에 비해 턱없이 좁고 긴 대지형상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대지가 남측을 바라보며 전면부 경관이 훌륭하다는 것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시자 주니어는 땅을 파거나 캔틸레버로 새로운 지반을 내미는 대신 주택 자체가 지형이 되는 전략을 취했다. 일련의 테라스를 가진 콘크리트 컨테이너 블록을 경사에 맞게 나열하면서 건물 전체가 마치 여석이 그린 계단 같은 주택을 디자인한 것이다. 이 '계단주택'에는 외부와 내부에 각각 각 블록/실 들을 연결하는 별도의 계단이 자리하고 있는데, 외부의 계단이 반-공적(semi public)인 루트를 형성하는 반면 내부

계단은 다양한 공간들을 연계시키고 있다. 각각의 블록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지붕은 그 위쪽 블록을 위한 파티오가 되고 있다.(이는 북부 포르투갈의 언덕 주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진입도로에서 주택은 콘크리트로 마감된 주차장과 병커같이 뚫린 입구만이 확인이 가능하다.(표지) 내부공간은 입구로부터 직주 공간-주방, 응접, 거실 공간-침실의 순으로 전개되며, 주요 침실은 주방향으로부터 45도 틀어져 반복가운데 변화감을 만들어 내며, 기능적으로는 드레스 룸과 세탁실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준다. 긴 하강 끝에 정원과 수영장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로부터는 30미터정도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의 결과로 적용된 노출콘크리트(외부)와 흰색과 나무 바닥은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제한된 재료로 시적인 의미를 추구했던 포르투갈 건축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며, 시자가문의 예의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경우를 위한 모범답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시자 주니어의 이 주택은 어떻게 힘든 조건들 가운데 드라마틱한 건축이 가족 생활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구축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Alvaro Leite Siza

■ 백색 입방체

(주택/ 스페인, Zahora / Alberto Campo Baeza)

이베리아 전통건축의 정수를 현대건축에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가 이번에는 그의 금욕주의의 한계를 조금 더 확장했다. 스페인의 대서양쪽 해변인 러즈에 위치하고 있는 자호라 지역의 이 주택은 하늘을 제외한 모든 주변 조건에 무심하다. 대신에 초점을 내부로 옮겨 격자 형태로 식재한 오렌지나무가 인상적인 파티오에 모든 관심을 투사하고 있다. 온통 흰색으로 덮인 외부와 차폐된 세계 속에서 이 한모금의 길들여진 자연공간은 차라리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눈길을 떼기 어렵게 한다. 8m의 외벽 내부의 주거공간은 전후의 파티오를 연결하는 축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칭을 이루어, 건물의 실재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7m 높이로 높인 지붕아래 주 생활공간과 응접실, 연구 공간은 거의 완벽한 입방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리벽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병합시키고 있으며 낮은 포세는 전후의 파티오로 연장되고 있다. 주방과 욕실, 침실은 외벽과 내부 입방체 사이에 끼여있는 형상이다. 이 건축물에서 대칭은 권위와는 별개로 추상적 완전성에의 극한적인 추구에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사는 이 주택을 일컬어 '영롱하게 구축된 그림자와 음영'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

한 빛의 처리와 주거입방체 뒷면의 좁고 긴 풀장, 그리고 이베리아식의 중정주택은 무어족의 전통의 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흥미로운 단절'을 추구하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 수직적 조각물

(주택/ 미국, Venice / Coop Himmelb(l)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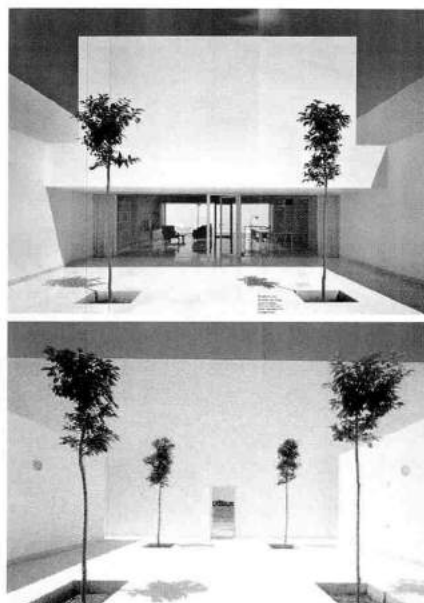
미국에는 유럽과 지명이 같아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들이 착각하게 하는 지역이 꽤 있다. 동명이지(同名異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단 텍사스에 있는 파리가 그렇고, 뉴햄프셔에 있는 베를린이 그렇고, 카즈요 세지마가 최근에 유리 파빌리온을 디자인한 도시 또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옆에 있는 톨레도가 아닌 미국의 톨레도이다. 이제 설명들어갈 콥 힘멜블라우의 주택이 있는 지역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니스'이다.

이 주택 또한 콥 힘멜블라우에게는 '돌아온 탕아'와 같은 작품이다. 기구한 사연이란 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콥 힘멜블라우가 빅리트로 올라가기 이전 10년의 기간 동안, 울프 프릭스가 윈들러와 노이트라와 같은 미국 근대주택의 스타들을 추종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은 지독한 경기후퇴를 겪고 있었다. 그에 따라 콥 힘멜블라우도 시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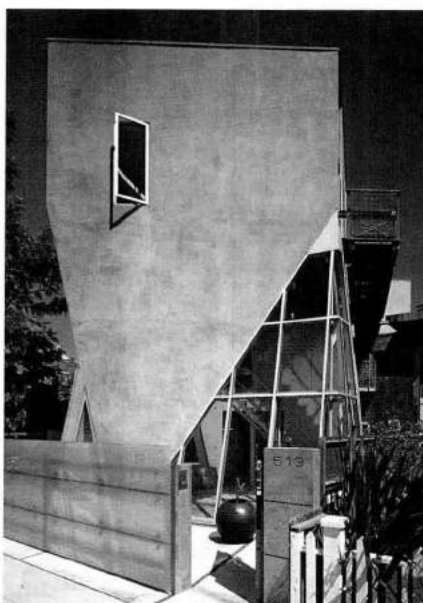
를 보내고 있었는데, 말리부에 있던 오픈하우스 계획이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 건축주가 사망함에 따라 좌절되었고 그 시기에 유일하게 실현된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대담한 스펙의 주택계획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공이 너무 복잡하여 계약인과 투자자가 차례로 도산하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급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콥 힘멜블라우와 이 주택의 가치를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Virginia Moede와 건축사 Michael Hricak, 계약인 Roland Tso(건축사이기도 하다)에 의해 '재입양'되면서 좌절된 건축사의 비전이 온전히 빛을 보게 되었다.

주택의 외관이 복고풍이다 싶을 정도로 90년대의 콥 힘멜블라우와 닮아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뒤틀린 기하학과 접힌 평면, 충돌하는 매스 같은 건축사가 즐겨 사용했던 어휘들로 가득 찬 이 건물은 급진적인 비엔나 출신의 건축사의 열정을 고스란히 환기시키고 있다. 주택은 크게 두 블럭으로 나뉘며 다리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각각의 레벨에서 기울어진 벽과 유리, 그리고 지붕너머의 꼭 짜인 경관들 사이에 연출되는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전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Alberto Campo Baeza



Coop Himmelb(l)au